

문화관광 타협대의 그 그 광주전문록 Ⅲ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3년문록Ⅲ

발 행 일 | 2013년 11월 25일
발 행 처 |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062-670-7400
발 행 인 | 노성대
글 · 사 진 | 제3기 광주문화관광탐험대 18명
산장용 김미숙 김미정 김세진 김화선 문은정 문월식 박재완 박정식
심인섭 오광오 이미란 이춘홍 임선자 장지현 정민주 최성경 한진수
구 성 작 가 | 정다운
일 러 스 트 | 주영휘
발 행 부 서 | 문화관광콘텐츠팀
총 괄 팀 장 | 남상철
총 괄 담 당 | 박수현
만 든 곳 | 명함나라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5길
전화 / 팩스 | 062-227-3249 / 062-227-3249

ISBN 978-89-968403-9-8
ISBN 978-89-968403-0-5 (SET)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⁷년문록Ⅲ



무지개 빛깔의 향기

유난히도 길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 외에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며, 예전에 갔었던 그 장소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학생, 택시기사, 주부까지 다양한 이름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새로운 일곱 글자 “문화관광탐험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광주의 모든 장소에 무지개 빛깔의 향기를 남겨놨습니다.

온전히 탐험대의 시선으로 일궈낸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Ⅲ』은 이제 누구에게는 광주의 숨은 공간을 알 수 있는 “안내 책자”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장소의 변화를 알 수 있어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시간 여행 책자”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탐험대원이 일 년여 동안 광주의 공간에 발자국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견문록 제작에 오타자 수정부터 세부목차와 제목 선정 그리고 사진 선별까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탐험대원이 사업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함께하였기에 그들의 열정과 손길이 듬뿍 담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견문록을 넘기다 보면 적어진 면양장가의 한 문구처럼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밤을 줄고, 고기를 낚으며 그리고 떨어진 꽃을 쓰는 것”은 바로 일곱 빛깔을 지닌 문화관광탐험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관광탐험대가 광주의 숨은 곳곳에 남겨놓은 무지개 빛깔 향기를 느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공간 속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노성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C o n t e n t s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Ⅲ

01

사람

호남이없었다면나라가없었을 것이다 • 30

〈김덕령〉 무등산의병길, 420년전 함성을 듣다 • 32

〈고경명〉 충효와 의열로 뭉친가족사 • 38

〈전상익〉 후금군대와 맞서 싸우다 순절한장군 • 44

“제비몰려나간다” 삼도동 국창 김창환 • 50

새와 함께 노닐던 이날치 • 54

근대 싱어송라이터 박동실 • 58

시대를 풍류했던 임방울 • 62

뜨거운 가슴을 품은 영원한 청년, 龍兒⁸아 박용철 • 66

‘40년전 메세나·사회환원 실천한 선구자’, 三勉^{삼면} 고영두 • 70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윤상원 열사 • 74

“대금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대금이다”, 최성남 명인 • 78

꽃 새기는 것 숭고한 작업, 꽃살 창호 임종철 • 82

선과 색 그리고 면, 그 경계를 허물다, 丁山^{정산} 백현호 • 86

‘米壽^{미수}’를 바라보는 젊은 청춘의 춤꾼, 승무 이수자 박은하 명인 • 90

“잘 찍어야지” 가 아니라 “무엇을 찍느냐가 중요! 사진가 오상조 • 94

02

자연

광주의 네 군데끝지점 • 100

休^휴, 사람과나무의 어울림 • 104

광주사람들의 생명수였던 시암 이야기광주의 우물 • 110

400년 세월을 등허리에이고 진소나무 당산목, 화암마을당산나무 • 120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무 이야기, 호남대테에다소나무 • 124

조선시대자치규약 '향약 과 고싸움을 만나다, 남구 칠석동부용정과 은행나무 • 128

“이 나무가죽으면 가문도 쇠락한다” 남구 원산동괘고정수 • 132

들판에 쌓아놓은 고봉밥,도금마을이팝나무 • 136

‘김덕령 전설이되어 마을과함께 숨쉰다!천연기념물 충효동왕버들 • 140

龍^룡이 태어난마을엔 용틀임하는 나무가있다! 북구생룡동소나무 • 144

험상곶은가시에달콤한 열매, 동곡초 주엽나무 • 148

광주 장덕동527, 이재만가옥 • 150

‘광주대표 고택 후손 대대로남다른 나라사랑, 고원희가옥 • 154

문흥 IC,도동고개 • 158

무등산자락32개 마을을 지나는둘레길, 무돌길 • 162

대쪽같은 선비, 자연에서 옹어리진마음을풀다! 광주·전남8대 정자, 호가정 • 168

03 명소

- “이모 집에 방문하는 느낌으로 오세요” 게스트하우스 씨엠프레(Siempre) • 174
- ‘한국인의 일상’ 체험 공간! 게스트하우스 페드로(Pedro’s house) • 178
- 양젓 퍼주는 아침밥과 깔끔하고, 정보력 빠른 숙소! 3박자 남도게스트하우스 • 182
- 죽염 묵은지가 일품인 약오리 백숙, 태원농원 • 186
- 한결같은 맛에 또 찾게 되는 집, 영양보쌈갈국수 • 190
- 양 부족하면 기꺼이 리필되 넉넉한 인심! 운암골식당 • 194
- 상건지 맛같은 한옥식당 정지씨! 양림동 한옥식당(구)신용식육식당 • 198
- 팔죽^계하다 팔죽집을 연 동해분식 • 202
- 5천원 지폐한 장에 팔죽이 두 그릇 말바우시장매일팔죽 • 206
- 푸른길의문화 커뮤니티카페 신시^화 • 210
- 카페? 스튜디오? 원직 · 틀을 깨다 카페나른한 오후 • 214
- 마음의 여유를 찾는 전통찻집 예사랑 • 218
-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에 3초 구이는 덩! 평촌도예방 • 222

04 명품

- 440년 전, 선비들의 무등산 유람기 재해석, 유서석록 • 228
- 조선시대 선비들, 무등서 더위를 쫓다! 무등산여름축제 • 232
- 페스티벌 오!광주-오감만족, (주)페르소나년버벌뮤지컬 '비밥' • 236
- 페스티벌 오!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 시평역 • 240
- 페스티벌 오!광주-풍물연화예술단 광대 광주비나리/광주판打志^{타지} • 244
- 페스티벌 오!광주-얼쭈의 '인수화풍' • 248
- 페스티벌 오!광주-극단 여행자 '한여름밤의 꿈' • 252
-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무등산천제단 개천제 • 256
- 일년의 단 하루! 머슴들과 일꾼들의 축제, 서창 만드리풍년제 • 262
- 은막 위에 인권 · 평화를 펼쳐다,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 266
- 디자인 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고래집 • 270
- 단돈 2,000원으로 즐기는 광주시티투어 • 274
- 무등산을 두배로 즐긴다! 무등산순환버스 • 278
- 심장으로 듣고 마음으로 즐긴다! 재즈밴드, 올댓재즈(All that Jazz) • 284
- 재즈, 변주로 다양하고, 낯선 매력 선사! 재즈밴드, 세븐마일즈 • 288

부 록

- 국창 김창환선생 묘별초 • 292
- KBS 문화산책 포플러촬영 • 294
- 제3기 문화관광탐험대 활동일지 • 296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니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 송순, 면앙정가 중에서 -

WOW!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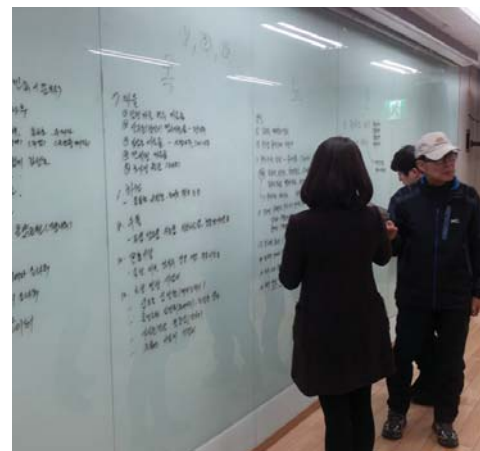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Ⅲ



광주 문화관광탐험대















광주 문화관광탐험대



남상철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콘텐츠팀장.
1년동안 주말도 없이 발품을 팔아 광주의 속내를 담아낸 탐험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탐험대원이 있기에 광주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휘한다고 본다.



박수현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콘텐츠팀 근무. 문화관광탐험대 총괄 담당자.
2년동안 탐험대원과 함께하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뛰는 탐험대원이 있기에 광주가 존재하고, 광주가 살아 있기에 탐험대원이 존재한다.
불철주야 달려준 문화관광탐험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신장용

1기, 2기 그리고 3기.
벌써 문화관광탐험대원으로 활동한지 3년이 됐다.
3년동안 광주를 돌아다녀도 숨은 보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광주의 숨은 보물들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춘홍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문화관광탐험대!
1년동안 주말도 없이 발품을 팔아 광주의 속내를 담아낸 탐험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재완



산따라 길따라 물따라
카메라를 들고 방방곡곡 오지를 담아내는 사진작가.
문화관광탐험대를 3년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담아냈다.
아직도 이야기가 많은 광주를 모두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싶다.

김화선



전국을 여행하며 살고 있는 중년에 사나이.
인심 좋고 볼거리, 들을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한 '예향도시'
그리고 '빛고을 국제문화도시' 에서 문화관광탐험대원으로 활동하며
늘 새로운 곳을 찾아타 지역의 친구들에게 전하여 함께 즐기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심인섭



회사원, Daum 우수블로거(simpro의 반백년 이야기)view베스트블로그, 프로야구 컬럼리스트,
여행기고가, 포토뉴스코리아 사진기자, 지역발전포털 레디스(REDIS) 블로거기자
광주와 무등산은 한 몸이다. 그래서 무등산을 다 뒀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무등산과 광주를 광주견문록Ⅲ로 소개한 탐험대 역할에 만족하며
이 책자에 소개된 모든 곳을 직접 돌아보길 희망한다.



한진수

자칭 광주홍보대사이며 사진가이다.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택시 업무를 하는 동시에
외지인과 시민을 상대로 광주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탐험활동을 통해 마련할 수 있어 좋았다.



김세진

숲과 나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가만가만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숲해설가.
소삽하지 않는 광주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숲, 노거수, 문화유적, 먹거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진흙속에 묻혀있는 작은 보물들과의 만남은 늘 설레임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호사를
누린 시간들이었다.
올해 찾아내지 못한 숨은 보석들을 내년에도 계속 찾아내고 싶다.



임선자

퇴락한 건물, 낡은 간판 등, 모든 것들이 어울려
몽클하고 생생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도시탐험은 언제나 새로웠다.
신문과 잡지에 기사를 쓰며 자유기고가로, 탐험대원으로 세상과 나누는 대화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문월식

대한민국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가.
어김없이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나온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문화관광탐험대가 할 일이다!

이미란

손대면 툭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울보공주님과 뒤편지 척척 대답하는 똘똘왕자님과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 하지만...
요리 잘하는 남편을 갈망하고 가정보다는 가정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비범한 가정 밖 주부다.
문화관광탐험대 활동을 하면서 사소하게 지나쳤던 돌하나, 풀 한포기,
소리 하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미정

photographer, flower 강사 그리고 숲해설가로 바쁘다 바빠 하면서도 빠질 수 없었던 일!
광주문화재단문화관광탐험대 활동! 올 한해 참 열심히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두고 광주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제 많은 분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최성경

숲해설가. 사춘기의 두 딸과 고군분투 중인 어리숙한 엄마
하루하루 똑같은 틀에 박힌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싶어
내 안에 남아있는 열정을 일깨워 탐험대에 합류하였다.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탐험대 활동이 조금은 버거웠던
뜨거운 여름을 지나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오광오

문화를 찾아서 탐방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알게 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김미숙

문화에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광주문화를 배우며 특별한 인연을 만들고 싶어 탐험대 활동을 시작했다.
많이 배우고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다.



장지현

좋은 분들과 활동할 수 있어 기뻐다.
우리가 느끼고 좋아하게 된 것들을 광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뿌듯하며, 탐험대 활동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정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문화관광탐험대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알수록 매력있는 광주! 광주문화관광탐험대 파이팅!!!



문은정

전남대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이자 탐험대 막내다.
사람과 여행을 좋아하여 탐험대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 있는 것은
여행가서 인터뷰하기이다.
탐험 활동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발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정민주

숨은 보물, 꼬마 멤버 정민주!
비록 아직 어린 5살이지만, 언니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활동했다!
이제 2년차를 맞는 문화관광탐험대원으로서
추후에 진행될 탐험대 활동에 기대가 커요!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Ⅲ

01

사람





〈프롤로그〉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

충무공 이순신은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부터 호남의 사대부와 민초들은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거나 의롭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분연히 일어나 국가의 안위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

그 효시가 바로 임진년(1592)으로 왜적이 삼천리금수강산을 짓밟고 있을 때 이 고장의 수많은 문인과 사대부, 백성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붓이나 호미 대신 칼과 창을 들고 자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과 맞서 싸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경명과 김덕령 장군이며, 정묘호란 때 전상의 장군이다. 장군들의 뒤를 이어 구한말까지 이곳은 항상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의병을 모아 왜적과 항전하던 곳이 됐다. 그 정신은 동학과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한국전쟁, 4.19 의거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진 것이다.

1879년에 간행된 광주읍지(光州邑誌)기록에 의하면 광주의 역사에 남는 의로운 충신 14인 가운데 3인이 나라에서 정려를 받았는데, 그 3인이 바로 고경명, 김덕령, 전상의 장군으로 이 세 분을 ‘광주 3충신(三忠臣)’이라 부른다.

‘광주 3충신을 찾아서’는 1편 김덕령 장군의 행적을 찾아 떠난 여행, 2편 제봉 고경명장군의 행적을 찾아 떠난 여행, 3편 전상의 장군의 행적을 찾아 떠난 여행 등 3편으로 나뉘며, 각 편마다 3충신들의 생가와 묘소, 사당과 제실, 유적지 등의 탐방과 더불어 그분들의 가족사 등을 소개한다.



충장사



포충사



충민사

풍암정사, 무등산 의병길, 제철유적지

〈김덕령〉 무등산 의병길, 420년 전 함성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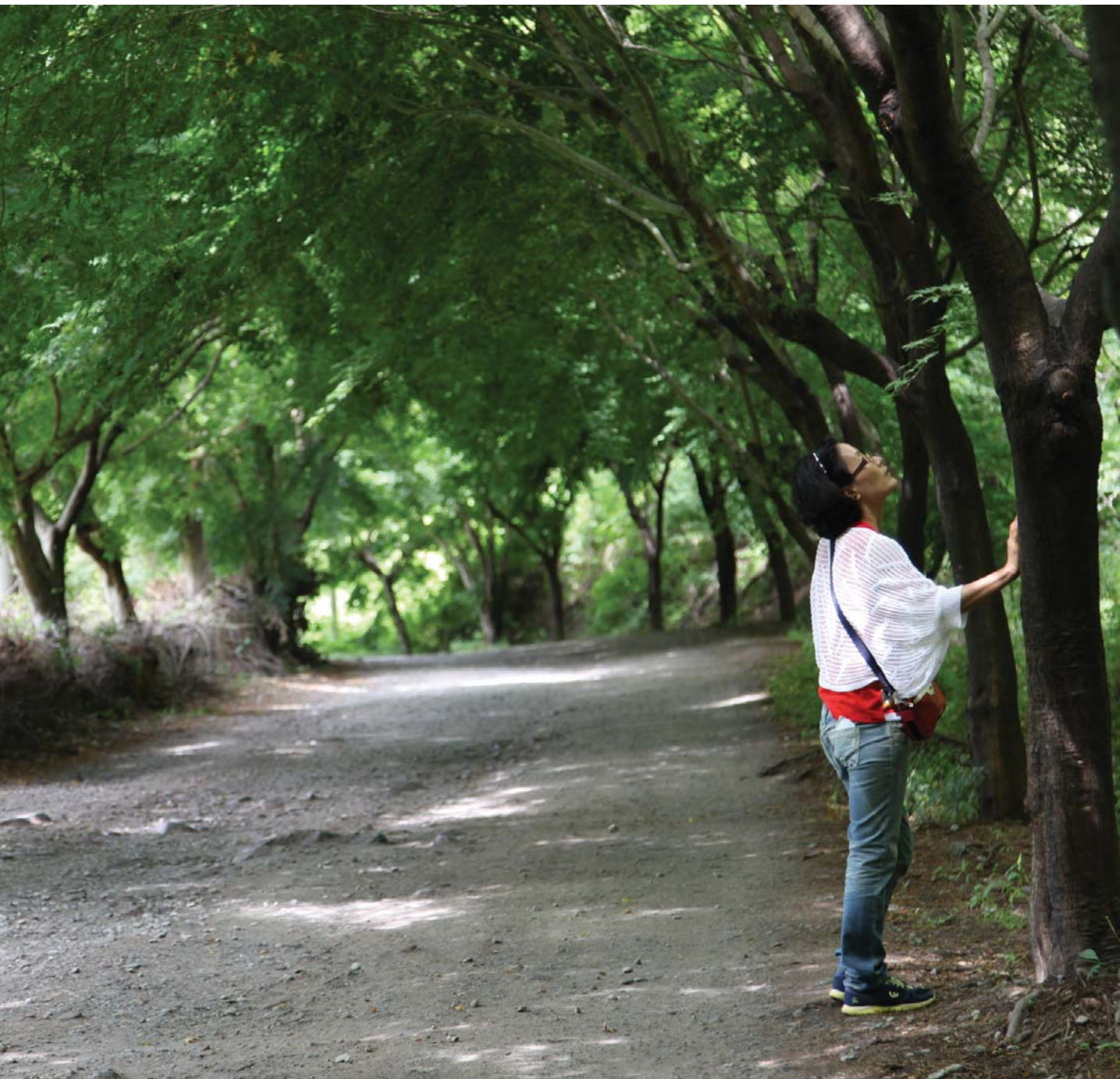
광주에는 임진왜란 의병장인 총장공 의병장 김덕령 장군을 기리기 위한 총장로, 총장사, 취가정 등이 있다. 여기에 추월산 보리암에는 의병장 김덕령장군의 부인 흥양이씨 순절비도 있다. 의병장 김덕령장군과 부인 흥양이씨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 탐험대원들은 무등산과 추월산을 올랐다.

김덕령(1567~1596) 장군은 무등산과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가 태어난 곳이 무등산 북쪽 산자락인 지금의 충효동이며, 어렸을 때부터 임진왜란 의병장이 되어 전투에 참전할 때까지 수도 없이 올라 다녔던 곳이 무등산이다. 덕분에 무등산 곳곳에는 의병장 김덕령장군과 관련된 전설과 유물이 많다. 총장사 옆 이치장군대(梨峙將軍臺) 설화, 원효계곡의 치마바위, 금곡동의 시검바위, 지왕봉의 뽕바위, 중봉 삼발실, 말바우 시장의 말바우, 의상봉의 비미죽바위 등이 그 예이다.

‘무등산 의병길’은 풍암제입구에서 제철유적지까지(3.5km)로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풍암제 입구부터 제철유적지까지는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길이다. 꼭 등산화가 아니더라도, 운동화를 신고 거뜬히 다녀올 수 있다.



가는 길에는 김덕령장군의 동생 김덕보의 풍암정사, 김덕령장군 누이의 전설이 있는 차마바위, 제철유적지에서 만든 창과 칼을 식히고 단련한 사당소, 의병들이 전투의 피로를 풀었다는 원효폭포 등이 있다.

풍암제에서 단풍나무 터널길로 300m를 걸어가면 좌측 숲속아래 정자가 하나 보인다. 의병장 김덕령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비통해 한 아우 김덕보(1571~1627)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한 ‘풍암정사’이다.

‘풍암정사’는 일반적인 정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정자’(亭子)가 자연과 친화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정사’(精舍)는 심신을 수련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김덕보가 이곳에서 은둔하면서 심신을 수련한 곳이기때 그 뜻을 새겨봐야 하는 곳이다.

김덕보는 형의 억울한 옥사를 슬퍼한 나머지 이곳에 풍암정사를 짓고 은둔생활을 하며 학문에 힘쓰고 제자 양성에 전념했다. 그 후 여러번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후진 교육과 명현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형제들의 애국충절의 피는 결코 속일 수 없었고, 의로움에 있어서는 은둔생활도 사치였다. 결국 김덕보는 정묘호란 때 안방준(1573~1654)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병으로 거동을 못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무등산 지진관측소를 지나 나무벤치가 나오는 길에서 무등산 옛길3구간(역사의 길)과 의병길이 나뉜다. 제철유적지까지 갔다가 되돌아올때 원효사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풍암정사에서 내리면 바로 이 길로 내려 오는 것이다.

원효계곡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원효계곡의 물은 풍암제로 흘러든 다음 그곳에서 다시 광주댐으로 흘러 들어 광주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된다.

이정표가 나오는 곳에서 원효계곡을 가로지르면 안양암(예찰)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그곳으로 해서 윤필 봉, 투구봉으로 올라 의상봉까지 연계산행을 할 수도 있다. 이정표 너무로 캄캄한 곳이 바로 사당소이다. 대낮에도 캄캄할 정도로 자그만 협곡을 이루고 있으며 물이 깊어 곧이무기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곳이다. 제철 유적지에서 만든 칼과 창을 이곳까지 가져와 물에 담금질하고 단련하는 등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800m정도가야 하지만 인적이 뜸한 곳이라 걷기에 고즈넉하다.

1900년대 초에 세워진 도수교를 지나, 무등산장과 원효사지구로 갈리는 길이 나왔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무등산장, 규봉암으로 갈수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의병길과 원효사지구로 갈수 있다.

원효사 지구 상가가 보이면 의병길은 좌측으로 간다. 이곳에는 이정표가 없다.

이정표 없는 삼거리가 나오면 우측 의병길로 가야 한다.



왼쪽으로 가면 떨어지는 폭포물에 의병들의 신
경통과 잔병을 치료했다는 원효계곡 원효폭포가
나온다.

제철유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덕령장
군이 무기를 만들었던 주검동으로 주검동은 이
곳에서부터 옛길2구간의 주검동 바위까지이다.

무등산 의병길은 제철유적지에서 끝나지만 조
금만 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주검동
바위까지 보고 오는 것이 좋다. 멀리 무등산 누
에봉이 보이고, 조금만 더 오르면 주검동 유적지
가 나온다.

그런가하면, 추월산에는 의병장 김덕령장군 부
인인 홍양이씨의 순절비가 있다.

추월산은 임진왜란의 치열한 격전지였으며, 동
학 농민군이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곳이다.

탐험대는 의병장 김덕령장군의 부인 홍양이씨
가 걸었을 지도모르는 길을 더듬어 찾다가 흔히
가는 추월산권광단자보리암길 보다 호남정맥길
을 따라 밀재에서 보리암까지가기로 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과 짧은 이동거리를 마다하고
일부러 길게 돌아간 것은 추월산을 자나는 호남
정맥길을 걸으며 우리 민족의 기개와 절개를 온
몸으로 느끼고 몸소 실천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산 정상에서 500m를 내려오면 보리암으로 가
는 갈림길이 나온다. 때마침 보이는 비석이 오늘
우리가 이곳을 찾은 목적인 김덕령장군 부인 홍
양이씨순절비이다.





홍양이씨순절비 옆에는 자그마한 비석들이 더 있다. 김덕령의 매형 김응회가 어머니 창녕성씨를 모시고 홍양이씨, 김덕령장군의 처남대들인 광산김씨, 제주양씨와 같이 추월산으로 피신했다가 왜적들과 맞부딪힌 끝에 보리암에서 함께 투신 순절한 것을 기린 것이다.

헌데 왜 홍양이씨는 김덕령장군이 있었던 광주를 벗어나 이곳 담양의 추월산 보리암 옆에서 순절을 하게 되었을까.

이마 홍양이씨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덕령의 병장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로 왜군에 붙잡힐 것을 염려해, 왜적을 피해 동생들의 부인들과 함께 추월산 보리암으로 피신했다가 자신의 행적을 쫓은 왜적과 맞닥뜨리게 되고 붙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절벽아래로 투신해 정절을 지키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보리암은 정유재란때 왜군에 의해 소실됐다. 소실된 보리암은 1607년에 승려 신찬이 고쳐지었으며, 1650년에 다시 스님들이 힘을 모아 재건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절은 1983년 주지 성묵스님에 의해 복원됐다고 하니 오래전에 폐찰 된 것을 현대에 이르러 다시 세운 듯 하다.

홍양이씨와 함께 순절한 부인들의 이동경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 추월산 보리암으로 오르는 길이 깎아 지르는 절벽을 타고 올라야 하며, 가시덤불숲을 헤쳐 지나야 하는 험한 길이었을 것이기에 왜군들에게 쫓겼던 여인들의 긴박했던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고경명 신도비와 묘소를 찾아서

〈고경명〉 충효와 의열로 뭉친 가족사

제봉 고경명장군은 '장군'이라 불리지만, 사실 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문인출신이다. 사간원 정언으로 있다가 사가독서 중 이조판서 이량의 탄핵에 연루되어 울산 군수로 좌천되었다가 곧 파면되었으며 그 후 고향 광주로 내려와 압촌 마을에서 18년간 지내며 많은 문인과 교류하였다.

당시 그와 교류를 나눈 인물들은 김인후, 기대승, 정철 등이었으며 고경명은 식영정 20영을 짓고 임억령, 김성원, 정철 등과 함께 식영정 사선(四仙)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현존하는 최고의 무등산 기행문 유서석록(遊瑞石錄)을 남겼다.

1562년에는 과거 시험관이 되어 송강 정철을 장원으로 뽑았으며 이후 3살 어린 송강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고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1590년에는 반대로 송강의 천거에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되었다가 이듬해에 동래부사(東萊府使)로 가는 등 송강 정철과 많은 연이 있었다.

1591년 동래부사로 재직 중 정철이 탄핵 유배되자 정철을 등용시켰다는 이유로 서인이 배척받기 시작하자 동래부사를 사직하고 다시 낙향하였다가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을 겪자 60세의 고령에도 전 재산을 처분해 두 아들과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에 맞섰다.

제봉 고경명 신도비와 제실, 묘역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다.





장성읍을 지나쳐 장성JC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해양조 공장이 있는 영천리가 나온다. 그곳 월산 교차로로 진입하여 장성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해주 그리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 된다.

오동촌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개울가에 장성 제봉 고경명신도비 입간판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100m 들어가면 신도비가 나온다. 신도비가 있는 마을에는 제봉 고경명장군의 재실이 있으며, 재실 뒤에는 제봉 고경명장군의 가족묘역 등을 만날 수 있다.

참고로 신도비 근처에는 전남 기념물 186호인 영천 방울 샘이 있으며 보해양조 앞에는 선사시대의 고분이 있기에 한 걸음에 제봉 고경명장군의 묘역과 신비의 방울 샘 그리고 고분까지 다 둘러볼 수 있는 멋진 코스이다.

신도비(神道碑)는 왕이나 고관의 무덤 앞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이다.

신도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50m 정도 가면, 오른쪽에 재실을 만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면 재실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솟을대문이 높게 솟아 있다. 마치 장군의 기상을 보는 것 같아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



본당은 지어진 지 2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본 모습 그대로이건만 주변은 풀 포기 하나 없이 스산하기만 하다.

장군의 13세손인 고광석이 경신년(1980)에 쓴 중건기를 쪽 훑어본다.

제봉 고정명장군이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1592년 처음 화순 흑토평으로 모셨다가 묘소 자리가 안 좋아 1609년 이곳 장성 오동리 제봉산으로 이장했다. 후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묘역과 신도비가 잘 보존되었고 갑인년에 이르러 제봉각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오랜 풍우로 손상되어 있던 것을 병진년(1976)에 호남고속도로가 산 옆을 지나며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중건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원이 없는 재실로서는 상당히 큰 편으로 해마다 문중행사가 치러지면 수많은 후손으로 붐빌 제봉각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장군은 장흥고씨로 장군의 둘째 아들인 인후의 후손들은 창평에 뿌리를 내려 행주기씨, 충주박씨와 더불어 창평고씨라 불릴 정도로 광주전남의 명문 가계를 이루고 있다.

제봉산자락아래 상당히 넓어 보이는 곳이 제봉 고정명장군의 가족묘역이다.

후손의 말에 의하면, 제봉 고경명장군의 장남 중후는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숙부와 함께 남강으로 투신하여 시신을 찾을 수가 없기에 진주에 가묘가 남아있다. 둘째 인후의 묘는 창평에, 셋째 준후의 묘는 이 근처에 있고, 넷째는 포충사 근처에, 다섯째는 부친의 묘소 옆에 있으며 여섯째의 묘는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다.

고경명의 온 가족은 모두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동생 경신(敬身)은 전투에 필요한 말을 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다녀오다 풍랑에 익사했으며, 또 다른 동생 경형(敬兄)은 1593년 진주성 전투에서 고경명의 큰아들 중후(40세)와 같이 전사하였다. 제봉 고경명장군의 장남인 중후는 문과에 급제하여 임피 현감으로 있다 부친을 따라 동생과 같이 금산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친과 동생을 잃었다. 이듬해 상중임에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위해 숙부와 같이 군사를 일으켜 진주성에서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숙부와 같이 강물에 투신하여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황산벌 전투에 참전한 둘째 아들 인후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유로 있다 부친과 같이 의병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황산벌에서 같이 순절했다(32세). 그의 막내아들 용후도 16세 때에 부친과 둘째 형을 따라 의병으로 참전하려 했으나 온 가족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고, 용후는 아직 나이도 어리기에 안동의 학봉 김성일에게 보내 대를 잇도록 하여 돌아가게 된 것이다. 훗날 임진왜란 이후 막내아들 용후는 과거에 급제하여 그의 가문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여 후세에 남겼는데 고경명의 막내아들 용후가 있었기에 고경명의 문집과 행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무청사(無淸沙) 무제봉(無霽峯)'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또한, 제봉 고경명장군의 셋째 아들 준후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고, 넷째 순후는 임진왜란 이전인 159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온 가족이 나라에 몸을 바친 것으로 추은하여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다. 비록 임진년에는 나이가 어려 전투에 참전은 못 했지만 정묘호란 때 호남의병장으로 다시 의병을 모아 국난극복에 앞장섰으며, 다섯째 유후는 장군의 죽음을 애통해하다 병사하였다. 차녀는 출가하였다가 정유재란 때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니 제봉 고경명장군의 두 형제와 더불어 6남 2녀의 자손 중 왜란과 관련하여 2남 1녀가 목숨을 바쳤으니 충효와 의열로 뭉친 제봉 고경명장군의 가족사는 탐험대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제봉 고경명장군이 두 아들을 앞세워 의병을 모집하여 출정할 때 따라나선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봉이(鳳伊)와 귀인(貴仁)이라는 제봉 고경명장군의 하인들이었다.

이들은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적군에 부상을 당하여 쓰러졌을 때 그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며, 제봉 고경명장군과 둘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장례를 지냈다.

이듬해 큰아들 중후가 숙부와 같이 복수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모아 진주성 싸움에 나갈 때, 주인을 따라



같이 참전하여 주인과 같이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하였다. 그들의 고결한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노비는 포충사에 세워져 있다.

이렇듯 제봉 고경명장군은 광주를 빛낸 충신이었으며 그 형제와 지손들도 모두 형과 부친을 따라 왜적과 맞서 싸운 충신의 가족이었다.

둘째 아들 인후의 후손인 고광순(高光洵)도 구한말 또다시 창평에서 의병을 일으켜 10년간이나 왜군과 혈전을 치르다 1907년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으니 1592년에 전사한 선조의 기개를 그대로 이었다고 할 것이다.

제봉 고경명장군의 신도비와 묘역 그리고 재실을 탐방하고 인터뷰를 한 후 사당이 있는 광주 포충사로 가면서 장성 제봉산을 바라본다. 사방 10km 땅을 하사받았다면 지금 자나는 이 길도 고경명의 땅이었건만 지금은 묘역이 있는 산비탈만 남아있다고 하니 그 많은 땅은 다 어디로 가 버렸을까.

전두환 소문 맞물려 인적 '뚝'
성 같아도 문종은 달라

〈전상의〉 후금 군대와 맞서 싸우다 순절한 장군

제봉 고경명장군과 의병장김덕령 장군이 양반가문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붓 대
신 칼을 들었다면 전상의 장군(全尙毅 · 1575~1627)은
정묘호란 당시 무인으로 후금의 삼만 군대와 맞서 싸우
다 순절한 장군이다.

전상의는 1603년 (선조 36)에 무과에 급제하여 1617년
(광해군 9) 오윤겸(吳允謙)과 함께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가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 150여 명을
송환해 왔다. 1618년 (광해군 10)에 정3품인 내금위 어모장군
행충무위검사복에 임명되어 광해군의 가장 총애 받는
무관으로 봉직하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종4품 직인 평안도 개천군수로 물러날
정도로 정치적 핍박을 받은 인물이었다. 결국 1627년
정묘호란 때 안주성에서 후에 청나라가 된 후금의 남하를
5일간 막아내며 장렬히 전사했다.





3충신은 걸던 길도 다르고 직급도 달랐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한 것은 딱 하나 바로 '구국충정' 이었다.

그러나 현세에 이르러 재봉 고경명장군과 의병장김덕령 장군은 후손들이 모두 번창하여 앞다투어 조상을 섬기고, 지역 명문가로 문중이 알려져 국가에서 사당을 관리하지만, 전상의 장군만 유독 그 이름 함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사당이 어디 있는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드물다. 광주3충신 중 가장 흠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했다. 더군다나 전상의 장군의 사당인 충민사에는 그 흔한 홍살문도 없어 그 이유가 궁금했다.

전상의 장군의 사당에 들르기 전에 전상의 장군의 묘부터 참배했다.

전상의 장군의 묘는 광주시 기념물 제3호로 예장석묘이다. 예장석묘란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국장 다음으로 높은 국가장이다. 그만큼 전상의 장군 순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기에 사당인 충민사보다 묘부터 참배하게 된 것이다.

전상의 장군의 예장석묘는 사당인 충민사로 들어가기 전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1km 정도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국립공원 안내전광판이 있는 널따란 부지가 나오는데 그 우측으로 전상의 장군의 유허비가 있다. 묘소는 오른쪽 돌계단을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나온다.

정려각이란 충신이나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앞에 문으로 세우거나 마을 입구에 정각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상의 장군의 정려각유허비는 그곳에 있지 않고 신도비처럼 전상의 장군의 묘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이제 전상의 장군의 예장석묘도 참배했으니 사당인 충민사로 가서 전상의 장군의 행적을 훑아보기로 한다.

전상의 장군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충민사 관리사무소가 같이 있다.

충민사는 박정희 시절인 1975년에 사당 건립을 위한 유족보존회가 결성되었고 1977년 전상의 장군의 예장석묘가 광주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후손들에 의해 사당 건립이 추진됐다. 1978년에는 (사)전상의 장군 유적보존회가 장군의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화암동 묘소로 올라가는 입구에 신도비를 세웠으며, 유적정화사업으로 1982년에 착공 1985년 현재의 사당이 지어졌다.

사실, 충민사는 광주사람들 대다수가 무등산에 오면 금기어처럼 말하지 않고 들르지 않는 곳이다.

‘망주 3충신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만난 의병장김덕령장군, 재봉 고경명장군의 흔적은 참으로 대단했다. 두 장군의 사당에선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돛자리 펴 놓고 앉아 그분들의 충절을 자녀들과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자녀들과 손잡고 산책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지만, 충민사는 그 풍경이 사뭇 달랐다.

한 가문의 선조를 모신 사당치고는 그 규모가 압권이며, 시설 또한 호화롭기 그지없기에 초창기 충민사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광주지역에서는 수많은 말이 있었다.

사연인즉, 1985년 이곳에 충민사가 건립될 시기는 제5공화국 시절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다. 그의 권위에 기댄 동생 전경환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명예회장으로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렸다.

전경환에게 주변 인사로 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나온 전상의 장군의 유품 등 40여점이 전달되었고, 전경환은 그 유품의 주인이 천안(天安)전씨 문중의 것임을 알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복사품은 충민사 유물전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전경환은 같은 전씨이지만 완산(完山)전씨였던 관계로 시조는 같지만, 문중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전상의 장군의 유품이 전경환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후 그의 묘가 있는 화암

마을에 갑작스럽게 사당이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천안 전씨 문종이 전상의 장군의 사당을 짓는다고 하니 전경환이 기증한 그의 유품 중 일부를 다시 문종에 돌려주게 되고, 그 유품을 중심으로 충민사가 1982년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유적정화사업의 하나로 착공됐다. 광주시민들은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이자 5.18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자신의 선조를 억지로 들춰내서 격에 맞지도 않은 호화로운 사당을 짓는데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다고 여긴 것이다.

2년 전, 그가 행한 학살의 현장에다 그의 조상을 모신다고 하니 광주시민들에게는 그 믿기지 않는 사실이 가당치 않았다.

충민사가 한창 공사 중일 때부터 ‘전두환이 전상의 사당을 무등산 자락에 만든다더라’라는 소문을 모르는 광주시민들이 없었으며, 1985년 준공된 이후 충민사공적비에 유물기증자인 전경환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결국 공적비가 박살이 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충민사는 전두환 정권과 관계없이 1979년 (사)충민공 전상의 장군 유적보존회 설립 이후 이미 신도비를 세웠으며 차후에 후손들에 의해 사당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의 혈세로 사당을 만든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공적비에 전경환의 이름까지 들어갔으니 오죽했겠는가.

지금도 충민사에 드르는 탐방객들의 대다수는 전상의 장군을 전두환의 조상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전두환이 자신의 조상을 위해 충민사를 세웠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또한, 전상의 장군이 태어난 광주지역에서도 전상의 장군의 업적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탐험대는 그러한 실정을 세밀하게 파헤쳐 광주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충민사를 찾는 사람들은 전상의 장군의 구국충정에 대해 올바른 사고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한편, 전상의 장군은 광주 충민사 말고도 1849년(헌종 15년) 광주의 경렬사와 제주 굴림서원(橋林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제주까지 배향된 것은 제주에도 천안전씨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광주의 구성로(광주고등학교앞~월산로터리)는 전상의 장군의 호인 구성(龜城)을 따서 지었다

화암 마을에는 충민사 말고도 운암서원이라는 사당이 하나 더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해광 송제민(海狂 宋濟民 · 1549-1602)을 배향한 사당이다.

최근 해광 송제민의 운암서원에 홍살문이 설치되었다.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자 영혼이 출입하는 문으로 정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면 신도비와 더불어 홍살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송제민은 종5품인 사헌부 지평으로 추증되었음에도 후손들이 홍살문을 설치하였지만, 전상의 장군의



충민사에는 그러한 홍살문이 없다. 전상의 장군은 병조판서(정2품)를 추증받았기에 홍살문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출입문 앞은 도로이기에 홍살문을 설치하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홍살문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충장사처럼 출입문 안쪽으로 홍살문을 옮겨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출입문 안쪽으로 10m 정도 도로를 내고 양쪽으로 화원을 만들어 홍살문을 세우면 될 것이다. 광주 3충신 중의 한 사람인 전상의 장군이 운명한 지 400년도 지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홍살문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구성공 전상의 장군 실기(이종일 저)

“제비몰리 나간다~” 삼도동 국창 김창환

흑운(黑雲) 박차고 백운(白雲) 무릅쓰고 허공에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西蜀) 지척(咫尺)이요 동해
창망(滄茫)하다.
축융봉(祝融峯)을 올라가니 주작(朱雀)이 넘늘고
황현관(黃峴關) 얼른 지나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남(吳楚東南) 가는 배는 북을 두리둥둥 울리면서
여기야 아-야 저어 가니 원포귀범(遠離歸帆)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불승청원각비래(不勝淸源去飛來)라
날아오는 저 가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 이점 점점이 떨어지니
평사낙안(平沙落雁)이 이 아니냐
백구(白鷗) 백로(白鷺) 짝을 지어 청파 상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기로다
회안봉(迴雁峯)을 넘어, 황릉묘(黃陵墓) 들어가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絃彈夜月)에 반죽(斑竹)가지 쉬어 얹어,
두견성을 화답하고 황학루(黃鶴樓)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黃鶴一去不復返)
백운천재공일유유(白雲千載日悠悠)라.

‘홍보가’ 가운데 김창환의 더늠인 ‘제비노정기’는 음악적 구성이 뛰어나 오늘날에도 여러 명창들에 의해 불리고 있다. ‘더늠’은 원곡대로 부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부르는 것으로 소리꾼이 특별히 잘 부르는 대목을 가리킨다.

그는 1855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명창 이남치, 박기홍과는 이종간으로 어려서부터 서편제 명창인 정창업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신재효의 가르침으로 본격적인 서편제 명창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그에게 수학하며 음악과 연극적인 요소까지 영향을 받은 김창환제 판소리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고종황제 재임시절 당대 최고의 국창으로 인정, 많은 관객과 창극공연을 선보였다. 전라도 출신 명창들을 모아 ‘김창환합류사’를 조직하여 순회공연도 펼쳤다. 고종이 승하하자 고향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다 1927년에 생을 마감했다. 임방울의 외삼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근대 5대 명창’으로 손꼽히는 김창환의 흔적을 찾아나섰다.

광산구 삼도동 대야 마을 앞 대로변엔 김창환 선생의 기념비와 묘소를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는 추모비는 1987년에 세워 졌으며 제비노정기가 기록되어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묘소를 찾아 나섰다. 0.5km 앞이라는 표지판 지시대로 바로 앞 동네로 들어섰다가 40여분을 헤맸다.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지만 이유가 있었다. 표지판이 대야마을의 입구쪽을 가리고 있어 이곳을 처음 찾는 이는 당연히 그길로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추모비 곁에 간단한 가이드 맵 정도와 표지판을 위쪽으로 살짝 옮겨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마을을 헤매다가 나물 캐는 아주머니께서 앞 동네라고 일러 주셔서 다시 그곳을 향했고 운 좋게 묘소를 아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궁디 거그가 갈대로 꼭 차부러서 찾을 수 있을랑가 몰러.”

“쪼그 엉덕에 있는 밭 우쪽으로 집이 한채 있어. 거기 묘똥이 있으니 가보슈.”

어르신이 일러주신 대로 마을 안길을 한참 올라 묘를 찾을 수 있었다.

묘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일행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 나온다.

“아니, 이럴 수가.”

언제 별초를 했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잡풀도 아닌 갈대가 어른 키만큼 무성해서 상석의 일부와 비석만 보일뿐 봉분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풀 사이사이로 비석이 보여서 ‘이곳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도무지 이곳이 당대 명성을 떨쳤던 국창 김창환 선생의 묘소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혹여 그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선생에 대한 후대의 관리는 너무나도 허술했다.

비석 측면과 뒷면엔 추진위원들이라는 이들의 이름만 뽁뽁했다. 안타까운 문화유산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나무를 짓히고 보니 묘비에는 ‘의관 중추원 김해김공창환지묘 배숙부인밀양박씨부좌’라고 한자로



음각때 있었다. 부부 합장 묘인 듯했다. 찾아 드는 소리꾼들로 넘쳐 났을 마을엔 후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는 저처럼 말이 없다.

탐험대원들은 광산구청에 요청해 며칠 뒤, 함께 묘소를 단장하기로 했다.

비석조차 찾기 힘들었고 안내판도 없어 찾기 힘들었던 김창환 선생의 묘소가 말끔히 정리됐다. 속이 후련했다.

김창환은 판소리 음반을 녹음한 최초의 명창이며 1930년엔 무려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녹음된 이별가, 중타령, 단가 고고천변등이 지금은 CD로 복각이 되었다. 음반으로 남아 있는 그의 소리는 현재 서편제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20세기의 판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였지만 근대 5대 명창으로 불리는 이동백, 송만갑, 김창룡, 정정렬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서편제의 퇴조현상과 함께 그의 소리가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홍보가 제비노정기를 구입해 들어왔다. 녹음 한 때의 나이가 있어 글로 적혀 내려오는 절정 때의 기량은 아니겠지만 가만 듣다 보면 흐트러짐이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없는 공력이 바로 지금의 명창을 만든 게 아닐까.

또한 제비노정기를 듣다 보면 귀에 익은 명승지들이 눈에 보일 듯 나타난다. 지금은 우리가 가 보지 못하는 북한의 명승지들을 찾아 제비들이 노닌다. 판소리 초보인 나이지만, 명창의 소리에 도취되어 생생한 감촉으로 덜컥댄다.

새와 함께 노닐던 이날치

국창 '이날치'.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 다소 우스꽝스럽다는 느낌마저 풍긴다. 서편제를 대표하는 대명창인 그이지만, 이날치에 대한 자료라곤 이날치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 뿐이다.

이날치 명창의 기념비를 찾아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초겨울이 제격일 듯싶다. 고독하고 쓸쓸한 초겨울의 느낌이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냈음에도 정작 국창의 묘는 찾을 수가 없는 그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침단자구나 일곡지구에서 출발해 대전면을 지나 수북면 수북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병풍산 이정표를 따라 길을 잡으면 되는 가깝고도 한적한 곳.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에 자리했던 성암청소년 야영장이었다.

역시 담양길이라 메타세쿼이아가 많다. 승용차로 뒤편 지나가기 보다는 시내버스 180번을 타고 이곳 풍경을 곁눈어보는 것도 큰 재미이다. 수련원 입구까지 길 양편에 회화나무, 벽오동, 목련,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 튜립나무, 뽕나무, 히말리아시다, 삼나무, 편백나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라고 있어 짧은 거리이지만 다양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나무의 향연'이다.

이곳을 찾기에 적절한 계절이 겨울이라 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입구 중간쯤에 자리한 저수지에서는 겨울철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쌍안경은 필수다.

수원원 입구에서 100여m 안으로 들어서면, 한 편에 북을 올린 기념비가 보인다. ‘이날치 기념비’ 다.

사실, ‘날치’는 예명인데, 칼날같은 그의 성품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어름을 날렵하게 잘 타서, 날에게 줄을 잘 타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단 이야기도 있다.

이날치는 광대 중 가장 대접받는 소리꾼이 되고싶다며 대명창 박만순을 찾아가 그의 수행고수로 활동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박만순이 세숫물, 발씻는 물까지 심부름 시키자 화가 나 발췌던 물을 박만순의 얼굴에 쏟아버리고 떠났다는 일화는 그의 칼날같은 성격을 잘 말해준다. 고수와 명창의 차별대우가 너무 심했던 당시의 사회상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후 이날치는 대명창 박유전의 지도 아래 서편소리를 절치탁마한 결과 조선 후기 판소리 8명창 중에서 서편 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꾼이 됐다.

이날치의 특징인 새타령은 가히 따라올 자가 없다고 전해진다. 새타령을 노래할 때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내면 그소리를 듣고 새가 날라 왔다고 한다. 요즘으로 치면 ‘소리의 달인’으로 매스컴에서 유명세를 치를만한 일이다.

겨울철 기념비를 찾아가면, 주변의 숲 속에서 직박구리, 어치, 물까치, 찌꼬리, 지빠귀, 박새들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날치 명창이 새타령을 부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 있을 법 하다.

이날치를 장안명물로 만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대원군의 형 이최응을 감동시킨 일이다. 이최응은 꼬장꼬장한 성격에 화노애락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기백있는 대장부가 비천한 광대소리에 감정이 좌우되느냐”고 큰소리를 치곤 했다.

이최응에게 불려 온 이날치는 심청가 중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면서 부친이 절규하는 광경까지 애사비조로 노래하자 청중이 모두 울었다. 이최응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날치의 손을 잡고 대명창이라고하며 상으로 천냥금을 내렸다.

이후 1880년 무렵에 광주로 내려와 박창섭, 김채만 등 후진을 가르치다 말년에 장성으로 이주하여 1892년 72세의 나이로 타계한다. 말년의 종적이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고 그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명창의 소리는 남도땅에서 대가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2호(1984년 지정)인 이일주 명창이 이날치의 손녀다. 이일주명창의 아버지 이기중도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판소리를 잘하여 소리꾼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왕대발에 왕대난다 했던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은 시련의 시간을 거쳐 이처럼 계승되고 있다.



『근대 싱어송 라이터 박동실』

광주견문록에 지역 명창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료도 태부족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 내친 김에 책을 한권 구입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 사전같은 책으로 아무리 찾아도 박동실 명창에 관한 기록 한 줄을 볼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월북 소리꾼이었던 것이다. 연좌제를 두어 월북한 가족에게까지 감시와 사찰을 행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볼 때 책자이긴 하지만 이름 석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을 것이다.

해방 전후 전남도를 대표했던 서편제 판소리의 대가 박동실 명창을 찾아 초록 바람 너울대는 담양으로 향했다.

박동실(1897~1968)은 1896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41번지에서 태어났다. 김채만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웠으며 11세부터 소리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무대를 광주로 옮겨 극단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1921년까지 소리의 수련과정을 거친다. 26세 무렵부터 광주협률사에서 본격적인 소리꾼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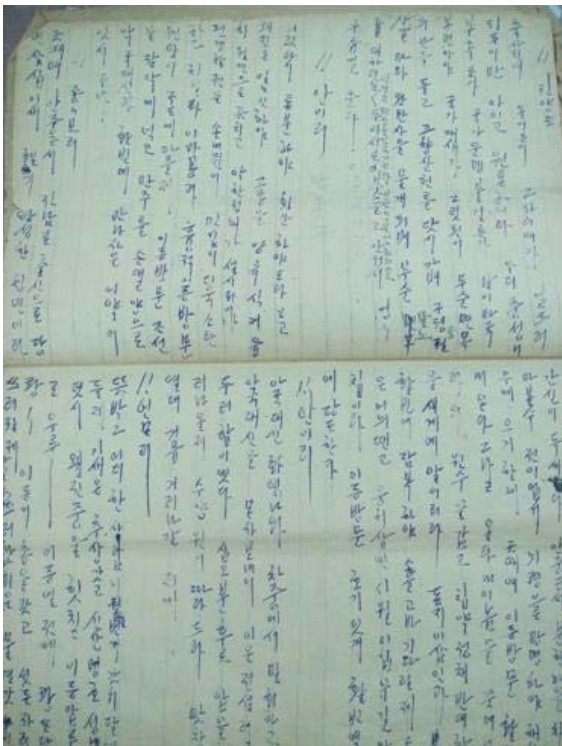


1935년 무렵 담양 창평의 부호이자 동경제대 출신의 엘리트였던 박석기를 만나게 되며 그의 초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거문고의 명인이기도 했던 박석기는 담양군 남면 지실마을에다 초당을 짓고 소리를 가르친다.

그 초당에는 김소희, 한애순, 한승호, 장월중선, 임춘앵, 임유앵, 박귀희, 김녹주, 오비연 등 함흥, 대구에서 소리를 배우기 위해 온 이들로 북적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담양 고서에서 광주댐을 따라 가면 호수가 끝나는 지점에 가사문학관이 있다. 문학관 뜰 안에 박동실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 뒷쪽에 있는 식당이 당시의 초당이 있었던 자리이다. 당시 혼신의 힘을 다해 배우던 제자들이나 스승의 모습이 보이는듯해 자꾸 시선이 머무른다.

기념비 위에는 북 세개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이 북과 기념비 정면에 보이는 원은 판소리 명창의 유적지임을 알리고, 소리의 득음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정면의 음각은 당시의



주변환경과 후학들의 득음을 향한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박동실은 박석기에 의해 화랑창극단이 결성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창극단 창립공연 춘향전 이후 서울로 진출해 그곳에서 작곡도 하고 소리를 지도한다. 작곡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박동실은 이무렵 창작판소리 ‘열사가’를 작곡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싱어 송 라이터’였던 셈이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민족영웅을 소재로 한 판소리를 만들어 비밀리에 전수시키고 지도했다. 당시에는 일본말로 하지 않으면 공연 허가를 내 주지 않았을 정도로 서슬이 퍼런 일제의 강점기였다. 수난의 역사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혼을 일깨우려 한 그의 민족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한국동란중에 박동실은 월북을 한다. 북으로 간 박동실은 1954년부터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삼임위원장을 맡았으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1954년 창극 ‘이순신전’ ‘춘향전’ ‘심청전’을 만들고 ‘노랑대전’ 등의 창작판소리를 만들었다. 그 공로로 1961년 인민배우가 되어 최고의 예술가 대우를 받는다. 그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1969년 12월 4일 평양에서 타계했다

박동실 집안 또한 예인이 많이 나왔다. 그의 친동생 영실은 소리를 하며 제자를 양성했고 아쟁의 명인인 종선이 영실의 아들이다. 박동실은 슬하에 2녀1남을 두었는데 큰딸(21세)과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특히 소리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 나 남달리 예뻐했던 큰딸의 죽음으로 극심한 상실감에 빠졌다한다.

평주에서 태어나 수창초교 2학년때 서울로 이사를 한 ‘이름모를 소녀’를 불렀던 가수 김정호(본명 조영호)는 그의 외손자다. 그의 어머니 박숙자 명창이 아버지 박동실로부터 이어받은 재능이 고스란히 가수 김정호에 이어진다. 김정호는 외할아버지처럼 ‘싱어 송 라이터’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대다수 그의 곡들은 단조로 이루어져 국악적인 감성이 배어있다.

월북과 함께 잊혀졌던 그의 창작곡들이 재조명돼 한번쯤은 그의 ‘열사가’를 들어 보는 날이 왔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시대를 풍류했던 임방울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 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중략)…네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구절 한고비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은,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송대관의 ‘네박자’ 가사를 인용하자면, 임방울의 소리는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는” 소리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소리 그 이상이었다. 일제강점기 핍박에 찌든 서민들은 임방울의 소리에 한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고 설움을 날렸다.

국창 임방울 선생은 1905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동편제 대가 유성준으로부터 수궁가, 적벽가를 사사했다.

1929년에 외숙인 김창환의 소개로 전국명창대회에서 ‘쭉대머리’를 불러 인기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콜럼비아레코드사의 일본 오사카로 복혜숙 등과 함께 가서 취입한 음반을 통하여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그는 시골 장터같은 무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맛있는 목구멍으로 청중을 휘어잡았다.





요즘으로 치면, 한류스타 사이에 가왕 조용필을 합쳐놓은
것에 맞먹는 스케일인 셈이다.

광주 곳곳에는 그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지하철 송정역에는 임방울 선생의 일대기를 알 수 있게 잘
정리정돈 되어있다.

선생의 생전의 목소리로 속대머리 등 여러곡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옛 사진으로 생전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모습,
따님과 함께한 사진 장례행렬 모습과 여러기록을 볼수있다.

지하철 역을 빠져 나오면 광주송정우체국 앞에서 임방울
선생상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선생의 흉상이 세워져있고,
소촌동 송정공원 안에는 국창 임방울 기념비가 있다.
광산구와 북구에 걸쳐 임방울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도
있고, (사)임방울 국악진흥재단에서는 매 해 한차례 그의
예술혼을 기리고 후배 소리꾼을 배출하는 ‘임방울
국악제’를 열고 있다.

생가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679번지에 생가터가 조성돼 있다. 진입로의 벽화가
인상적이다. 현재 광주 공군부대에 있던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대한 소리꾼 임방울의 예술혼을 통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그 서민적 예술이 가치 있는 민족 예술로 평가받고 후세
사람들에게 오래토록 사랑받게 하는 일은

민족 예술을 되살리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친척관계

사돈: 한영숙(韓英淑): 임방울의 사위들 가운데 1명이 한국무용가 한영숙의 친정 7촌 조카
 사돈: 황병렬(黃炳烈): 아코디언 연주자로 한국무용가 한영숙의 부군
 사돈: 한성준(韓成俊): 구한말의 판소리 고수이자 민속무용가로 한국무용가 한영숙의 친정 할아버지
 친척 조카손녀: 김완선(金完宣): 임방울의 사위들 가운데 1명이 가수 김완선의 외숙부이자 한국무용가 한영숙의 친정 7촌 조카

*관련장소

- 1) 생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679번지
- 2) 국창 임방울 기념비
 1986. 9. 12 건립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송정공원 내
 송정공원 전화번호: 062-940-8514
- 3) 국창 임방울 동상(생상)
 1994. 10 건립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8-16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 앞
- 4) 임방울 선생상
 2009년 6월 광산구청에서 건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824-5번지 광주송정우체국 앞
 광주송정우체국 전화: 062-942-0420
- 5) 국창 임방울 선생 전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3-1 광주지하철1호선 송정역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6-4(천변차로 338번길 7)
- 6) 임방울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신원동, 광산구 운남동, 수완동, 월계동, 쌍암동, 신기동 등 에 걸친임방울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
- 7) 임방울 국악제
 1997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 2013년 21회 대회 진행 중
- 8) 사단법인 임방울 국악진흥재단
<http://www.imbangul.or.kr>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7 아트스페이스 6층
 전화: 062-521-0731



‘뜨거운 가슴을 품은 영원한 청년’

龍兒^{용아} 박용철

80년대를 풍미했던 영화 ‘고래사냥’에는 ‘나도야 간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온다. 용아 박용철의 대표작 ‘떠나가는 배’와 연관이 있겠거니 했는데, “나도야 간다. 젊은 세월을 눈물로 보낼 수 있나”라는 후렴구가 닮았다. 다만 김수철의 가사는 떠나버린님을 ‘꽃 위에 앉은 노랑나비 잡으려다 날아갔다’고 빗대며 사랑과 꿈을 찾아 가겠다는 내용이지만, 박용철의 시는 보다 심오하다.

박용철은 어딘가에 있을 정박지를 찾아 떠나가는 ‘배’에 인생을 비유했다.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작품속 ‘나’는 암울한 식민 현실 속에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는 이픔을 가슴 깊이 지니고 있다.

사실 박용철은 문학보다는 수리에 더 밝았다고 한다. 그는 학창시절에 만난 김영랑의 시 세계에 매료돼 문학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1930년 김영랑, 정지용과 함께 동인지 ‘시문학’을 창간했고, 1931년 ‘월간문학’, 1934년 ‘문학’을 펴내며 순수문학 계열에서 활동했다.





나 두야간다./나의 이 젊은나이를/눈물로야 보낼 거냐/나 두야가련다.
이늙한 이 항균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취나니
꿀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 모양/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어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회살짓는다./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야가련다./나의 이 젊은나이를/눈물로야 보낼거냐/나 두야간다.
-박용철 '떠나가는 배' -

이름 석자보다는 시 '떠나가는 배'로 더 잘알려진 용아 박용철은 현대 시 문학 개척자로, 서정시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그의 시는 '순수시인' 김영랑, 정지용의 작품과는 달리 시어가 맑거나 밝지 않다. 오히려 시 내면엔 민족의식과 회의, 사상성이 깊게 깔려 있다.

박용철은 초기에 시를 주로 발표했지만 이후로는 주로 극예술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시와 화곡을 번역하고 평론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렸다.

1904년에 태어나 1938년 결핵으로 요절하여 자신의 작품 집은 생전에 내보지 못했다. 박용철이 사망하고 1년 뒤에 '박용철 전집'이 시문학사에서 간행되었다. 전집의 전체 내용 중 번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이 넘어, 박용철의 번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괴테, 하이네, 릴케 등 독일 시인의 시를 많이 번역했다. 번역 화곡으로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입센의 '인형의 집' 등이 있다.

그의 흔적을 더듬어 박용철 생가를 찾았다.

19세기 후반 박용철의 고조부가 지었다는 초가집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사당, 서재, 행랑으로 구성돼 있다. 초가지붕과 장독대, 정재문, 문살들 하나 하나에 옛 정취가 담뿍 묻어있었다.

박용철의 생가는 광주시 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송정공원, 광주공원 등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고, '박용철 문학제'를 통해 그의 예술혼이 이어지고 있다.

*** 관련장소**

1) 생가터

시가념물 13호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363-1

2) 시바(떠나가는 배)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번지 송정공원 내
송정공원 전화번호 : 062-940-8514

광주시 남구 구동 21-1 광주공원
광주공원 전화번호 : 062-672-0660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71 목포해양대학교 내
해양시비공원
목포대학교 전화 061-240-7114

*** 관련행사**

1) 용아 박응철 문학제

광산 문화원 주최 전국백일장, 퀴즈 대회등
광산문화원 주소: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528-14
구민회관 2층
전화번호 : 062-941-3377
<http://gjgwangsan.kcd.or.kr/>

2) 용아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안청동, 오선동, 장덕동, 산정동,
하남동 등 에 걸친박응철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



‘40년전 메세나·사회 환원 실천한 선구자’ 三勉^{삼면} 고영두

사람은 제 속에 가진 깊이와 넓이만큼 세상을 본다고 한다. 삼면 고영두선생의 인생철학과 그가 남긴 흔적들을 보며 불현듯 든 생각이다. 그는 많은 후원금이나 성금을 내면서도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에게 향하던 인정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인을 대신해 부인 정영숙 여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되돌아보니 소설 같은 삶이었지만 현실과 차이가 많았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삼면은 임진왜란 때의 공신 제봉 고경명의 후손으로 대촌면 이장동에서 1930년에 태어났다. 원래 대대로 부농의 집안이었지만 증조부 삼형 제계서 동학혁명(1894)에 동참하면서 전재산을 동학군에 헌납한다. 할아버지들은 광주, 나주, 장흥 등지에서 맹활약을 했으나 혁명이 실패하면서 객지를 떠돌다 1894년에 병사한다. 대촌면 마을 입구에 도로변에 있는 ‘이장마을(里長洞)과 동학농민혁명’ 기념비가 서 있는 이유다.





기업의 성장과 기업인으로서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휴에 대한 애착심과 농심을 버린 적이 없다.

이후 삼면의 집안은 땅 한 뼘도 없는 가난과 싸우며 세끼 밥도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맏이로 태어난 삼면과 줄줄이 다섯의 여동생을 둔 그로서는 가난의 짓누르는 무게가 더 컸으리라. 이후 삼면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도시로나가게 된다.

타고난 성실성과 재간으로 갖은 고생 끝에 19세 때 식기를 생산하는 작은 공장을 갖게 된다. 겨우 두 명의 직공을 뒀지만 자신의 소유로 출발한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몰랐다. 그 무렵 식기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식기로 만들게 된다. 일명 ‘스텐 그릇’이라 불리는 식기는 낫그릇을 주로 사용하던 부녀자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모은다. ‘삼면오복 스텐레스’라는 상표로 시장을 장악하며 그의 공장은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신용,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실한 경영등이 밑바탕이 되었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상품 개발에 힘 쓴 결과 식기 외에 가구 장식용 등을 해외로 수출해 1990년에는 천만불수출탑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삼면 고영두 선생의 부인 정영숙 여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여상 졸업 후 삼면스텐레스에 경리로 입사했다. 급전이 필요해서, 또는 남부금을 빌리러 고향사람부터 가까운 친지들이 사무실을 찾았다. 싫은 내색도 하지 않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그런 삼면 선생을 곁에서 지켜보며 존경심을 가지게 됐다. 3년 후 선생의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초혼인 그녀의 결혼에 친정의 반대가 따랐다. 어려웠던 상황을 무릅쓰고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곁에서 보았던 삼면선생의 삶과 실재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삼면 선생은 내 몸이 편안한 것을 무척 싫어했는데

그녀에게도 예외일 리 없었다. 당시 기숙사 생활을 하던 종업원들은 50여명정도 있었는데 결혼 1년후부터 직접 그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고 양동시장에서 찬거리를 사서 급할 때 머리에 이고 리아카로 날랐다. 머리에 이고 찬거리를 나르던 모습을 친정언니가 우연히 보고 너무 고생한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김치를 담그면 배추와 무가 각각 4톤으로 한 트럭씩 실려 오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울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고 스스로 단련되는 수밖에 없었다한다.

회사가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한푼이를 하듯 그는 농토를 구입한다. 편한 도심의 생활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200여 마지기의 농토를 구입해 대촌으로 들어 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쓸모없는 국유지를 사 들여 산비탈의 땅을 개간하고 방죽을 직접 뚫다. 그런 다음 적당한 이문을 남기고 나라에 되팔았다. 가난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가 해낸 셈이다. 무엇이든 동네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했고 기쁨을 나눴다. 지금도 때묻지 않은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대촌은 당시에는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오자나 다름이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정영숙 여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3월부터 시작한 농사일이 11월이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6월 20일 이모작이 끝나야 아들 필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도 애들이 스스로 잘 자라줬어요. 따라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 죽어볼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이 무렵 삼면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90년대 들어 노동운동이 번지면서 그의 회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 것이다. 개인적인 이윤추구보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사회적인 기여도를 중히 여기면서 기업을 경영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하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위장취업자들이 일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을 거듭하다 결단을 내리게 된다. 회사의 문을 닫은 것이다. 1년의 기한을 주며 그가 보여 준 회사의 청산 방식은 삼면의 성장과정의 신화 못지않게 많은 일화를 남기게 된다.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줬고,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하며 시청에 거액의 체육기금을 기탁한다.

회사를 정리한 삼면은 기업을 하며 얻은 이익금 5억원 상당을 이웃과 지역사회, 과학인력양성, 전통문화발전에 배풀고 나누는 삶을 광범위하게 실천한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온전히 실현한 그는 특히 ‘우리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사업에 깊은 관심을 뒀다. 흥년이 들어 칠석동 고싸움놀이의 고를 매지 못하자 짚 3구루마를 구매해 고를 매게 했고 칠석꾼들을 위해 도시락 1,000개를 마련해 행사를 치르게 했다. 또한 농악놀이에 직접 아들을 참여시켜 상쇠를 맡게 했다. 양과정 관리 3마지기, 마을관리비 4마지기 등은 그의 사후 그동안 도와준 것들이 불거지면서 나왔으며 부인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정작 삼면은 큰 부자답지 않게 접과와 고무신차림이었다.



2011년 공적추모비 제막식때 가족사진

그는 삼면 정신을 가족들에게 수없이 말하곤 했는데 그의 부인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 말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다.’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낫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좁아진다.’
 ‘죽으면 썩을 삭신이니 아끼지 말아라.’

이처럼 소박하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철학이자 교훈이었다. 질 좋은 도시에서의 교육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시골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서도 “시험은 80점만 받아라. 대신 도덕 점수는 잘 받아라”라고 한 것은 삼면정신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 덕분인지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고 자신들이 벌어들인 유학을 했다. 자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 주지 못한 점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잠시 말은 잊지 못하던 그녀는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다”며 마지막에 집에 들렀을 때 손이라도 잡아 주지 못한 것이 못내 가슴이 아프단다. 병중에 잠시 집으로 온 삼면은 떠날 때를 알고 있었던 듯 조상들의 묘를 옮기고 정비하는 산일을 무리하게 감행했다. 때문에 급격히 몸이 나빠져 그 뒤로 영영 일어나질 못했다. 2006년 2월의 일이다. 삼면 선생이 가신지 7년, 부부로서의 연이 40년이다. 지나고 보니 힘들었던 삶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삼면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흔적들은 후학들을 기르는 밑거름이 되어 향기로운 꽃으로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윤상원 열사

광산구 신흥동 천동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윤상원 생가’라 쓰인 팻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만히 보니, 마을 주변을 감싸 안은 산이 포근한 느낌을 준다. ‘윤상원 열사 생가 탐험’. 그 목적보다는 광주에 사는 시민으로 5·18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을 테다. 생가 팻말을 보는 순간 숙연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일 터. 벽화 속에서 피리를 불며 탐험대원들을 맞이하는 윤상원 열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 속으로 이야기했다. ‘이제야 왔습니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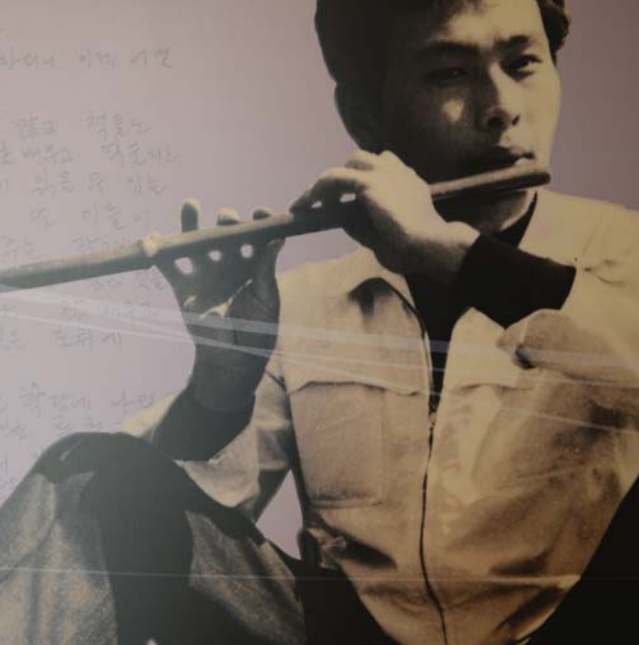
이정표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생가 대문 옆 담벼락에 씌여진 문구에 자연스레 시선이 옮겨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침울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1974년 10월 군복무중 아버지께 보낸 편지-

이 글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읽었다. ‘투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기까지의 인간적 고뇌가 느껴져 읽을 수록 가슴이 뭉클해졌다.

투사로서의 삶을 살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순박한 시골 청년 윤상원 열사. 그가 꿈꾸는 삶은 그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나눔의 세상이었을 것이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옛 전남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



윤상원 열사는 노동자 야학인 들불 야학의 교사로 활동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에는 투사회보 제작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항쟁지도부를 규합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사실, 군복무 전까지의 윤상원 열사의 삶은 평범했다. 작은 시골마을의 평범한 소년으로 임곡국민학교를 마치고 광주로 나와 자취와 하숙을 하며 북중(지금의 북성중)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두 번의 대학입시 실패 끝에 1971년 봄 전남대 문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유난히 일기쓰기를 좋아했던 그였다. 7남매중 홀로 광주에서 유학했던 그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소한 가정사를 일기에 표현해 놓았지만 2004년 원인모를 화재로 지금은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대학에서도 열심히 시위에 참가는 했지만 눈에 띄지 않게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학 1년을 마치고 경북 상주에서 33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1975년 학교로 돌아왔다. 돌아온 교정의 분위기는 10.17정변,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살벌했다. 윤상원 열사는 장남으로서 어려워진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해 무작정 시위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선배 김삼윤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윤상원 열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았다. 현실에 떠밀려 1978년 1월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그러나 은행원으로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인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은행원 생활을 접고 광주에 내려온 것이다. 광주에 내려와 광전공단안의 한남플라스틱에
일용직노동자로 취업한다.

그는 노동자 생활을 하며 전남대 휴학생 박기순 열사가 중심이 되어 만든 들불야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야학 출신 노동자들은 5월 민주항쟁 당시 민중언론이었던 '투사회보'의 제작팀이 된다.

윤상원 열사는 5월 항쟁의 전 과정을 담은 전단지를 기획·배포하고 '광주시민 민주투쟁회보'를 비롯해,
각종 선언문과 9호까지 나온 '투사회보'를 편집·제작해 배포했다.

5월 민주항쟁 당시 그와 최후를 같이 하거나 끝까지 도청에 남은 지식인 대부분이 공수부대에 의해 장악된
광주를 일시적으로 떠난다.

1980년 5월 26일 윤상원 열사는 도청에 함께 있던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우리는 오늘 패배할 것
이지만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것이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도청 진압이 개시된 27일 새벽, 윤상원 열사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서른 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과연 윤상원 열사가 믿은 '내일의 역사'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줬을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의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는 다짐을 해본다.

현재 생가터와 같은 마당을 쓰는 맞은 편 집에 윤상원 열사의 노부모가 살고 있다.

생가에서 만난 광산구청 백옥련 문화재전문위원은 “땡주정신으로 대표되는 윤상원 생가가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해마다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재 생가와 기념관 리모델링을 구상중이며 생가가 있는 신룡동에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열사의 손때가 묻은 생가는 그대로 두되, 생가 주변 정리와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가하면, 광산구청은 윤상원 생가와 근처에 있는 고봉 기대승 선생의 월봉서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짧지만 불꽃같았던 그의 삶이 오늘날 어떻게 다시 펼쳐질지 사뭇 기대된다.

*** 관련장소**

생가터

광주시 광산구 신룡동 570-1번지

*** 윤상원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및 영화**

《제4공화국》(1995~1996년) 문화방송 드라마

《제5공화국》(2005년) 문화방송 드라마

《화려한 휴가》(2007년) (영화)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 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런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마지막 연설>



「대금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대금이다」 최성남 명인

삶은 리듬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오르내림이 명확치 않은 리듬처럼 삶 자체가 예측 가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는 엄격한 자기동력과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경을 하면서도 쉽게 바꾸지는 못 한다.

“대금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대금 그 자체”라 말하는 최성남 선생은 우연한 기회에 국악인의 길에 접어들게 됐다.

하얀모시적삼이 잘 어울리는 최성남대금 명인을 만났다. 최성남 선생은 교직생활을 하며 여러 분야와 가까이 할 수 있었기에 대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회고한다.

사실, 국악과의 인연은 대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을 다닐 때 이미 민속음악에 빠져 국악기 등을 배워 가르치기도 했다. 그 후 교편을 잡으며 일 년이면 서너 번 정도 운동회나 학교 행사에서 강강수월래 등을 지도하고 참여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부임지 완도에서 후라이보이 껍규석의 사회로 진행된 ‘민요백일장’에 출연, 주말 장원전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일이었다.

그는 대금의 명인 김동진 선생에게 대금산조와 태평소를 사사했다.

배우면서 직접 대금을 만들게 되는데 미리 점찍어 둔 대나무를 지도로 만들어 두었다가 찾아 다녔다. 대금을 만드는 대 쓰이는 대나무는 쌍골죽이라는 변종이다. 황죽이 있는 대밭엔 어디든 나올 수 있지만 요즘은 상당히 귀하다.



대금으로는 보통 3년 이상의 것을 쓰게 되는데 아무리 모양이 크고 좋아도 1~2년 된 쌍골죽은 बे지 않는다. 대가 약이 차지 않아 소리도 흐물퉁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마 못 벤 쌍골죽은 지도를 만들어 1~2년 후에 다시 찾는다.

“근디, 10개를 봐줬다 하면 5개만 내 것이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베리 다니거든. 대나무 한 개에 보통 40~50만원, 좋은 것은 60~70만원 씩 허거든, 그래서 막 베 버려. 기다렸다가 베면 좋을 것인다.”

좋은 쌍골죽을 구해서 대금을 만들어도 생각했던 음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달랐지만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국악 전수관에서의 공연을 떠올렸다. 좁은 공연장에 관객이 너무 많아 1일 1회 공연을 2번으로 나누어 공연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한번은 지인들과 찾은 술집에서 피아노와 대금 합주의 즉석 공연이 펼쳐졌다. 당시 손님으로 와 있던 분들의 사그라지지 않는 박수소리와 함께 술과 안주가 테이블로 배달돼 오기 시작했다.

“내가 연주를 하면서도 참 좋다고 느꼈었는데 그사람들도 듣기가 좋았던가며. 쌍춘동 수련원 근처에 살 때 였는데, 10시 쯤 됐을 꺼네, 운동장에서 대금 연습을 하는 디 한 오분 쯤 지나니 이곳저곳 창에 불이 켜지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걸어오네.”



“라디오를 튼 줄 알았는데 직접 연주를 하시네요. 저희 수녀원이 지금 잠 잘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으썩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서둘러 연습을 접으시고 운동장을 빠져 나오셨다한다. 늦은 밤 그의 호소력 있는 대금 연주는 잠든 수녀님들도 모두 깨울 만큼 애절했던 모양이다.

대금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물었다. “요즘 사람들은 복잡하고 골치이픈 것을 싫어 해, 꼭 해보고 싶다고 좋아서 해도 1~2개월 후면 권태를 느끼고 그만뒀버려. 내가 배울 때는 녹음기도 없던 시절이여, 지금은 언제나 여건이 좋은가. 인내심을 길러야는디”.

선생님의 연주곡을 사이트에서 찾아 듣고 왔다는 필자의 말에 “사람들이 내 연주곡이 좋다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듣는데, 그것이 신기하기도하고 들으며 위안받는다 하니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하고생각한다” 고 말했다.

3집 앨범의 제목이 울엄마인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으셨느냐고 물었다.

“제목은 울엄마라고 했지만 실재는 누나에 대한 이야기. 위로 누나가 돌이 게셨는데 누나들이 지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어. 작은누나는 장남에, 농사는 많고, 매형은 술만 먹고 까칠하기는 말도 못했어. 달밤이면



누나가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집으로 왔어, 글고는 엄마 품에 쓰러져서 ‘엄마, 엄마, 왜 나를 그런 곳으로 시집을 보냈어’ 하면서 서럽게 울었어.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디갈 때는 내가 누나를 바라다 봤거든. 누나 한 사람만 그래도 속이 상한 디 두 분이 다 고생을 하셨거든, 그 뒤로 달만 보든 우리 누나가 친정 생각을 허겼구나 했지. 울 엄마는 시집간다고 흥이 나는 땡기풀이고 자주고름은 누나의 눈물땀이니까 새 색시 눈물을 그렇게 표현했지. 그리고 저 달은 누나에 대한 애절한 생각을 곡으로 지어 연주를 했어.”

왜 그랬을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송수권 시인이 누나를 그리워하며 썼던 시 ‘산문에 기대어’ 가 떠올라 찢해진다.

최성남 선생은 현재 문화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2년 전엔 힘든 일이 있었다. 지정 전 단계에 타도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곧바로 자료를 찾아 심사과정을 거쳐 정정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 어찌나 맘고생이 심했는지 대금이 왜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끝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퓨전 국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대가 같이 가잖아. 좋은 것은 같이 가야지. 다만 우리 것을 팔자는 말고 자존심을 가져야 돼.” 그는 지금은 퇴직을 하고 후학들을 위해 교본도 만들어 대금 연주보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왕성한 연주 활동과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대금은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대금이다.” 인터뷰 말미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의 대금 사랑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문 바깥의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

꽃새기는 것 송고한 작업. 꽃살 창호 임종철

창(문)은 개방과 동시에 폐쇄의 장치이다. 통과시키기도, 차단시키기도 하는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의 공간을 안과 밖으로 분리시키기도 한다. 창은 건축물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 크기나 생김새 등으로 건물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창호에 꽃살무늬를 새겨 창호의 격을 높이는 이가 있으니, 바로 꽃살창호 기능전수자 임종철이다.

54번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북구 매곡동 끝자락. 그 버스종점 비탈길 아래 커커이 쌓아올린 나뭇단이 보이는데, 그곳이 임종철 선생의 작업실이자 일터이다.

매양 꽃을 새기는 작업을 해서일까. 문화관광탐험대를 반겨주는 선생의 얼굴이 꽃처럼 환하다.

작업실은 온통 나무와 칼 도구 뿐이다. 그는 톱밥이 날릴까 봐 무더위 속에서도 선풍기마저 제대로 틀지 않고 작업 중이었다.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임종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6세에 친구 소개로 목공 일을 처음 배웠다.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김석봉 선생에게서 5·6년 정도 사사하면서 문살 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 밤샘작업으로 기술을 배웠다. 그 덕분에 1977년 이른 나이에 '대견 목공'을 설립했다.

나무를 다듬고 집을 짓는 목수가 다소 생소한 분야인 꽃살창호의 길에 들어선 계기가 자못 궁극하다. 도편수였던 친구를 따라 다니다가 절이나 궁궐에 새겨진 꽃문을 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릉 경국사 극락보전의 문살을 제작하게 되는데, 혼자서 도안을 짜고 제작해 결국 퇴짜를 맞고 말았다. 꽃살문양의 창호를 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분야임을 깨달았다. 그는 도편수인 친구,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셋이서 팀을 이뤄 도안을 그리고 무늬를 새기고, 문짝을 짜맞추어 비로소 하나의 꽃살창호를 완성해냈다.

나이 서른이 되던 해, 그의 재주를 알아본 한 목수의 소개로 경남 합천 해인사 보현암의 문짝 공사를 맡게 됐다. 처음으로 큰사찰 일을 혼자 맡아서 하는 일인지라 가슴이 두근거려 잠도 못 잤을 정도였다.

일반 미술품보다 2~3배나 비싸고 나이트도 좋은 이카디스 목재로 만든 문짝이 대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6개월 만에 일부가 오랜기간 햇빛을 받아 굵어져 못쓰게 돼버렸다. 틀어진 문짝만큼이나 자존심도 무너져 내렸다.



처마 밑 대류현상과 절에 쓰이는 나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였다.

목수에게 AS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 그는 스스로 다음 해 겨울 미술품으로 보현암의 문짝을 다시 만들어 달아주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지만 되레 한 번 일을 맡으면 책임지고 해주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게 됐고, 나무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그 후 임종철은 전국의 사찰과 문화재를 돌면서 꽃살 창호 연구에 몰두했으며 어디에 특이한 문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바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연구했다.

그렇게 문양이 주는 의미를 하나씩 알아갈수록 부처의 가르침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조상의 건축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전북 부안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 창호를 본 순간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는 것을 느꼈다. 임종철은 40세에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해 건축을 공부하고 이어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문화재학과 박사과정까지 밟아 실무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쌓아갔다.

“문은 단순히 들고나는 출입구를 떠나 이제는 문에 여러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찰의 꽃살 창호는 천상세계의 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옛 장인들은 그렇게 꽃살 창호를 제작해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세계에서의 문은 극락세계의 통로이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차단막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귀한 문에 꽃을 새겨 넣는 일은 그야말로 숭고한 작업이지요. 꽃잎 하나하나, 잎맥 하나하나 나무에 숨결을 새기듯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장수를 기원한다. 존경의 의미를 담으며 대상을 추앙하기도 한다.

그는 “내가 작업을 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내가 죽고 없더라도 작품은 몇 십년, 몇 백년 후까지 기억될 것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며 “여백의 미가 중요하다. 왜소하면 약해보이고, 촌촌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창은 부서지거나 불에 타지 않으면 대물림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자연 친화적 소재와 민속적 의미를 함께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단다.

그는 “문 바깥의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기에 ‘응용차’의 편안함과 빠름을 벗어나 여러 가지 짐을 실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선사하는 ‘화물차’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모든 예술은 반복의 노하우

‘선과 색 그리고 면 그 경계를 허물다’ 丁山^{정산} 백현호



주소
광주광역시 중흥 2동 정산화실
(북구 중흥2동 805-10번지 운산수석 4층)

한국화가 정산 백현호는 오랫동안 모방과 재현으로 수묵산수화를 착실하게 그렸던 화가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대학을 나와서도 줄곧 수묵화만 그렸다. 그런 그가 기존의 전통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변하기 시작했다.

“1978년엔가 한국화를 시작했어요. 데뷔를 일찍 한 편이죠. 21살에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없어서 밖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1982년도에 첫 신입생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 들어갔어요. 비로소 체계적으로 그림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젊은시절 그는 ‘공모전에 입선만 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 막상 입선하고 보니, 뭐 아무것도 없는 평지나 다름없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쫓아갔지만, 졸업하고 나니 역시 달라진 것은 딱히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달렸다.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여전히 평지였고, 그는 쉽없이 작업을 반복해갔다.

“물론 도달하고 나면 허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제가 끊임없는 작품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초기 작품은 먹(墨)이 주를 이룬다. 먹이 번지며 자연스레 면이 채워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 그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10년 후에는 다소 변화를 주어 먹에 까슬까슬한 질감을 더하게 된다.

‘여백의 미’에서 벗어나 오히려 ‘채움’을 통해 공간을 구성해 나간다. 실사에 가깝게 꽃잎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표현한다. 점차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거칠게, 공간을 메운다. 전통수묵 기법에서 점차 색감을 가미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색감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하늘 연가’ 연작시리즈를 시작했다. 전통산수화 기법에 단순화시킨 구도로 하늘과 땅에 밝은 색을 채색한 것이다.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이를 화폭에 담았다. 붓을 세워서 일일이 힘을 주어 그리는 중필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수묵화 위에 적극적으로 색을 입혀 에너지를 토해 내듯이 강렬한 색채를 종이에 작품으로 쏟아냈다.

2007년, 기존의 강렬한 채색 기법이 다시 한 번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천지인’ 시리즈가 시작된 것이다. 바탕에 대역섯번의 색을 입히고 그위에 다시 지우고 올리기를 수백번 반복한다. 은은하고 작가만의 색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그의 화폭에서 색과 선의 경계가 사라지며 크고 작은 산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비로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자릴 잡는다. 단순화 된 화면과 중첩되는 그림



속에 선과 선이 만나며 삶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이어졌다. 그의 치열하고 내밀한 삶을 그림들은 말없이 대변해 주는 것 같다.

그작업이 “탈” 시리드다.

그는 “난 솔직히 그림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모든 예술은 반복의 노하우라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나처럼 많은 그림을 그린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오늘날 내 모습은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의 결과라고 본다” 고 이야기했다.

한 예술잡지에 그는 자신을 “40여년을 가까이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 소개했다.

과거에는 국전에서 한 두번만 상을 받아 평생을 먹고 살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 작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 부러움이 훨씬 풍긴다고, 고생한 것에 비하면 겪어 왔던 세월의 삶이 평탄치 못했기에 화가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권하지는 않는다. 굳이 하겠다면 취미로 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당부했다.

“기초는 충분히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본인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본인들 몫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어렵고 험난한 길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米壽^{미수}를 바라보는
젊은 청춘의 춤꾼”

승무 이수자
박은하 명인

여성인 줄 알았다. 단아하고 가녀린 몸매에 여성스러운 어투와 나비같이 날아다니는 손짓과 발짓이 영락없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말문을 열고 보니 광주고등학교를 나온 수재였다. 탐험대원은 모두 놀랐다. 올해 일흔아홉의 전통무용가 박은하 선생의 이야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박은하 선생의 본명은 박형봉이다. 승무, 살풀이, 검무, 입춤, 화랑무, 보림승무 등 전통 민속춤에 능하며 1989년 전주대시습 전통무용부문에서 승무로 장원을 차지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춤이 좋았다. 농악대 쫓무너를 따라 신명 나게 어깨춤을 추며 따라다녀 동네 친구들에게 계집아이라는 놀림도 받았을 법 했다.

하지만 놀 때 놀더라도 공부는 잘했다. 광주고등학교라면 당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같이 호남 최고의 수재들이 다니던 학교였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남자이지만 다분히 여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춤을 추자 반응이 굉장했다.





그러던 중 가정부인들을 모아 가르치던 무용학원을 찾았다가 그곳에 강사로 와 있던 이매방을 만나게 된다. 그와의 만남으로, 춤에 대한 열망이 더 깊어졌고 마침내 고교 졸업 후 서라벌예술대학 무용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 물론 집에다가는 사범대학을 다닌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무용을 하더라는 소문이 고향에까지 전해졌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영숙, 은방초 등을 거쳐 이매방에게서 무용을 배우게 된다. “화장을 하고 무대에 서면 똑같애.” 그의 말처럼 관에 박은 듯 이매방의 춤과 모습이 꼭 빼 닮았다.

승무는 지역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호남과 경기 승무로 나뉜다. 호남 승무의 특징은 북이 중심이다. 승무를 추며 북으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데 1, 3, 5, 7, 9고무 중 1고무에 특히 자신이 있다. 춤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밝아지며 몸을 들쭉이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선다.

“왼발이 나가면 얼굴이 오른쪽으로, 오른발이 나가면 반대로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품이 딱 나와, 덩덕덩덕~!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봐봐.”

춤을 추면서도 기본을 전통으로 시작했었기에 자연스런 동작이 몸에 밴 것이다. 50세 즈음해서 그는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춤을 취도 젊었을 때는 깊은 거시기가 없었어, 그때사 내 마음을 춤에다가 쏟아냈어.”

전통무용은 멋과 맛이 있어 춤을 출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호흡과 표정, 동작이 전통을 토대로 배웠기에 현대 젊은 세대들의 춤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박은하 선생.

“한국전통무용의 기본은 승무와 살풀이여. 우리 것을 먼저 알아야 해. 우리 춤은 잔 발로 갈 때도, 뒤로 갈 때도 뒤킴치를 먼저 써야 해. 발꿈치를 드는 춤은 서양 춤이야. 나도 인자 힘이 들어서 살풀이를 출라고 해.”

체력적인 한계 때문인지 그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승무가 아닌 살풀이로 하고 싶다한다. 맺고 풀고 속박이 없는 절제미가 자신이 있단다.

선생은 지금까지도 생활 옷은 물론이고 무대의상과 제자들의 무대복까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손수 옷을 만들고 있다. 무용의 생명과도 같은 춤 선을 위해 스스로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 한다. 스승인 이매방 선생도 스스로 바느질을 했다고 하니, 그 스승에 그 제자인 셈이다

박은하 선생은 “전통무용의 인기가 낮아 배우고자 달려드는 젊은이들이 없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가르치고 싶지만 지금 학원에 수강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며 아쉬워했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여럿 있다. 설장구의 김용철, 살풀이의 김혜진 등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승무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 전통무용이 단절될까 우려된다고. 한명숙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경기 승무가 어려워지고 있듯이 이매방 선생이 작고하면 호남 승무의 계승이 단절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이매방 선생의 직계제자인 자신이 죽으면 이매방의 제자이자 박은하의 제자인 김덕숙씨가 이매방선생의 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가에 잠깐의 이슬이 맺혔다.



「잘찍어야지」가 아니라 「무엇을」찍느냐가 중요! 사진가 오상조

사진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지역에 ‘사진’의 씨앗을 뿌리고, 기꺼이 뿌리를 내리도록 가꾼 이가 있다. 사진가 오상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호남지역에도 사진학과의 개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녔고, 그 결과로 1994년에 호남 최초로 광주대학교에 사진학과의 개설됐다. 지금 광주대학교의 사진영상학과는 전국 각지에서 사진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모여들 정도로 유명해졌다. 후학양성과 작품활동,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사진가 오상조를 그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만났다.

오상조 교수는 연구실을 찾은 탐험대원들에게 커피를 직접 내려 건넸다. 그 은은한 향에 젖어갈 즈음, 오 교수는 필름을 되감듯 사진가로서의 지나온 삶을 숨가쁘게 되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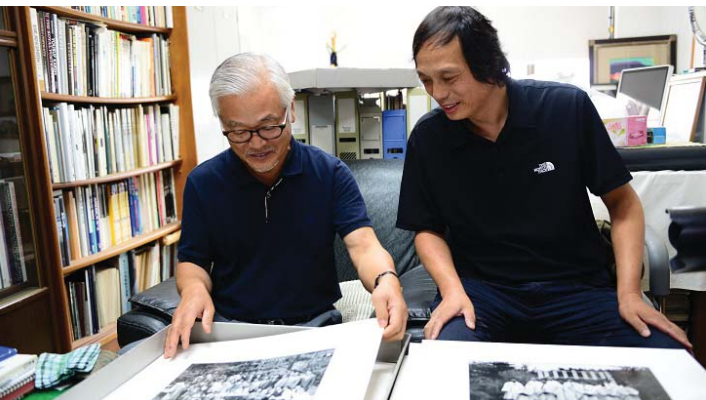
붓글씨에도 상당한 재능을 보였던 그는 사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불현듯 1973년에 서라벌대 사진학과에 응시하였다. 카메라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실기시험이라는 난관이 닥쳤지만, 필기시험을 우수하게 치른 덕에 당당하게 사진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오상조 作 / 당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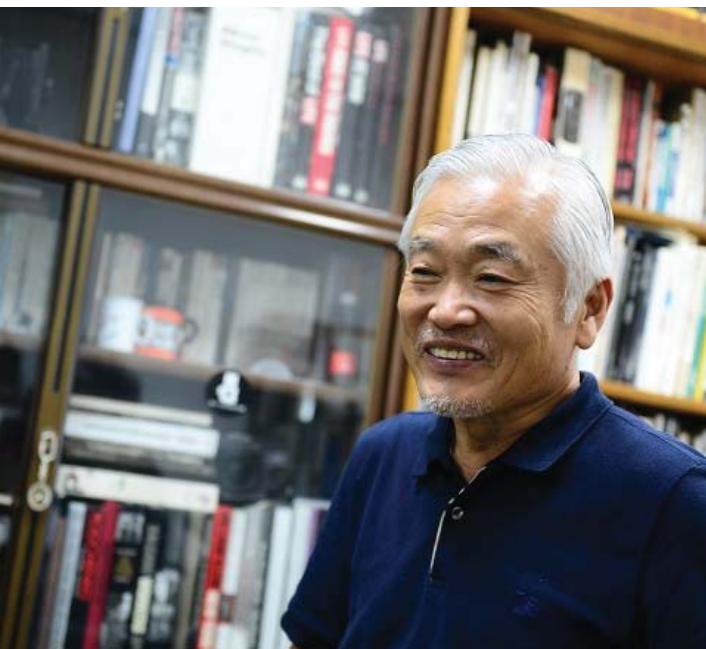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에게서 실제적인 사진 기술을 익힌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으로 오상조 교수는 그 친구에게 어려운 이론공부를 알려 줌으로써 공생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돈이며 종이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이라서 그는 사진이론서를 노트에 한글자 한글자 옮겨 적으며 공부를 하였다. 글씨체도 깔끔한데다가 전문적인 용어들도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대학시절의 그 노트를 보고 있노라니 사진에 대한 오상조 교수의 열정과 집념이 절로 느껴졌다.



다소 서툴지만 야무지게 카메라를 손에 쥔 그 때의 젊은이는 대학교수를 꿈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오상조 교수는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상조 교수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혹은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예향 광주라고 일컫는 우리 지역에 사진학파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진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5여 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광주대학교에서 사진학과 신입생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그 때의 소회를 물었다.

“기뻐요,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의 학과개설에 대한 기쁨을 약간은 투정 섞인 애정어린 말로 대신하였다.

오상조 사진가는 우리네 삶을 주로 찍는다. 어느 곳이건 사람 사는 동네는 그저 생기지 않는다. 나무가 있고 논, 밭이 있다. 시내가 있고, 산이 있고 그 곳에 우리네 삶이 깃든다. 오상조 사진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의 터를 기록하고 있다.

〈청학동 사람들 (1998, 눈빛)〉, 〈운주사(1998, 눈빛)〉, 〈동구밖 당산나무(2000, 눈빛)〉, 〈당산나무(2012, 눈빛)〉 등의 사진집을 통해 삶에 대해 기록하고, 현재를 보여주며,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세계에 호남정신을 사진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호남 만의 특색을 살려서.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꾸 발전해 나가면 본질이 훼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하여 그는 잃어버린, 잊힌, 혹은 사라질지도 모를 것을 찾아다닌다. 시간의 흐름이 작품이고, 기다림이 곧 작품이다.

두툼한 사진첩을 꺼내 보이는 오상조 사진가에게서 여유 있는 웃음이 묻어난다. 광주에 온 지 30여 년, 사진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흘렀다. 세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학의 학과장으로서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제는 삶의 패턴을 단순화하여 그동안 못한 책읽기나 붓글씨를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내비쳤다.

“사진은 ‘잘 찍어야지’가 아니라 ‘무엇을 찍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똑같은 카메라에, 똑같은 렌즈에, 똑같은 기법으로 사진을 찍다보니 똑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찍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찍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도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너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사진문화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진정한 사진에 대한 미학의 말씀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Ⅲ

02

자연





동쪽 끝지점
서쪽 끝지점
남쪽 끝지점
북쪽 끝지점

광주의 네 군데 끝지점

광주의 동, 서, 남, 북 끝 지점은 어디일까. 30년 가까이 광주에 뿌리내리고 살아오면서 한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직접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네비게이션이 발달하기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생소한 곳을 운전해 갈 때면 미리 지도에서 길을 확인하거나, 목적지를 가다 만난 이들에게 묻고 또 물어 찾아갔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이고, 주변엔 어떤 마을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생각하며 주변을 눈에 꼭꼭 담으며 살아갔다. 문명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면 그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들도 많을 터. 탐험대원들은 우리 주변, 삶의 터전으로 눈을 돌려 광주의 동, 서, 남, 북 끝 지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광주는 북동쪽으로는 담양과 맞닿아 있고 그 옆으로는 시계방향으로 화순, 나주, 함평, 장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광주의 북쪽 끝 지점은 북구 용강동 741번지로 이 부지는 들판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담양 응용리와 마주하고 있으며 근방은 병풍산과 추월산,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지구 생태습지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마침 북쪽 끝 지점의 땅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이 부부 내외는 광주 시내권에 주거하며 매일 이렇게 이곳으로 와 여러 농작물을 경작하고





(동쪽 끝지점) 광주 북구 충효동 산 20번지 우성마을



(서쪽 끝지점) 광주 광산구 양동 618번지 석암마을

있다고 소개했다. 근처 용강마을에 집 한 채 얻어 살고 싶지만 워낙 광주에서도 시골의 느낌을 간직한 곳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구하기 힘들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작하는 담배상추며 천마 잎, 불로초 등을 아낌없이따서 건넨다.

광주의 서쪽 끝 지점은 광산구 양동 618번지로 정제우씨와 심현순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마을 이름은 석암마을인데 그 이유가 땅을 파면 모두 돌이기 때문이란단다.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정제우씨 맥 한 채만 남아서 마을을 덩그러니 지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허허 벌판에 있는 집은 아니고 다만 마을 구획 상 그렇단다.

낮설고 시커먼 남정네들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이 눈에 거슬릴 법한데도 옆나산면 선박마을(예전엔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와 배들이 드나들었다 해 불린 이름) 이야기부터 석암마을에서 난 광주의 인물들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광주의 동쪽 끝지점은 북구 충효동 산 20번지이다. 충효동은 조선 정조때 김덕령 장군이 태어나 지란곳이라 하여 충효리란 마을이름이 하사됐다.

신수동 오거리에서 청풍슈터를 지나면 충민사와 충장사가 나온다. 충장사에서 산장방향인 아닌아랫길로 향해 금곡동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고 금산교를 지나면 충효동이나오는데, 이곳 마을이름이 동림마을이다. 동쪽에서 있는 숲이라 해서 '동림'이 붙었다. 동림마을 바로 옆이 우성마을로, 이곳이 광주의 가장 동쪽 끝마을이다.



(남쪽 끝지점) 광주 남구 구소동 536번지



(북쪽 끝지점) 광주 북구 용강동 741-3번지

우성마을과 동림마을 앞에는 원효계곡에서 내려오는 천이 흐르고 있다.

광주의 남쪽 끝지점은 나주시 산포면과 경계지역인 남구 구소동 536번지이다.

이곳은 구소, 도덕, 죽촌동의 옛마을이 합쳐져 구소동이라 불리게 됐다. 구소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 주민들은 벼농사, 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주변에는 승촌동과 승촌보가 있으며 나주 혁신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이다. 이곳에 모정 무학당, 일명 불로당이 있으나 지금은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과 나무의
어울림

탐험대원들은 광주 도심 곳곳에 뿌리를 내린 노거수와
마을숲을 둘러보기로 했다.





* 대지마을숲

남구 대지동 대지마을(상촌, 중촌, 하촌)은 등룡산(해발 112m)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등룡산은 일곱 봉우리가 있어 예부터 7명의 고시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 세 개의 자연부락 입구에는 광주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름드리 느티나무(느릅나무과: *Zelkova serrata Makino*)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중 하촌마을은 등룡산자락의 용머리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마을로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으로 선정할 만큼 장수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시 보호수이면서 당산나무인 느티나무(흉고: 706cm, 수령 약 450년 정도)의 위용도 대단하다. 중촌마을 입구에서 자라는 느티나무(흉고: 600cm, 수령 약 400년 정도)도 광주시 보호수이다. 상촌 마을 입구에는 세그루의 이름드리 느티나무와 한그루의 팽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동량지재(棟梁之材)’란 말처럼 아이들이 당산나무의 기운을 받고 자라서인지 마을에 인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한다. 하촌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남다르다.



* 명곡마을숲

광산구 본량동에는 나주 오씨 집성촌인 명곡(明谷)마을이 있다. 멀리서 보면 드문드문 색깔조각이 보일 뿐, 그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앞을 지키고 있는 길푸른 소나무숲 때문이다. 긴 소나무숲 ‘띠’ 가 보이는 명곡마을.

“동네를 가려놔야 좋다고 조상들이 마을 입구에 심었다고 그래. 언젠가는 동네 흰하라고 나무 몇 그루를 베었는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또 그 옆 팽나무가 비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상하면 동네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마을 어르신의 이야기이다. 명곡마을숲은 수구막이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명곡마을의 자랑인 팽나무가 우람한 풍채를 자랑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의 노력으로 2010-12 라는 표식을 달고 지금은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명곡마을숲 입구에 있는 버드나무 (흉고:390cm, 수고:20cm). 시지정 보호수와 맞은편의 거대한 팽나무(흉고400cm) 역시 지난해 태풍 불라벤 피해를 입어 뿌리째 뽑혀 고사했다.



* 복룡마을숲

도심의 변두리에 자리한 도시 마을숲인 복룡마을숲의 수종은 팽나무 10그루, 왕버들 7그루, 버드나무 1그루, 상수리나무 2그루, 아카시나무 1그루, 소나무 2그루(고사:인위적 고사)등 다양하다. 23그루의 생육 환경은 비교적 좋은편으로, 도시 마을숲은 사회 전체의 복리와 개인의 생산성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준다.

이름드리 거목들이 자라는 숲은 거대한 산소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자원 보존기능과 소음방지 역할도 한다.

이 숲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꾸준한 운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한 질병의 치유와 예방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알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의 숲은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든다.



* 임정마을숲

임정마을 사람들이 마을바깥으로 출타를 할 때면 “숲밖에 간다”는 표현을 했을 것 같다. 남구에 마을숲의 원형이 지금도 온전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임정마을은 마을숲에 마을지킴이인 벽수를 만들어 세우고 정성들여 제사도 모시고 있다. 임정마을 벽수제는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다.

임암동 임정마을은 400여년전 청주 한씨가 터를 잡은 데서 유래됐다. 천안전씨, 광산김씨, 함평이씨, 밀양박씨, 나주정씨, 진주강씨, 청송심씨, 동래정씨등이 살면서 마을의 무사안녕을 빌기위해 두기의 벽수를 세웠는데 마을앞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마을에서 포충사 방향으로 우측에 할아버지 벽수가, 좌측에 할머니 벽수가 세워져 있고, 영감벽수가 서있는 곳은 마을의 남쪽에 해당된다. 영감벽수의 크기는 높이 약 3m 정도로 전면에 '天下大將軍'이란 양각된 글씨가 있고, 재질은 소나무를 이용했다. 특이하게도 나무의 뿌리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거꾸로 만든 '병두난발형'이다.

위로만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뿌리쪽의 목질부가 빨리 썩는 성질이 있기에 벽수가 빨리 썩지않고, 오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

「광주사람들의 생명수였던 시암 이야기 광주의 우물

물은 모든 생명체와 연결고리로 얹여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근본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물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고대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도시국가를 이뤄갔다. 물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이웃 부족 간, 또는 나라 간 분쟁과 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샘이라 칭하는 우물(井)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고, 시(市)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시정(市井)’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가(人家)가 모인 거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탐험대원들은 광주의 우물에 대해 탐험하기로 했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진 곳, 다행히 그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곳 등 광주 구석구석을 샅샅이 더듬었다.

무등산은 두 줄기의 산지락을 뺀 광주 시가를 감싸 안고 있다. 한줄기는 원효사쪽에서 지산동 뒤쪽의 피재를 돌아 장원봉 중군봉으로 이어지는 줄기로, 문흥동, 오치로 이어지며, 또 하나는 중심사에서 바람재를 거쳐 조선대학교 병원 뒤쪽을 거쳐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어지는 줄기로서, 치마봉, 금당산, 짚봉산으로 또 하나, 양림동, 사직공원, 성거산, 수박등으로 이어지는 줄기이다. 이런 크고 작은 소담한 산들이 마을들을 감싸 안고 있어 유독 광주엔 물 맛좋은 샘들이 많았다.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에는 술한 샘들이 있었다, 1970~80년대 등산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건샘(우기철에만 생기는 샘)을 비롯해 곳곳에 샘들이 있어서 물을 마시며 산행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등산인구가 늘면서 산이 오염되고, 샘들이 말라가고 있다.

샘은 자연샘터와 인공 샘터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샘은 늦재 샘, 꼬막재 샘, 너털경 샘, 평두메 샘, 중머리 샘, 석간수 샘, 봉황대 샘, 덕산 샘, 동화사 샘, 규봉암 샘, 석불암 샘 등이 있다. 인공 샘은 옛 증심사 관리사무소 샘, 청풍취터 샘, 충장사 샘, 산장광장 샘, 등이 있고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규봉암 등 사찰에도 샘이 있다. 그 외 수질 오염 또는 고갈로 인해 많은 샘들이 폐쇄돼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사라진 곳도 있어 안타깝다.

* 작두샘

금남로3가 옛 중앙교회 앞 느티나무 옆에 '작두샘'이 있었다고 한다. 이 샘은 손으로 '뽀뽀(뽀뽀)'를 작동시켜 물을 길어 올렸다. 그것이 마치 작두질을 하는 것 같다 해서 '작두샘'이란 이름이 붙었다. 훗날 그 앞에 있던 술집 이름이 '뽀뽀집'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지금은 추어탕집으로 알려져있다.

* 풍향동 샘골

순환도로 필문로의 조선대학교 옆에 '도내기 시장'이란 안내표지판이 걸려있다.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도내기'란 샘과 연관된 말로 '돌 틈에 솟는 샘'을 가리킨다. 영산의 지락에 있다 보니, 동네에 샘이 많았다. 서당 옆에 있다 해서 '서당시암', 수량이 풍부한 '쌍시암', '수령시암', '참시암' 곳곳에 있는 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지금은 이 일대에 도로가 생기고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 그 어디에도 시암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산수동 고갯길을 넘어 경호대(계림초등학교 뒷산)와 꼬두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은 풍향동과 경양방죽의 늪지대 마냥 드넓은 들판을 만들어 낸다. 두암동 등이 생겨나기 전에는 한가한 야트막한 산동네였다. 물이 풍부했던 동네가 상수도가 보급되고,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우후죽순 세워지면서 자연스레 수맥이 끊겨 아랫마을의 샘들이 하나, 둘씩 말라 버렸다. 지금은 샘의 흔적조차 찾아볼 길 없이 매워졌고 단지 동네 어른들의 추억에서만 샘을 더듬을 수 있다. 샘이 있던 터에 60여년은 지난 듯한 대추나무가 있는데, 어느 곳 하나 마른 가지 없이 싱싱함을 내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물이 풍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풍향동의 샘골이었다.



* 큰샘과 쪽쪽골

북구 중흥동 일부와 동신고, 옛 광주상고 자리인 금호타운 아파트 일대는 옛 경양역(景陽驛) 자리였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마을로 광주의 읍성보다 더 컸다고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비치는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을 지닌 곳으로, 아트막한 야산에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와우산을 중심으로 큰샘골, 간땃골, 신악골 등 9동네가 있었다고 한다. 소의 허리부분과 엉덩이 부분처럼 너부죽죽한 언덕배기에 꽤 평평집한 밭들이 경작되고 있다. 말바우시장이 있는 건너편과 동신중·고등학교 앞, 그리고 효동초등학교 뒤편이 모두가 평평집한 뜨락이었다. 쉬엄쉬엄 발길로 언덕배기에 올라본다. 와우산 아래 마을은 큰 샘이 있는 큰샘골이 중심이 돼 형성됐다. 큰샘은 어떠한 자연재해와 돌림병에도 마을을 지켜주는 약수(藥水)물과 가뭄에도 마을 앞의 논에 물을 댈 만큼 풍부한 수량을 지닌 마을의 젖줄로 통했던 샘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매년 백중이면 우물을 청소하고, 제를 지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큰 샘의 역할을 잃고 말았지만, 그래도 허드레 물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 후반에 폐쇄됐다.

와우산에 오르면 무등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코앞에는 광주역이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전남대 캠퍼스와 우산동의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심 속 자연전망대인 샘이다. 이런 아트막한 양지바른 동산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열기설기 엮어진 채로 정겹게 살아가고 있다. 중흥3동 8거리 큰 샘 골목은 사방팔방으로 길이 엉켜있는 곳이다. 2030년 전만 해도 이 좁디좁은 골목에 물동이의 물지게를 지고 서로 엉키지 않고, 요즘처럼 교통신호등이 없이도 곧잘 물 지게질 하면서 골목의 500여 가구들이 쉼쉼 다녔다. 이 일대의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샘이었으나,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동네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샘에 대해서 물었더니 “징하게 좁디좁은 골목이 많아서 쪽쪽골이라 불렀어. 그래서 그냥 쪽쪽골 큰 시암 이라고 했제 잉” 이라고 답하신다. 재미있는 이름을 지닌 ‘쪽쪽골 큰 시암’. 지금은 그 큰 시암에 대한 고마움과 우물이 지닌 가치를 깨닫고 중흥동에서는 2012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샘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 입구를 아크릴판으로 덮어놓았지만, 자세히 밑을 들여다보면 샘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깊이가 아득해 그 아찔함에 절로 뒷발걸음질 쳐진다. 지금 우물은 굳게 자물쇠로 닫혀 있지만, 이 마을에는 아직도 큰 샘의 흔적이 남아 우물에서 이름을 딴 '큰샘이발관', '큰샘마탕'가 운영되고 있다. 중흥동은 '중흥골 옛 숨결을 잇는 큰 샘 보존' 사업을 실시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운암역 우물

경전선의 노선이 광주송정·서광주·남평·화순으로 바뀌기 전, 1940년대에는 송정리역 극락역과 광주역 사이에 운암역(雲岩驛)(전남 광산군 극락면 운암리)이 있었다. 그 후 1955년 운암리와 동림리가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북광주역으로 바뀌었다. 분명 60년대 초반까지 북광주역(北光州驛) 역사(驛舍)건물이 존재해 맑고 물맛이 일품이었던 우물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열차에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열차의 냉방 장치라곤 객차 천장에서 뱅뱅 돌면서 뜨거운 바람을 품어대는 선풍기가 고작이었던 때, 그것도 그나마 고급 열차의 객실에만 있었고, 일반 서민이 타고 다니던 완행 열차는 그것마저도 없었다. 그래서 냉방장치라곤 창문이 고작이었던 시절에 북광주역의 샘물은 열차를 타고 여행 중인 승객도 열차가 멈추면

뛰어와서 마시고 가곤 했으며, 근처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간간이 찾아와 목을 축였던 샘이었다.

한때는 승객이 타고 내리기도 했고, 화물도 보내고 받고 했던 역. 도시발전예 밀려 철도변 잡석을 실어 나르는 채석장 역으로 퇴락해, 한동안 우리 기억 속에 멀어 지더니, 열차가 섰던 곳마저 동네 토박이들조차 언제 역이 사라졌는지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기억 속에서 밀려났다. 더군다나 운암역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으나, 지금은 그 어느곳에서도 흔적을 찾기 힘들고, 또 안내문도 없이 조용히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다.

* 양동큰샘

남구 월산동과 서구 양동 사이의 구성로길에 옛 광주농협 청과물공판장 옆에 작은 골목길이 있다. 최근들에 소방도로 확장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골목이 확장되면서 양동시장과 함께 사랑받던 양동의 큰 샘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큰 샘은 시장상인들 그리고 양동, 덕림마을, 돌고개 자락의 산동네 사람들과 광주천 건너 누문동 사람들에게까지 식수로 각광을 받았던 인기 좋은 샘이었다. 샘의 원류는 광주문화방송이 있는 덕림산에서 돌고개와 광주천 복개상가 밑의 유왕바위로 이어지는 큰 암반의 맥, 암반수(巖盤水)라고 동네 어른들은 이야기 한다.

암반수는 그리 깊지 않으며, 물맛이 온순하며, 양동시장의 주막이나, 식당에 물지게로 배달해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도 있었다. 양동시장 피난민촌의 골목길은 겨우 사람하나 다닐 정도로 좁았는데, 이 좁디 좁은 길을 경유해야 식당가나 주막으로 발빠르게 갈 수 있었다. 좁다란 길을 가재걸음으로 물지게를 지고 옆으로 걷는 모습은 묘기 대행진 감이었다. 이런 양질의 샘터가 십여 년 전 동네에 목욕탕이 생기면서 수량이 급속하게 줄어서 결국은 폐쇄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과거에는 음력정월 첫 용날(辰日)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큰 샘의 용왕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정결한 집을 골라 당주로 뽕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삿날이 되면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 우물 앞에 정성들여 만든 제물을 진설했다. 재관이 술잔을 올리고 우물주변에 술잔을 뿌린 뒤, 축문을 읽고 마을의 공동소지를 올린 후 마을 사람들 개인에 따라 소지를 올렸다. 농악이 울려 퍼지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은 우물주변과 동네를 돌았다. 이런 풍속과 샘터가 사라진 것이 무척 아쉽다.

* 양동통샘

양동의 통샘 거리는 양동초등학교 골목에 있다, 양동시장 건너편 산동네가 펼쳐지는 호홉이 흐트러지는 가파른 길, 덕지덕지 판자를 붙여 수리 해 놓은 낮은 집들, 양팔을 미쳐 다 뻗기도 전에 담에 닿는 손끝, 그렇게 좁은 골목길에 야채를 심어 놓은 통이 반쯤은 점령했다. 어른의 눈에 비친 골목길은 삶의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현장처럼 보인다. 동네의 가운데에 있는 통샘을 찾아 골목길을 걸으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큰 샘 거리가 요즘말로 상업지역에 있었다면, 통 샘은 주거지역에 있었다. 이곳의 샘은 원형 샘으로 제봉산지락 아랫골 들판초입에 있어 샘이 아주 깊었다고 한다. 수량은 그리 풍족하지 않아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말랐으며, 물이 마를 적마다, 큰 샘으로 물지게와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고 마을주민들은 회고했다. 그리고 동네 아래 열두 마지기 길이라 불릴 정도의 꽤 넓은 들판을 지닌 농촌마을이 있었는데 아마도 일부 농토는 광주천의 둔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곳 마을 주민들도 70년대 중반까지 통 샘물을 먹다, 상수도 보급으로 샘터 인근에 공동수도가 생겨 통 샘물은 허드레 물로 이용했다. 그러다 샘터의 일부가 사유지여서 집이 들어서면서 통샘 거리에는 벽화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이용한 미술품들이 설치됐다. 2006년 '통샘마을, 소망의 빛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들과 마을이 만난 것이다. 샘은 사라졌지만 통샘 골목에 있는 용품들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골목이 재탄생했다. 가끔은 삶이 지루해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억 저편에 존재하는 상상들을 끄집어내며 통샘 거리를 걸어도 좋을 일이다.

* 꽃바심샘

광주에는 꽃바심 샘이 있다. '꽃바심'이라는 이름이 아름답다. 그 뜻이 궁금하다. 일제강점기에 광주천에 직강화사업이 시작되면서 꽃바심도 광주천 직강화에 함께 묻히고 만다.

그 시절 광주천은 여러 번 유로가 바뀌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동안에도 두 번 크게 용틀임 한다. 첫 번째는 사직공원 양파정 아래였고, 두 번째는 광주공원 어린이헌장기념비가 있는 언덕 밑이었다. 이렇게 강물이 용틀임하는 곳엔 어김없이 벼랑이 생겼고 그 아래는 수심이 깊어지는 소(沼)가 생겨났다.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으며, 한여름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제격이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이름이 붙었다. 양파정 아래는 '윗꽃바심', 광주공원 아래쪽은 '아랫꽃바심'이라 했다. '꽃바심'이 무슨 뜻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때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이란 의미로 새긴 사람들이 있었다. 20세기 초엽 잠깐 동안이지만 아랫꽃바심의 건너편, 지금의 동구 수기동 쪽의 일부를 화원정(花園町)이라 부른 적이 있었다. 꽃바심을 꽃밭(花園)과 연결 지어 생각한 흔적이다.

그러나 꽃바심은 강심으로 불쑥 튀어나온 돌출부를 가리키는 말, 콧(串)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위, 아래의 꽃바심 모두 광주천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다. 강물이 정면에서 맞받아치는 곳이라 수량이 많고 수심이 깊었다. 광주천이 조금만 더 큰 하천이었더라면 나룻가가 났을 법한 그런 곳이었다. 또 하나 광주 토박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예전에 '양파정' 정자아래 벼랑으로 상류에서 밀려온 광주천이 부딪쳐 돌아나갔다. 그 모양이 마치 곡식 낱알이 터져 나가는 것과 같으며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여 '꽃바심'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꽃바심 샘은 그 모습을 쉽게 우리들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 그 신비한 이름처럼 꾀꾀 숨어있다. 깊숙하게 동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양림치안센터에서 천변쪽으로 50여m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편 골목에 '빛고을문화재지킴이센터'가 있다. 꽃바심 샘은 그 사무실에 들어선 후, 17m 정도의 동굴을 지난 끝자락에 있다.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에 등줄기에서 땀이 절로 흘렀지만, 동굴에 들어서니 순식간에 다른 세계에 온 것만양 시원하고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샘으로 향했다. 바닥에 유리판을 깔아놓은 듯한데, 무심코 걷다가는 그곳에 샘이 있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 그곳에 빠질 염려도 있다.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곳은 개인사유지로 한때는 주인이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음식물 창고로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대동문화재단이 이곳을 임대해 빛고을문화재지킴이센터로 운영하면서 문화탐방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꽃바심 샘을 보고 싶다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

* 사동 통샘

일제강점기, 거산에서 사직단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지맥의 혈을 자른다고 해 지금의 광주방송 앞길에 중앙로를 만들어 사직단으로 가는 혈맥을 싹둑 해버린다. 광주향교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10m 들어가면 지름이 1m 정도인 아담한 샘이 있다. 사동의 통(桶)샘이라 불리는데 특히 이 샘은 물맛 좋기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통샘은 구룡지인 저습지로 빗물이 모여 지하수로 흐르다 솟아오르는 용소 형식의 샘이다. 지하를 지나는 동안 불순물이 여과돼 깨끗하고 맑은 물로 정수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됐다. 그 외에도 사작동에는 지리적인 잇점으로 샘이 많아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지금의 통샘 모습은 몇 번의 보수와 단장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1392년 조선 건국 이전부터 사용한 듯하다. 이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샘에 여러 개의 나무 조각을 맞추어 테를 메워 사용할 수 있게 보수했다. 1488년 향교가 근처로 이사 오면서 향교의 유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수평 현감이 샘에 석축을 쌓고 주변을 잘 정리했다. 1987년 사동 도로보수 공사 때 사동이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대통령상 새마을훈장 노력상을 받았다. 그때 받은 상금과 남구청의 후원금을 더해 2008년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새단장했다. 그때 원래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1.2m지점인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통샘에 위기가 찾아 온 때가 있었다. 당시 중앙로를 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직공원의 산지락을 타고 내려오는 물길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샘이 없어지게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중앙로를 낼 때 길 밑에 기초공사를 하며 자갈을 두껍게 깔았다. 그 위로 도로공사를 해서 물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러나 근처에 목욕탕이 들어 와 지하수를 쓰는 바람에 물이 말라버렸다. 지하수 사용을 제한한 이후에도 예전처럼 많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사동의 통샘은 물맛이 좋다. 지금도 동네 어머니들은 “물맛이 좋아서 다리 건너서 물을 먹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어. 아침에 물 뜨러 쭈욱하니 서 있기도 했었는데……”라며 옛날을 회상하면서 물맛을

그리워하곤 한다. 아침이면 물을 뜨기 위해 물동이나, 물지게를 늘어놓던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점차 사라져간다. 갈증을 풀어주던 시원한 샘물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각 가정마다 냉장고에 플라스틱 물병이 그 샘을 대신하고 있다. 샘의 모습은 통샘 벽면에 흑백사진 기록으로만 남았다. 통샘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다.

* 학동 팔거리샘과 동네유래

학동은 광주의 남동쪽 관문이면서 광주의 근대역사가 천변 좌우로 늘어서있는 공간이다. 광주천과 중심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과거엔 지금보다 몇 배 큰 강폭을 지니며 물이 풍부한 자드락밭과 둔치였다. 무등산 줄기가 학이 내려와 앉은 형상의 구룡이라 해서 학마을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학강정(鶴岡町)이라 불렸으며, 해방직후에는 '전쟁민촌(戰災民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광주읍성 외곽으로 경치가 수려한 곳은 광주 부호들의 땅으로, 이곳에선 도시의 빈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용기종기 살았다. 전통문화관의 한옥 '무송원(撫松院)'도 학동 삼거리 인근에 있었으며, 무송원은 호남권 최초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 설립을 주도한 현준호씨(1950년 작고) 조상의 제각 겸 한옥 주거공간으로 지은 전통 한옥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상촌'이라고 선전된 곳이 학동에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일본 정치꾼의 꿈수는 매한가지였나보다. 한가운데 공터를 중심으로 여덟 갈래의 길이 방사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것이 육일기(旭日旗)의 형상이다.

그 태양의 자리에 동그란 공동 우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물을 중심으로 8거리는 일본국수주의 힘을 사칭한 꿈수가 담긴 거리였다. 그들이 떠들던 이상촌은 요즘 표현으로 '감시주의자'들의 집단촌 같은 울타리 없는 감옥촌이나 다름없었다. 일제는 약 250세대의 주민들로 '갱생부락'을 구성하고, 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했다. 일제에 우호적이었던 주민들에게 '방면위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주고 다른 주민들을 감시하게 했다. 이들은 마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파악해 보고했다. 광복 후에는 빈민과 전쟁 이재민, 피난민 등이 달동네를 이루고 살았다. 팔거리 샘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폐워졌고 그곳에 쉼터인 정자, 공터가 들어섰다.

철거 전까지 팔거리는 천변과 어우러진 명소였다. 팔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마치 미로 속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동네를 지키고 있는 당산나무, 인심이 후한 막걸리집이 있어 이곳을 자주 찾곤 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발에 밀려 지금은 흔적 없는 아파트촌으로 바뀌어버렸다.

'전쟁민촌'은 백범 김구 선생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다.

1898년 이른바 '치하포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 일제에 의해 수배자가 된 백범은 담양을 거쳐 지금의 광주 북구 우산동, 해남, 보성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백범은 48년 만에

‘보은(報恩)의 여정’을 떠난다. 1946년 9월 광주를 비롯한 여수·순천, 보성·함평 등을 여행한 것이다. 그때 남도사람들은 48년 만에 돌아온 백범을 뜨겁게 환영했고, 가는 곳마다 환영회가 열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백범에게 후원금품을 내놓았다. 백범은 이 후원금품을 서민호 당시 광주시장에게 건네며 전재민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당시의 일을 백범은 '백범일지'에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곳에서 환영과 강연을 마친 후 보성을 떠나 광주까지 가는 사이에 환영은 이루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역로마다 수많은 동포들이 대기·환영하니, 어떤 날은 3,4차를 경유한 적도 있었다. 이로부터 며칠 후 광주에 도착해보니, 도처에서 동포들이 주는 각종 기념선물·해산물·육산물·금품 등을 종합한 것이 차에 가득 찼다. 광주에 전재민(戰災民)이 많다는 말을 듣고 시장을 초청해, 다소간 전재민을 돕는데 보태어 쓰라고 부탁해 주고 광주 환영회를 마쳤다.”(백범일지 중에서)

서민호 광주시장은 백범이 받은 정치후원물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들은 흔쾌히 웃돈까지 없어 건넸다.

마침내 그해 겨울, 학동 천변 지금의 백화마을 주변에 전재민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공사는 1년여 동안 계속돼 전재민들은 1947년 겨울에 입주할 수 있었다.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 딸린 남루한 집이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으며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집에서 소곤대는 귀엣말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은 전재민촌이 한 지붕아래 여섯 가구가 마치 마구간처럼 나란히 이어졌다 해서 '말집'이라 불렀다. 하지만 전재민들에겐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한 집이었으며 그것이 유래가 된 것이다.

평생 조국광복을 위해 싸워온 백범이 제 동포를 살리겠다고 만든 집이 일제의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된 공간바로 옆에 건설되었다는 것은 슬픈 역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슬픈 역설의 현상은 지금은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그 현장을 지켜본 광주천만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400년 세월을 등허리에 이고 진 소나무 당산목, 화암마을 당산나무

그동안 많은 노거수 탐험을 했지만 당산목이 소나무인 경우는 처음이다.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들이 당산으로 모셔지는 곳은 많이 봐왔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첫 손에 꼽는다는 소나무가 당산으로 모셔진 곳은 직접 본적이 없었다.

400여년 된 화암마을 소나무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로, 2007년 시보호수로 지정됐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화암마을의 소나무는 멀리서 보면 키만 뽕죽하니 솟은 모습이다. 입구쪽에 다다르니 지석묘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덮개돌처럼 보여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든다. 곁에서 바라 본 소나무는 좌우 균형이 틀어진 모습이지만 웅틀임하며 솟아 오른 몸통이 당당하다. 그리고 당제를 치른 흔적인 오색띠로 당산옷입히기를 해 놓았다.

예사롭지 않은 당산나무 옷입히기를 보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만난 문명준(69) 어르신은 해방둥이로 화암마을을 5대째 지켜온 토박이다. 탐험 활동을 하면서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예가 토박이의 구술 자료이다. 마을의 모습이 변할 때마다 현장에 있던 산증인들이기 때문이다. 찾아 온 연유를 말씀드리자 “묻고만 가면 머혀, 그걸로 끝인디” 하시면서도 꽤 오랜시간 탐험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셨다.



* 화암마을의 유래

화암 마을은 해광 송재민 선생의 아들인 화암 송타 선생의 호에서 유래했다. 화암 송타 선생은 왜군에 맞서 의병활동을 했던 분으로 왜군의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압송되던 배인에서 왜군을 격살하고 포로들을 구했으나 달아난 왜군 하나가 지원병을 데리고 오자 신문을 밝히며 훗날 자신의 소식을 부모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져 그의 용맹을 기리고자 화암이 살던 마을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1971년 당시 보호수로 지정될 때 수령 400년이라 표기됐었는데, 40년이 넘는 현재에도 400년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돼 있다며 웃으신다. 하지만 오래전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1000년이 됐다고 한다. 나무의 수령과 함께 마을의 역사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다.

화암마을에는 모두 12그루의 당산나무가 있었다. 625때 베어진 소나무를 직접 보셨는데 엄청나게 크기가 컸다 한다. 소나무를 베었던 이는 동티가 나서 곧바로 죽었으며 지금은 8그루가 남아 있다.

마을이 융성해서 200여호가 살았을 당시는 3일동안 당산제를 지냈다고 했다. 당시의 당산제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어르신 얼굴이 변화무쌍하다. 듣는 것만으로도 흥겹다. 1969년에 마을 근처에 수원지가 들어 서며 전답을 가진 이들은 자연스레 마을에 남게되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도시로 터전을 옮겨 떠났다.

현재는 토박이보다 오히려 외지인들이 많지만 65세대가 산다. 사람들이 떠나며 탄탄했던 마을의 위친계가 깨지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당산제가 끊겼다.

그 이후 5년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이현채(68, 전 동구문화원장)씨가 주관해 정월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낸다고 한다. 지비를 들여 자동차 5대 정도의 준비물이 들어 간다하니 대충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을에서는 팽과리 등만 보조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문명준 어르신은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지”라며 미안해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문명준 어르신의 기억으로, 소나무에 두번의 위기가 찾아 왔다고 한다. 1980년 5월에 소나무가 별절게 말라가서 바로 곁에 있는 묘 주인이 영양제를 투여하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살려냈다고. 이후 3년전에도 80% 정도가 고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진정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나고 보니 묘하게 나라가 시끌사끌 할 때라 저나무가 알려 줄라고 그런거 같아요.”

화암마을 당산나무가 영험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소나무를 건너다 보는 어르신의 눈빛이 애뜻하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려운 소나무의 보존을 위해 인식을 가진 많은 이들의 참여가 아쉽다며 말씀을 끝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 서는 우리에게 “당산나무 이래 유산각이 없는 곳은 우리 동네 뿐이요, 모정이나 지어 줬으면 좋겠는디”라며 크게 웃으신다.

우리가 화암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정자에 앉아 쉬고 계시는 어르신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무 이야기, 호남대 테에다 소나무

노거수로 자란 나무는 그 주변 문화와 민속, 환경의 원형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하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된다.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가도 나무는 사람보다 더 오랜 세월을 바로 그 자리에서 꺾임 않고 서 있다 보니 잘 보존된 문화와 민속에는 항상 잘 자라난 노거수가 있게 마련이고 오랜 연륜과 함께 이곳을 거처한 사람들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

탐험대는 멀리서 봐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교정안의 아름드리 테에다소나무를 찾아가봤다.

테에다소나무(소나무과: *Pinus teada Linnaeus*)는 미국 남부 루지아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등에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소나무의 한종류로 생장이 빠른 속성수이다.

상록침엽수로 높이 25m 이상을 자라고 솔잎은 3개씩 모여나며 길이는 15~23cm 정도로 일반 소나무 잎보다 길게 자라는 특징이 있다.

추위에 약하기에 남부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심고 있으며 목재는 건축, 펄프, 가구, 포장, 합판재 등에 활용된다.

1934년 심어진 2그루는 현재 광주시 보호수 10호와 11호로 지정(1974년)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나무키는 25m정도이고 흉고직경은 약361cm와 293cm에 달하는 큰 나무로 자라고 있다.



이곳은 과거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던 자리이기에 지금도 이름드리 갈참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뱃나무, 전나무, 소나무, 아카시나무 등이 많아 도심속의 생태숲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변에는 다양한 새들도 많기에 잠시 잠깐 나무아래 벤치에 앉아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새들의 구애하는 노랫소리를 들어보는 여유를 가져보길 권한다.

요즘처럼 뿌연 도심의 황사바람을 보면서 이를 정화시켜 주는 도시숲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일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면 우리들이 막연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도시숲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혜택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자라고 있는 테에다소나무를 보면서 옛부터 함 속에 소나무 잎을 넣는 이유가 소나무 잎은 두 개가 한 입자루에서 나고 아랫부분이 서로 접촉하고 그 사이에 ‘사이눈’이라는 작은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백년해로의 완전무결한 부부의 상징으로 여겨서 음양수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떠올려본다.

끝으로 테에다소나무를 안아보면서 정호승시인의 나무들의 결혼식을 읊어본다.

“내 한평생 버리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나무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낭랑하게
축시 한번 낭송해 보는 일이다.
내 한평생 끝끝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우수가 지난 나무들의 결혼식 날
물래 보름달로 떠올라
밤새도록 나무들의 첫날밤을 엿보는 일이다.
그리하여 내 죽기 전에 다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은은히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는 봄날 새벽
눈이 맑은 큰스님을 모시고
나무들과 결혼 한번 해보는 일이다.”



조선시대 자치규약 ‘향약’과 고싸움을 만나다, 남구 칠석동 부용정과 은행나무

정자에는 여러 기능이 있다. 후학들에게 강론을 하던 강학의 전당도 있고 담양의 소쇄원, 독수정, 명옥헌처럼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린 민간원림이 있다. 또한 시문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은일의 소요처, 조상이나 스승을 기리는 추모의 장소, 유생들의 집회소, 농경 휴식처, 문중 집회소, 고을의 양로정 등 그 쓰임새가 다양했다.

남구 하칠석마을 129번지에 자리한 정자 부용정(芙蓉亭 광주 문화재 자료 제13호)은 조광조의 향약보다 100년이 앞선 향약최초의 발생지이다. 문화사학자들에게 이곳 부용정은 성자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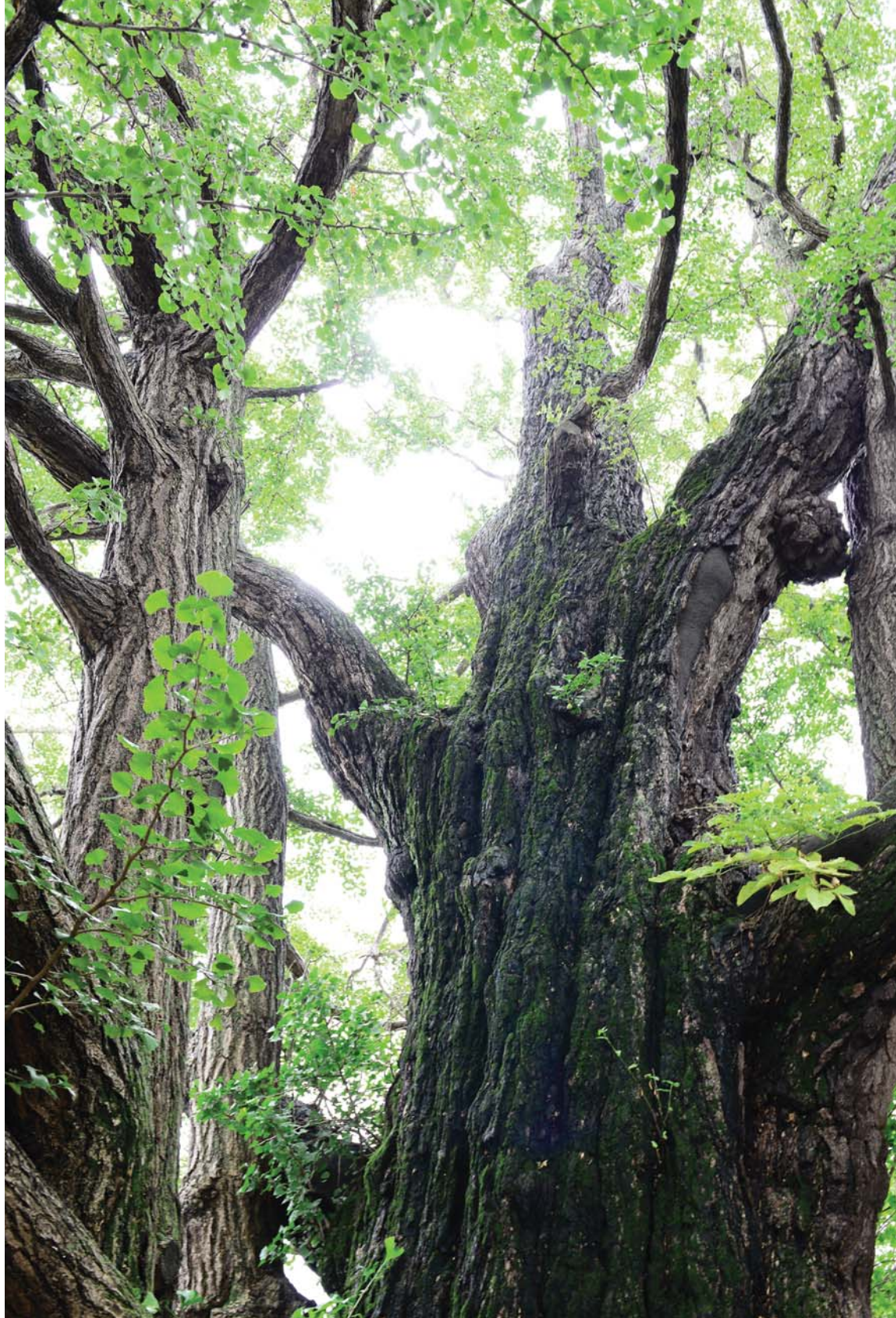
부용정이라는 이름은 정자를 건립(1416년)한 김문발(1359~1480)의 아호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연꽃을 꽃중의 군자라 칭송하던 북송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담긴 뜻을 취했다.

김문발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왜적을 물리친 공이 매우 크며 전라감사, 황해도 감찰사,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조선조의 문신이다. 그는 낙향해 여씨(呂氏)의 남전향약과 주자의 백록동 규약을 모방하여 풍속의 교화에 힘썼는데 이 정자는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향약을 시행했던 뜻깊은 장소다.

건물은 앞면, 옆면 3칸 규모이며 맞배 지붕이다. 4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고 천정은 서까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연등 천장이며 바닥은 우물 마루 형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두개의 현판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작은 현판을 분실해 새로 제작을 해서 달았는데





나중에 원판을 찾게 되어 두개를 다 곁었다한다. 윗쪽의 넓고 작은 모양의 현판이 원래의 현판으로 조선 후기의 서예가인 창암 이삼만(李三晩)의 필적이다.

정자 안에는 현판 외에도 양응정, 고경명, 이안눌, 박제형 등 후대의 이름난 선비들의 글을 새긴 편액이 걸려 있다. 당시에 이름난 학자나 선비들이 부용정을 자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제봉 고경명과 학자였던 송천 양응정의 시문과 편액을 잠시 들여다 보자.

謹次芙蓉亭韻(근차부용정운)

官裡文書綴亂絲 관청의 쌓인 문서 실처럼 얹혔는데
行春又到習家池 관내를 행춘하다 습가지 들렀도다.
非關泥酒停驂御 도중에 술 마시러 주차함아니오라
閒柳尋花故作遲 꽃향기 즐기다가 이처럼 더뎠도다.

무진년 봄에, 제봉 고경명

芙蓉亭韻(부용정의 운)

朝來雨意欲絲絲 아침에 실날같은 가는 비 내리더니,
向晚靑光蕩綠池 저녁되니 맑은 빛이 푸른 못에 넘실거리네.
佳會豈非天所借 아름다운 모임 어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
使君行色自應遲 사군의 행색 저절로 응당 더디리.

무진년 봄에, 송천 양응정



정자결에는 부용정의 내력을 쓴 부용정 석비가 있으며 건너편에는 김문발이 심었다는 수령 65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기념물제10호)가 있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환경 풍토에 잘 맞아,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칠석동 은행나무의 거대한 몸짓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다.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사람들은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인근에는 칠석마을을 가장 널리 알린 칠석마을 고싸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5호) 전수관도 있다. 부용정과 은행나무에서 600년 전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꿈틀대는 역사를 몸소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이 나무가 죽으면
가문도 쇠락한다”

남구 원산동
패고정수

문화의 모태는 숲이다. “문화 없이 숲 없고 숲 없이 문화 없다” 고 말한 오스트리아 산림학자 요셉 웨셀리의 신념처럼 노거수는 위인을 만들고, 숲은 그 마을의 문화를 키웠다. 노거수가 자라는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삶이 축적돼 형성된 문화적 상징물로 마을의 특징한 장소에 지라고 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자연의 힘에 의존하고 자연을 신으로 간주했기에 특별한 장소에 조성된 마을숲에 있는 나무들은 신과 관련돼 있다고 믿어왔다.

특히 노거수는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우주나무로 마을사람들의 신성한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이래 보호되거나 특별한 용도로 활용된 마을 문화의 원천이자 마을 문화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마당인 것이다.

포충사 정문 옆 논길 입구에 패고정수(掛敵亭樹)를 알리는 작은 안내판을 따라가 본다. 광산이씨 종가댁 입구에 자리한 원산동 만산마을엔 우람한 왕버들나무인 패고정수 한 그루가 찾아오는 이들을 반긴다.

광주시기념물 제24호이면서 수령이 약 600년 된 왕버들나무(버드나무과: *Salix glandulosa* Scem)는 30여종의 버드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자란다. 전국의 개울가, 호수가 등 유난히 물이 많은 곳을 특히 좋아해서 옛 어른신들은 왕버들나무가 있는 곳의 샘물은 그냥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마셨다고 한다.





원래 버드나무 뿌리는 무수히 많은 잔털뿌리이기에 이것들이 물속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정수작용 역할을 했기에 물이 맑은 것이다.

이 왕버들나무(흉고:717cm, 수고:17m, 그 이후 후계목으로 식재한 느티나무(흉고:166cm)는 필문 이선제(1389~1454)가 심으면서 이 나무가 죽으면 가문 또한 쇠락해 지니 관리를 잘하라는 당부의 말과 예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이선제의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를 하면 이 나무에 급제자의 이름과 복을 걸어놓고 축하잔치를 열었기에 패고정(掛敵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도 프랑카드를 내걸고 있는 이유가 과거부터 전해져 오는 관습인 듯싶다.

함평 나산에도 죽산안씨 가문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했던 동심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다.

1589년 이선제의 5대손인 이발이 기축옥사로 일컬어지는 정여립모반사건에 연루돼 심문관인 송강 정철에게 모진 고문을 받아 본인은 물론 어머니와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자 왕버들나무가 말라죽기 시작했다. 후대에 이발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게 되자 죽은지 300여년을 넘긴 왕버들나무에서 새로 잎이 나와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사는 광산이씨 후손들은 송강 정철을 이야기 할 때면 “각두기를 담그는 무를 썰때는 ‘송강송강’ 썰고, 생채를 썰때도 ‘철철철 썰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감정이 남아있어 지금도 광산이씨는 연일정씨와 혼사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

이곳과 바로 위쪽에 위치한 광산이씨 종가와 필문 이선제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부조묘 앞의 작은 연못가에도 아름드리 노거수인 왕버들나무와 오래된 산사나무(흉고:122cm)가 있다. 이는 선조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나무들이기에 광산이씨 문중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들판에 쌓아놓은 고봉밥, 도금마을 이팝나무

1980년 5월, 고3학생의 눈에도 이팝나무는 지금처럼 하얀 쌀밥을 가득 담고 있었다. 5월 항쟁기간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먹었다. 그래서 국립5·18민주묘지 가는 길의 가로수가 이팝나무이다.

도심공원이나 숲속에서 들려오는 휘파람새소리와 피꼬리 노랫소리가 좋기 만한 5월 광주시의 5대 가로수의 모수가 된 남구 대촌동 도금마을의 이팝나무가 자라는 마을숲을 찾아가 본다. 마을숲은 아름답고 느티나무(흉고:611cm, 4그루와 곰솔5그루, 그리고 보호수인 이팝나무(흉고:218cm, 수고:8m, 수령:약350년)가 조그만한 저수지 제방길에서 자라고 있다. 아마도 저수지 제방공사를 하면서 마을숲을 제방으로 이용한 것 같다.

이팝나무(물푸레나무과: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는 물푸레나무과의 잎떨어지는 큰키나무로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까지 잘 자라는 공원수, 풍치수이다.

이팝나무를 멀리서 보면 초여름에 흰 눈을 덮고 있는 풍경이다.

이팝나무는 입하쯤에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에 모내기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도금마을에서는 이팝나무 꽃이 위쪽부터 피면 모를 일찍 낸 논들이 풍년이 들고, 아래쪽부터 피면 모를 늦게 낸 논들이 풍년이 들고, 꽃들이 전체적으로 만개를 하면 모든 논들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뉴월이 되면 이팝나무에 하얀꽃이 만발해 마치 고봉밥을 담아 들판에 쌓아놓은 형상이다. 때문에 이팝나무에 꽃이 만발해 별나게 희면 그해의 벼농사는 대풍이 드는 조짐이라고 여겼다.

‘이팝나무’라는 말은 ‘이밥나무’가 변한 말인데, ‘이밥’은 쌀밥을 말한다. 지금이야 쌀밥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주식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족인 이씨들이나 양반네들이 먹는 밥이지 일반 서민은 감히 먹을 수 없는 귀한 밥이라 ‘이씨의 밥’, 즉 ‘이(李)밥’이라고 하였단다.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에는 그 귀한 이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기도 했다.

이팝나무는 5~6월에 꽃이 피 향기 많은 흰빛 꽃들이 나무 전체를 덮어 마치 초여름에 환눈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해준다. 가지와 줄기는 회갈색으로 어릴 때 수피가 벗겨진다.

5월쯤 새 가지에 꽃이 피는데 꽃은 흰색을 띠고 암수 딴 그루다. 20일간 은은한 향기가 유지되며 통부가 꽃받침보다 길다. 열매는 9-10월쯤 진한 흑색으로 익어 겨울까지 달려 있다.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쉽고 세계적인 희귀종이어서 처음 11그루의 거목이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현재는 7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남아 보호되고 있다.

순천에서 주암으로 가는 22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눈썰미 좋은 운전자들은 흰 쌀밥의 황홀경을 안겨주는 순천시 송주읍 평중리 이팝나무를 볼 수 있다. 이곳 이팝나무는 제일 키가 커서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또 400~500년 된 나무들 군락으로 이팝나무 꽃이 환상 그 자체인 평양읍 인동리 유당공원 이팝나무(천연기념물 제235호)와 곡성 입면 내동리 의마총 입구 이팝나무, 화순군 도곡 온천단지 입구 천암리 백암마을 숲정이, 화순고등학교입구, 화순읍사무소 내에서도 아름드리 이팝나무 꽃의 황홀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도금마을에 이팝나무가 만개할 때면 조용하고 아담하게 숨어있는 이 곳을 가만가만 찾아가서 이팝나무 꽃속으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빛을 청해놓고, 여인의 하얀 속치마 인양 착각하는 이팝나무 꽃의 황홀경 속으로 풍덩 빠져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김덕령』 전설이 되어
마을과 함께 숨신다!

천연기념물 충효동 왕버들

담양 가사문학관에서 무등산장 방향으로 400m 떨어진 충효마을. 1470년 김덕령 장군의 4대 조부인 문손이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하면서 충효마을은 광산 김씨의 집성촌이 됐다. 원래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성 안처럼 되어 있다고 해 '성촌', '성안', '성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그러다 조선 정조 12년(1788년)에 왕명으로 충효리라는 마을이름이 하사되면서 '충효동'이란 이름이 붙게 됐다. '충효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 일가가 살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는 '김덕령 나무타' 불리는 세 그루의 왕버들이 있다. 장군의 이름만큼이나 왕버들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한다. 멀리서 보았을 때에도 그 크기가 엄청나겠거니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크기는 둘째 치고, 줄기와 껍질에 이로새겨진 세월의 질곡에 한 번 더 놀란다.

왕버들을 만나기엔 늦봄에서 여름 사이가 제격이다. 한낮의 땀벌에도 이 곳 아래선 한 걸음 쉬어가게 한다. 때때로 왕버들 아래에서 마을 주민들은 직접 가꾼 채소를 들고 나와 팔기도 한다.

왕버들은 지난 2012년 10월 5일에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539호로 지정됐다. 왕버들 세 그루의 높이는 10여 미터 안팎이고 둘레는 8미터쯤이며 나이는 430년으로 추정된다.

오랜 역사만큼, 왕버들에 얽힌 이야기도 다양하다.

김덕령 의병장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심어졌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김덕령은 부모가 백일치성을 드린 후 무등산의 정기를 받아 잉태됐다고 한다. 백일치성을 드릴 때 늘 호랑이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태몽 역시 호랑이 꿈이었다. 출생부터 비범했으니,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나무 몇 그루쯤 심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런지 모른다.

그런가하면, 후손들 사이에서는 임진왜란 때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싸운 그가 누명을 쓰고 옥사를 당한 후 일가족이 잇따라 불행하게 숨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들이 액을 막고 김덕령 장군을 기리고자 왕버들을 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는 소나무 한 그루와 매화 한 그루, 5그루의 왕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매화와 왕버들 1그루는 말라 죽고, 또 한 그루의 왕버들과 소나무는 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 때 베어지고 말았다.

이 일대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의 유서 깊은 정자와 빼어난 풍광이 어우러져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다. 2006년에 마을 앞 광주호 상류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처가 됐다.

수변생태공원을 찾아 400년 넘게 생명을 이어온 왕버들을 만끽하며 잠깐 휴식을 갖는 건 어떨까. 단, 마을 앞 ‘충효동정려비각’에서 김덕령과 그 일가족의 충효와 절개를 기리는 것도 잊지 말자.





龍^용이 태어난 마을엔 용틀임하는 나무가 있다! 북구 생룡동 소나무

북구 생룡동에는 기이한 모습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 보호수가 있다. 용이 태어났다는 뜻의 마을 이름 덕분일까. 생룡동 소나무의 모습은 어느 소나무와 달랐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나무의 가지는 굽이굽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하늘을 향해 제멋대로 꼬부라진 가지를, 큰줄기가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자태는 마치 용틀임처럼 보였다. 다닥다닥 갈라진 나무껍질은 용의 비늘이나 다름없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거친 풍파를 이겨낸 삶의 흔적이라. 비바람이 부는 대로 곧이 맞서지 않고, 이리 휘고 저리 휘며 거센 세월을 이겨낸 지혜의 흔적이라.

생룡동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썩어가고 있었다. 둔탁한 소리가 병들었음을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소나무의 팔(가지)이 찢어져 외과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늙으면 지팡이에 의지하듯이 생룡동 소나무도 세찬비바람과 세월의 무게가 힘겨운지 많은 부목에 의지하여 서있었다. 그러나 솔잎만은 파랗고 싱싱했다. 소나무의 상징인 푸름은 그대로 유지하며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생룡동 소나무의 수령은 300여 년 정도이고, 흉고는 2미터 가량이다.

소나무 옆에는 정자가 있어 소나무를 벗 삼아 쉬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임을 짐작케 했다.

생룡동은 금성 범씨가 일가를 이루어 살고 있는 곳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아파트나 길가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샛노란 민들레 빛깔에 익숙해져서 모든 민들레는 노란색인줄만 알았는데, 이 마을 숲에는 토종 민들레인 하얀 민들레가 여기저기서 소박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골목길을 들어서니 마을에는 느티나무가 두 그루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멘트로 주변을 두르고 있어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몇백년을 버티며 사람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거대한 고목으로 버티며 그들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며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한다.

마을 골목길을 지나니 넓은 들판이 보이고 농사준비를 하는 농부가 보였다. 마을 뒤에는 야산이 있어 지형학적으로 마을의 위치가 금상첨화 인 듯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산업시대 이전 농경시대 일 때는 논밭이 많은 곳이 제일이었기에 지난날에는 껍이나 풍요로웠던 마을처럼 보였다.





힘상국은 가시에 달콤한 열매

동곡초 주엽나무

광산구 하산동 동곡초등학교 후문 옆에는 학교 개교(1932년) 전부터 터를 지켜온 나무가 있다. 20cm가 넘는 가시를 잔뜩 달고 있는 힘상국은 아름답리 주엽나무(콩과: *Gleditsia japonica* Miq)가 바로 그나무이다.

동곡초 주엽나무의 수령은 약 150년 정도(흉고:330m, 수고:13m)로 일부 지방에서는 쥐엎나무라고도 한다.

쥐엎이란 쥐엎떡(인절미를 송편처럼 빚고 팔소를 넣어 콩가루를 묻힌 떡)에서 유래된 말인데 열매가 완전히 익은 내피속에는 끈끈한 쨌같은 것이 있어서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나므로 쥐엎떡과 비유돼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또 다른 추정은 한자이름 조협목이 조협나무, 주엽나무로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엽나무의 가시와 열매는 약제로 쓰이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잎 떨어지는 큰키나무로 줄기와 가지에 예리한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짝수 우상복엽이며 소엽은 5~8쌍이고 달걀모양으로 끝부분은 둔하며 밑부분은 둥글고 가장자리에 물결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총상화서로 6월에 황록색으로 핀다.

열매는 10월에 길이 20cm, 너비 2~3cm의 비틀어진 큰 꼬투리의 열매를 맺는다.

주엽나무의 씨앗 하나의 무게가 0.2g으로 예전에는 저울추로 사용됐다. 출애굽기 30:13에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라고 했는데 1게라는 0.2g으로 쥐엄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앗 한 알의 무게이다.

그뿐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의 무게 단위가 캐럿(Carat)이고 1캐럿의 무게가 0.2g인 것은 이 씨앗이 무게 기준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남서 보기 드문 20세기 초 근대 건축물

광주 장덕동 527, 이재만 가옥

주소: 광주 광산구 장덕로 96번길 15 (장덕동 129번지)

장덕동(長德洞)은 원래 광산군 흑석면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자리와 하신리, 성덕리의 일부와 천곡면 신완리를 합쳐 하남면 장덕리가 됐다.

1988년 광산구가 신설되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장덕동이 됐으며, 1995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이 됐다. 동이름은 장자리와 성덕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일대가 '광주수원택지개발사업'이라는 신시가지 조성 사업의 장이 되면서 넓은 도로와 아파트 단지, 상가 단지 등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러한 빌딩 숲속에 마치 홀로 절개를 지키는 열녀처럼 서있는 곳이 바로 장덕동 527번지가옥이다.

편의상 '이재만가옥'이라고도 불리지만, 공식명칭은 아닌지라 가옥 앞에 세워진 안내문에도 땡주 장덕동 527가옥이라고 쓰여 있었다.

등록문화재 제146호인 이 가옥은 1920년대에 지어진 개량한옥으로 효령대군의 손자인 율원군의 후손들이 거주했다. 원래 장덕동 527번지에 위치했으나 이곳이 2004년 수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철거 위기에 놓여 2008년 현재 위치인 장덕동 129번지,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돼 보존되고 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다.







이 가옥은 20세기 초 무렵에 지어진 일종의 개량한옥으로, 전통가옥이 근대적 건축물로 변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호남지역에서 흔치않은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가옥은 본채와 대문채로 구성돼 있는데,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전면에 툇마루를 뒀으며 중앙부분에 1칸 통간의 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사랑방 공간으로 나뉜다. 우측에는 건넌방, 안방 전면으로 2칸의 부엌이 있다.

지붕은 흙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종도리 아래에 ‘세 재 저 우 집 서 구 월 이 십 일 상 량 (歲在 箸又 執徐九月二十日上梁)’이라는 상량문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1928년 지어진 건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통 한옥이 아닌 근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방 안에 또다른 방이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부엌도 아궁이가 아닌 입식의 모습이다.

현재 광주 장덕동 527번지 가옥은 광산농악 보존회 전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탐험대원이 찾아간 6월 30일, 일요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쟁과리에 능보유자인 쟁과리의 명인 정득채 선생과 여러 제자들이 연습을 위해 모여 있었다.

광주 장덕동 527번지 가옥 주변에는 을원군사당유치비, (栗元君社堂遺墟碑) 청동기 시대 송국리형 집자리(2005년 6월~2006 2월 발굴) 터, 고인돌이 함께 보존돼 있다.

투명한 발판 아래로 민무늬그릇, 돌칼 등의 유적들을 관찰할 수 있고, 가옥 뒤편에는 같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1, 2호를 옮겨 놓아 도심에서도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경명 장군의 종가집

‘광주 대표 고택’ 후손 대대로 남다른 나라사랑 고원희 가옥

위인을 만나려면 위인이 나고 자란 생가터를 둘러보라 했던가.

장성 영천리에서 부터 시작된 제봉 고경명 장군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은 신도비와 제실, 묘역 등을 거쳐 사당인 포충사까지 이어졌다. 탐험대원들은 이어 포충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경명 장군의 선조와 생가터가 있는 압촌마을을 찾게 됐다.

고경명 장군의 생가터는 사당인 포충사에서 나와 우회전 한 다음 1km정도 가면 우측으로 ‘고원희 고택’ (영어마을)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들어가면 된다. 마을입구에서 100여미터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는 고씨삼강문이다.

압촌 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고씨삼강문은 고경명 장군과 그 가족의 충과 효, 그리고 열을 기리기 위한 정려문이다. 고경명장군의 선조들이 묻혀있고 고경명 장군의 생가터와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종택 바로 앞에 있다.

고씨 삼강문에는 고경명 장군(1忠)과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장남 종후, 금산전투에서 부친과 같이 순절한 차남 인후, 효자인 손자 선교량 고부금(3孝)이며, 정유재란 때 왜적에 항거하다 순절한 둘째 딸(영광유생 노상룡의 처)와 조카며느리 광산정씨(고거후의 처)(2烈), 진주성 전투에서 장남 종후와 같이 순절한 동생 경형(1節義) 등 7명의 정려가 담겨있다.



현존건물은 1844년 세워졌으며 사방에 홍살문이 설치돼 있고, 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다.

이곳 남구 압촌마을은 고경명의 선조인 장흥고씨 7세손 자검공(고경명의 증조부)부터 살던 곳으로 장흥고씨 집성촌이며 고경명의 생가터가 있는 곳이다.

압촌마을은 고경명 장군의 증조부부터 고경명을 거쳐 지금 종손인 고원희까지 가문의 영광이 서려 있다.

고경명 장군의 생가터에 100년전 새로 지은 ‘고원희종택’은 1987년 광주시 문화재 자료 제호로 지정됐으며 이상우 가옥, 최승효 가옥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고택 중 하나이다.

고경명 생가앞의 산딸나무의 하얀 꽃잎이 장군과 장군의 후손들의 구국충정을 닮은 것 같아 눈길에 갔다.

온 가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 재산을 처분하여 의병을 모은 고경명 장군과 그의 후손들의 나라사랑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명문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장군의 큰아들 종후의 장남 고부립은 정유재란 때 의병장이 됐고, 둘째 아들 인후의 둘째 고부친도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했으며 정묘호란때는 피난가는 동궁을 호종하기도 했다. 고경명 장군의 13세 후손이자 둘째아들 인후의 사손(祀孫·제사를 받드는 후손)인 고광순도 60세에 구한말 담양 창평에서 창의해 10년간 왜적과 혈전을 벌이다 1907년 그와 함께 싸워온 고제량 등 의병 지도자들과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근처에서 왜군의 총탄을 맞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지금 이 종택은 충렬공 제봉 고경명선생의 17대 종손인 고원희씨가 소유하고 있다.

고원희씨는 종손인 백부 고영문씨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생양자로 출계했으며 어머니 기묘숙 여사가 50년이 넘도록 선조들의 제사를 사실상 봉양하며 집안을 이끌었다. 종친회에서는 매년 10월2일 장군의 묘와 제실이 있는 장성군 영천리 오동촌의 묘소에서 충렬공 제각서를 갖고 음력 10월 15일에는 압촌마을 뒷편 선산에서 충렬공과 묘제를 지낸다고 한다.

압촌마을 고원희종택에는 별도의 사당이 있어 고경명 장군과 종후, 인후 등 두 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고원희 가옥은 고경명 장군의 생가터에 고원희씨의 증조부가 1917년 건축했으며, 건축당시에는 여러 채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 사당, 대문 등이 남아있다.



현재도 고원희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살림집이다.

마당은 참 넓었다. 텃밭도 넓고 안채와 사랑채 외에도 별도의 한옥이 있어 그것의 용도가 궁금했다.

종택 바로 앞에는 공문화체험관도 있고 근처에는 영어마을, 평주전통문화체험관 등이 있으며 압춘제라는 호수와 산책하기 좋은 제봉산이 있다. 온 가족이 포충사부터 출발해 제봉산을 넘어 압춘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고경명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넘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흥 IC, 도동고개

광주에는 도동고개, 돌고개, 까치고개 등 여러 고개들이 있다. 그 중 '도동고개'는 광주 북쪽지역의 관문으로, 탐험대원들은 광주의 동, 서, 남, 북 끝 지점을 탐험하기 전, 이 '도동고개'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각화동 농수산물공판장과 광주교도소를 지나면 문흥 IC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도동고개'이다. 이곳은 옛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광주 동북권 사람이면 이곳 고개를 넘어야 광주에 올 수 있었다. 탐험대원들은 저마다 도동고개에 얹힌 추억들을 쏟아냈다.

“처음 광주에 올 때, 덜컹덜컹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생각나요.”

“맞아 맞아 도동고개를 통해야만 광주를 들어올 수 있었지. 옛날에는 도동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도동고개는 광주읍성 장터거리에서는 20여리쯤 되고 담양에서는 약 40여리쯤 된다. 예전에 도동고개는 제법 숲이 우거지고 험준해서 도동고개 일대의 숲에 도적떼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장꾼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래서 고개이름이 처음에는 ‘도적고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도동고개’로 변하게 됐다.





도동고개에서 옛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큰 도로에 차들이 쉼 없이 달리고 있을 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발길을 머물만한 곳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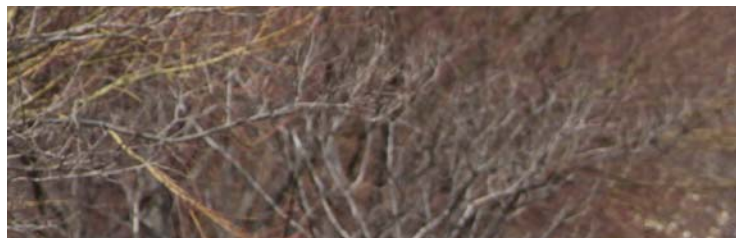
탐험대원들은 갓길에 겨우 주차를 하고 도동고개에 위치해 있는 ‘남도고서’, ‘고궁’, ‘가가당’, ‘기성당 골동품’, ‘고조선 근대사 전시장’ 등을 둘러봤다. 가게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서울 인사동 근대유물전시관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꼭 안타까웠다.

고조선 근대사 전시장 대표는 “우리 전시장에는 영화 소품을 찾는 방송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시대별 주제별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놓아 영화 소품이 될 만한 대부분을 물건들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전시장 정도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흔치 않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도동고개의 상징성을 담은 스토리를 개발하고, 인근의 고미술 관련업체를 연계한다면 이곳이 광주만의 개성을 지닌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등산 자락 32개 마을을 지나는 둘레길, 무돌길



지리산에는 ‘지리산 둘레길’이 있고, 제주도에는 ‘제주도 올레길’이 있다. 모두 지리산과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길로 광주 무등산에도 무등산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인 ‘무등산 무돌길’이 있다.

무돌 길은 무등산의 옛 이름인 ‘무돌 뫼’를 한 바퀴 도는 옛길이다. 광주와 담양, 화순에 걸쳐 있는 무등산 자락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마실 길을 1910년대 제작된 5만분의 1 조선지형도와 1872년에 제작된 광주 목(牧) 지도를 기본 자료로 전남대학교 박승필 지리학과 교수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발굴, 복구했다. 최소 100년 된 길도 있으며 멀리는 500년의 역사를 가진 길도 있다.

‘무돌길’은 증심사 지구와 원효사 지구로 편중된 무등산 등산로를 무등산 너머 담양과 화순으로 분산시키고 무등산의 자연문화가치와 조망가치를 증대하고, 무등산 자락의 자연생태, 역사유적, 인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무등산 자락 마을들의 지역 특산품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총 길이 52km 15개 구간으로 광주 북구와 담양, 화순, 광주 동구로 이어지는 4개 지방자치단체 32개 마을을 지나는 길로, 옛 선조들이 소달구지나 지게, 머리에 짐을 이고지고 장에 내다 팔기 위해 넘나들던 길로 무등산 자락 마을들 소통의 길이자 삶과 생존의 길이었다.







‘무돌길’을 걷다 보면 도시의 아파트 숲을 지나 한적한 산길을 걷기도 하고 매마울음소리 진동하는 시골 길을 걷기도 하며, 논두렁에 기어다니는 우렁이를 만나기도 한다.

때론 가파른 고갯길과 비탈진 너덜 길도 만나지만 그럴때 마다 집을 지었던 오래된 석축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 옛 선조들의 집터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을마다 있는 정자에서 다리 쉬하며 그곳 주민들과 정겨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물이 필요하면 마을 샘터에서 조달할 수 있다. 무등산을 한 바퀴 빙 돌며 평소에 보이던 무등산의 전혀 다른 뒷모습을 볼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해 찾지 못했던 무등산 자락의 오지 마을들을 2011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무등산 순환버스를 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무돌길’은 광주 북구 구간(4길), 광주 담양 구간(2길), 전남 화순 구간(5길), 광주 동구 구간(4길) 등 4개 구간 15길로 구성돼 있다. 총연장거리 52km에 해발 200m~400m 높이의 무등산 자락을 돌기에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다도는 것보다 광주 북구 구간과 광주 담양 구간은 봄, 전남 화순 구간은 늦여름에서 가을, 광주 동구 구간은 겨울 등 4계절에 나누어 걷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코스별 소개이다.

*광주북구 구간(제1길 각화중-제4길 독수정)12km 4시간

봄에 걷기 좋은 곳으로 문화동 시화마을에서 담양 남면 독수정 까지도. 봄이면 진달래, 산 벚꽃 향과 산자락에 피어난 수많은 야생화를 만날 수 있고,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충장사,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관, 무등산 수박마을, 독수정



원림까지 이어지며 광주 북구와 담양 남면의 일부를 지나는 구간으로, 각화, 신촌, 등촌, 배재, 금곡, 평촌, 동림, 우성, 반석, 연천, 산음마을 등 11개 마을을 지난다.

*전남 담양구간(제5~제6길) 8km 3시간 30분

‘무돌길’ 담양구간은 16세기 호남 사림의 중심지인 환벽당과 소쇄원을 벗어난 고려 시대 말의 독수정 원림이 있는 산음마을과 친환경 농법과 예술적인 기운이 가득 차 지역 화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정곡마을을 울창한 소나무, 편백, 대나무 숲이 우거진 함충이재가 연결한다. 또한, 1,000년 넘게 마을을 지키는 경상리 천년 느티나무와 아이가 춤을 추는 형상의 무동마을이 있으며, 무등산 자락의 담양, 화순지역 주민들이 왕래한 마실 길로 문화와 역사가 배어있는 구간이다.

산음에서 출발해 정곡, 경상, 무동마을까지 3개 마을을 지난다.

*전남 화순구간(제7~제11길) 17km 6시간 30분

화순구간은 ‘무돌길’ 구간 중 가장 긴 구간으로 5개 길로 나뉜다.

시멘트 도로와 포장도로를 걸어야 하는 다소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화순 만연산 자락의 큰 재까지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무돌길’의 진정한 의미는 무등산 자락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마실길이 모인 길로 굳이 화순 만연산 자락을 돌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며 안양산 휴양림에서 도로를 따라 수판리 1구~4구를 거쳐 ‘중지마을’로 이어지는 단축코스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동마을에서 출발해 송계, 서동, 용강, 영평, 장복, 안심, 수판, 중지마을까지 8개 마을을 지나며 곳곳에서 방목하는

흑염소를 만날 수 있다. 화순을 대표하는 흑염소탕은 바로 무돌길이 이어지는 무등산자락의 최고 먹거리다.

***광주동구 구간(제12길-제15길)15km 4시간40분**

화순이지만 이곳부터 광주 동구 용연마을까지는 동구 구간이다.

본격적으로 무등산 쪽으로 붙어 산행을 겸한 트레킹을 하는 구간으로 무등산 장불재 중계탑이 보이고 방목하는 흑염소를 볼 수 있으며 무등산 원시림을 만나는 구간이다.

중지마을에서 시작하여 용연, 선교동, 지원동, 소태동, 학동, 서석동, 동명동, 산수동, 풍향동, 중흥동 등 10개 마을을 지난다.

무돌길 전 구간을 걷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단점들은 무돌길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것들이다.

무돌길 코스를 알리는 리본은 길이 뻗히 보이는 곳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 보다는, 전봇대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려있어야 한다. 특히 리본을 달기가 어려운 곳에는 바닥에 화살표를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갈림길에서는 리본과 바닥 화살표가 때때로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 여름철 녹음이 우거졌을 때나, 겨울철 눈이 많이 쌓일 때에는 이정표가 가장 확실한 구분 표시가 될 것이다.

특히 무돌길이 지나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돌길의 중요성과 역사성, 발전성에 대해 지역민들이 잘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돌길 쉽터로 마을마다 있는 정자와 회관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무돌길을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근처에 있는 펜션보다 여름철 마을 정자나 겨울철



마을회관은 더없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 좋은 곳이다. 때에 따라서는 마을이장이 정한 집에서 민박하도록 권장해 보자.

그렇게 차츰 민박이 활성화 된다면 마을마다 새로운 관광 사업으로 농가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무돌길이란 무등산 자락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마실길로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함에도 돌아가는 길이 너무 많고, 논두렁을 건너는 길도 있어 겨울철이야 상관없겠지만, 여름철에는 쿡을 밟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인양저수지를 나와 인양휴양림을 통과하여 큰 재로 가는 도로는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또한, 큰 재에서 중지마을까지 가는 길도 도로를 따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수만리 1구에서 2구, 3구, 4구를 거쳐 중지마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 길로 단축 운영돼야 할 것이다.

무등산자락의 아름다운 마을을 놔두고 왜 화순 만연산자락의 큰 재까지 크게 우회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인양산 휴양림 구간도 사유지이다 보니 길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도 올레길처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부 사유지 구간이 개통된 것을 교훈 삼아 무등산 무돌길도 사유지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등산자락을 그저 의무적으로 도는 것 보다 마을마다 문화와 역사를 알게 하는 다양한 홍보물을 마을 정자마다 배치하고 실제로 마을에서 숙박하며 몸소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을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무돌길은 지리산둘레길이나 제주도 올레길처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리산둘레길에 없는 접근의 편의성이 있고, 제주도 올레길에 없는 마을마다 정지와 노거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땀 무돌길,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고 크다. 무돌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낄 것이다. 신령스러운 무등산의 기를 한 바퀴 빙 돌면서 마음껏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쪽같은 선비,
자연에서 응어리진
마음을 풀다!

광주·전남 8대 정자, 호가정



나주 방향으로 가다보면 동곡이 끝나는 왼쪽에 ‘호가정’이라는 문화재 안내판이 걸려있다. 이 안내판을 따라 호기심에 이곳을 찾았던 때가 6년 전의 일이다. 그 뒤 호가정은 심신이 지칠 때 이따금씩 아이들과 찾는 휴식처가 됐다.

이정표대로 고샅길을 따라가면 영산강 둑이 보이며 길이 맞닿는다. 우측으로 고개를 들면 호가정이 보인다.

대중교통(시내버스 송정96, 송정99, 송정196)을 이용해 호가정을 만날 수도 있다. 다만, 배차 간격이 크고 또 승강장에 하차한 후에도 한참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터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사방이 휼렀지만 지금은 수풀에 둘러싸여 있어 호가정의 형체를 단박에 알아차릴 수는 없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비로소 처마 끝이 풀빛에 살짝 비치는 것이 이곳이 호가정임을 알 수 있었다.

도로를 따라 찾아 들어오면 이곳이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쉽게 맞닿을 수 있는 곳이다. 노평산 기슭에 위치하여 앞에는 극락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450여년 전, 당대의 명현들이 유유자적하게 배를 타고 이곳에 자주 모여 교류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호가정은 명종 13년(1558)에 담양 환벽당 주인 김성원의 장인이며 문신으로 유명했던 설강 유사(柳腔 · 1502~1571) 선생이 만년에 지은 정자다.

조선 중·명종 대의 인물인 유사는 여러 관직을 지냈으나, 만년에 다른 관료의 모함으로 벼슬에서 물러나서 낙향해 이곳에 호가정을 세웠다.

정자의 명칭인 ‘호가(浩歌)’는 흥취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크게 소리 내어 노래한다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의 소강절(邵康節)이 말한 ‘호가지의(浩歌之意)’에 담긴 뜻을 취한 것이다.

유사는 당파싸움이 치열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기묘사회로 놀재 박상, 조광조 같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현실을 비통해 했다. 또한 을사사화 때는 같은 동족인 유관, 유인숙등이 간신들의 중상모략에 의해 희생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마을로 돌아왔다. 귀향 후 시간이 흘러다시 유사를 중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사는 끝내 거절했다. 그는 이곳에서 이황, 이언적, 오겸등 당대 명사들과 교유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생을 보냈다. 당시의 참담한 심정은 그가 읊은 ‘호가정운(浩歌亭韻)’에서 느낄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건물인 호가정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소실됐으나 1871년(고종



시원한 돌베개에 술 그늘 더욱 짙고
바람은 난간을 돌아 들빛이 뚜렷하네

차가운 강물 위의 밝은 달빛 아래
눈을 실은 작은 배가 한가로이 돌아온다

아래는 구강(九江)이든 위에는 하늘인데
늙은이 할 일 없어 세속에 내맡겼네

바빴던 지난 일을 뺏 하려 생각할꼬
늦 사귀 물새가 한가로이 즐기고 있네

8) 후손들에 의해 고쳐 지어졌다. 이후에 1933년 다시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는데 서산유씨 문중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199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문화재자료 제14호로 지정됐다. 다른 정자에 비해 깨끗하고 건물 상대도 양호한 편이다.

원래 호가정 가운데에는 거실이 있었으나 다시 지을 때 이를 없애고 전부 마루로 만들었다. 막돌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마루 사면에는 손잡이 난간이 있고, 위 아래로는 열고 닫는 고리 문이 있다. 천장은 판자로 구성하여 천장의 보꼭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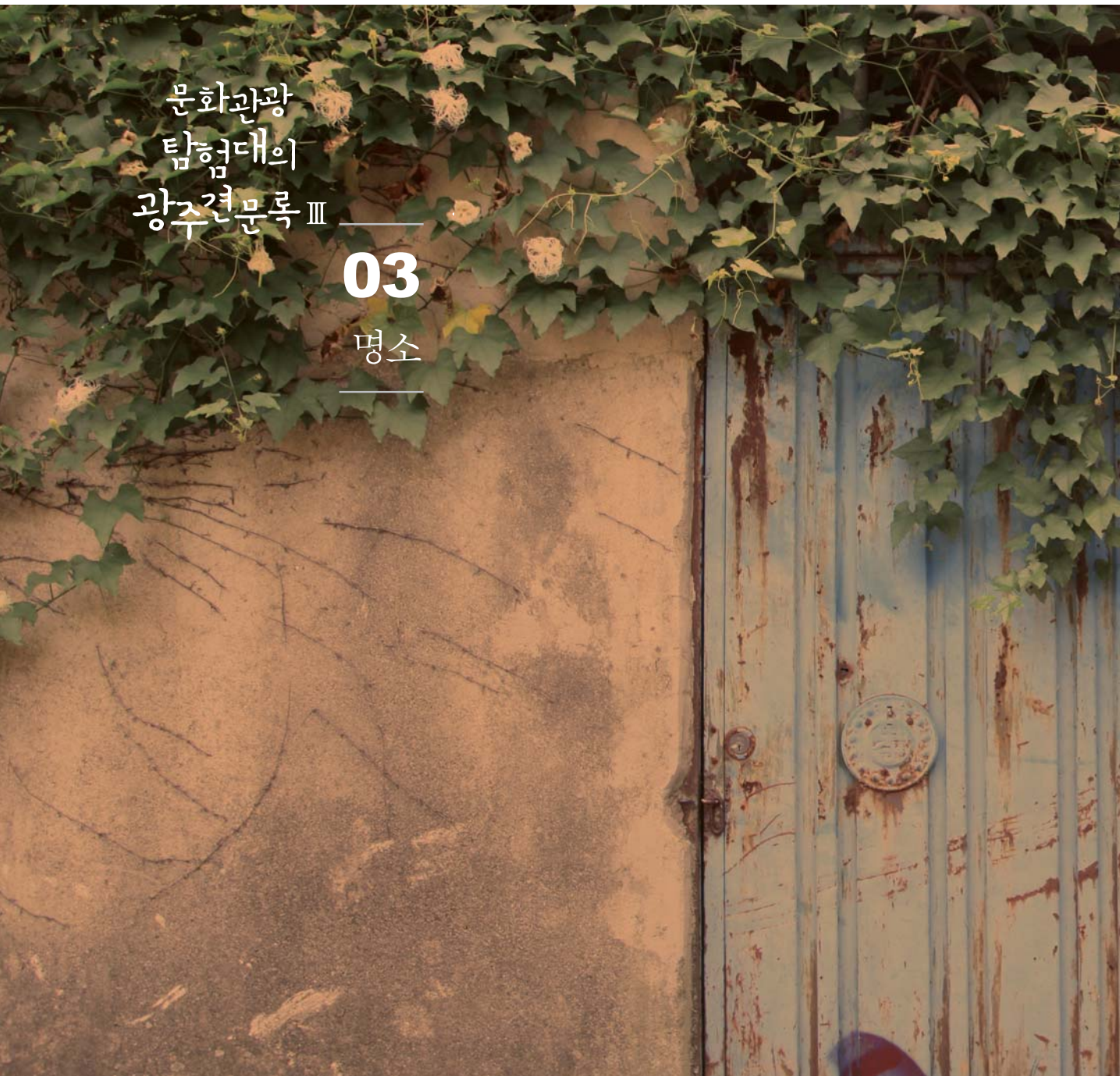
호가정 현판을 비롯해 정자 안쪽에는 유사의 ‘호가정기’, 기정진의 ‘호가정 중수기’, 이안눌·오겸·김성원의 시 등 당대 문장가들의 글이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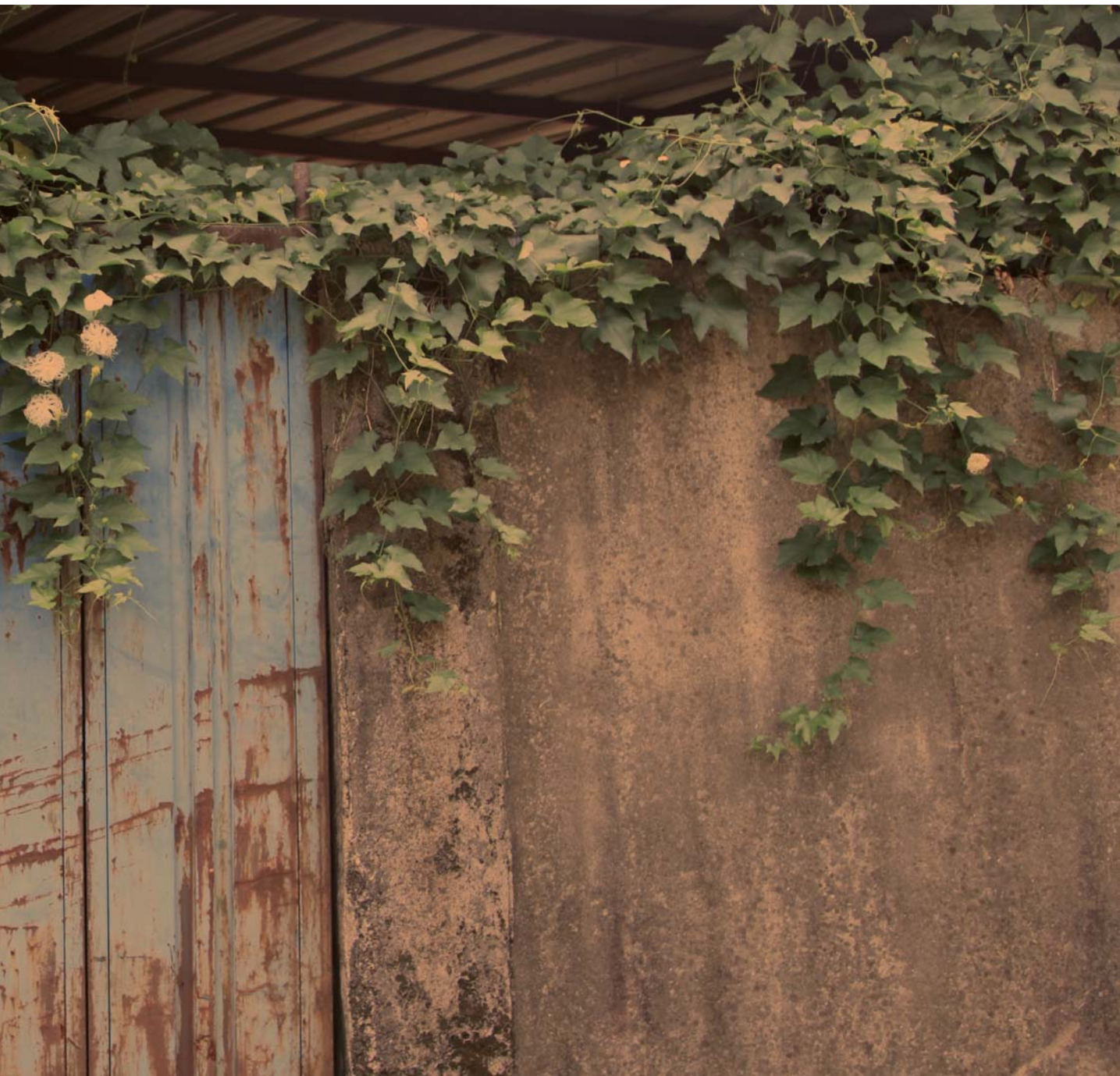
오래전 호가정을 찾았을 때에는 지금처럼 나무가 자라지 않아 사시사철 풍광이 뛰어 났다. 지금은 키 큰 나무들에 가려 무등산과 강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아쉽다. 또한 정자 뒤쪽으로 밀식해서 심어 놓은 철쭉이 바람을 가리는지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다. 무조건 나무만 심고 가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솎아내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전문록 Ⅲ

03

명소





게스트하우스
씨엠프레(siempre)

블로그
<http://blog.naver.com/casasiempre>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것이 취미예요. 편하게 밖에서 파는 커튼을 사서 걸 수도 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장식하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어서 인지 더 애착이 가더라구요. 손님들도 신기해 하며 좋아하세요. 손으로 만든 물건에서 느껴지는 아늑함과 편안함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둘째딸의 제안으로 시작한 씨애프레. 여행을 좋아하는 둘째딸은 국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접한 매력넘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험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제안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이런 인연이 필연이었을까? 때마침 2층에 전세살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준비에 들어갔다.

숙박예약은 게스트하우스 영업당당 점 홍보이사인 둘째딸이 받고 있다. ‘항상’ ‘언제나’ 라는 의미의 스페인어 ‘씨애프레’로 게스트하우스의 문패를 정한 것도 둘째딸이다.

방에는 2층 침대를 놓지 않고 1층 침대만을 놓아 최대 수용인원이 7명이다. 2층 침대를 놓아 수용인원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2층 침대를 포기했다고 한다. 씨애프레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던 여행객들이 자신들의 블로그에 입소문을 내줘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나해 말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방명록에 손님들의 발자취가 가득하다.

“세안용품과 아기가 지킨 소품들, 맛있는 차와 토스트,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신 것까지.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눈이 번쩍”.

“엄마처럼 느껴지는 주인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팽주에 대해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팽주에서 꼭 가 봐야 할 명소들과 먹어야 할 음식들을 지도를 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방명록 중에서-

이 집에서만 28년째 살고 계신 주인 어머니는 이곳 두암 1동의 터줏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오랫동안 통장을 한 경험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는 광주에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없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들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단다.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 경험하고 싶은 광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 광주를 왔으면 광주의 외관만 보지 말고 한군데라도 내부로 들어가 느끼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광주의 이곳저곳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웬만한 거리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직접 걸으며 꼼꼼히 살펴본 경험이 여행객들에게 버스노선을 안내하기도 좋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볼 수 없는 광주의 숨은 면모를 안내해 주기도 좋고요.”



주인 어머니는 현재 광주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장, 충장로, 궁전제과, 양림동 등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보며 지도로 꼼꼼히 안내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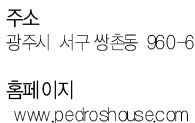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5·18 묘역입니다. 이 곳을 방문해 반드시 해설사의 도움을 요청해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대학교 1학년때 5·18을 경험했다는 주인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는 모습을 보며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한다.

모든 여행객들이 주인 어머니의 추천 명소를 다녀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광주를 천천히 경험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페드로
(Pedro's house)



178 문화관광행정학대의 광주년문록Ⅲ

Pedro's House
GWANGJU

This door will
be closed
at 12:30am
at night.
Thank you. :)

결심이 서자 그는 ‘여행’과 ‘빈티지’를 모티브로 인테리어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36개국 배낭여행 경험을 토대로, 체격이 큰 편인 서양인들에 맞게 슈퍼싱글 사이즈의 튼튼한 원목 침대를 들여놓았다. 2층 테라스에는 테이블을 놓아 바깥 공기를 쐬며 차나 술 한 잔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보니, 즐비한 양옥집 뒤로 4·19 혁명 기념탑이 우뚝 솟아 있는 풍경이 눈에 띈다.

거실 한 편에는 방문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영문판 한국 여행 책자들과 문화 소개 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타벅스 커피와 빵, 계란, 베이컨까지 컨티넨탈 조식으로 방문객에게 든든한 아침 한 끼도 제공하고 있다.

페드로 김 대표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친구인 캐나다인 스텝 조단(Jordan)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꾸려 나가고 있다.

숙박을 원하는 사람은 영국인 친구가 제작해준 홈페이지(www.pedroshouse.com)와 숙박 예약사이트인 호텔스닷컴(hostels.com)에서 예약하면 된다. 1박에 1인당 2만5천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숙박객이 머무는 동안 김 대표가 운영하는 국내여행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1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세계 36개국을 여행하면서 기분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경험이 많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느낌이 좋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 여행이 훨씬 즐겁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아직 광주에 대한 애정은 많은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알기에 광주를 마음으로 배우려는 열정도 많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은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나는 관광코스를 여행하기 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 김 대표와 함께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조단의 설명. 여기에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작고 소박한 섬들은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소박함과 일상성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이는 페드로 김.

필자는 김 대표가 바라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외국인들을 위한 전라도 여행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다. 그리고 그 여행의 즐거운 시작이 Pedro's house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양껏 퍼주는 아침밥과 깔끔하고, 정보력 빠른 숙소! 3박자

남도게스트하우스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는 숙소는 그 종류별로 제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싼 가격, 편리한 시설, 양질의 서비스 등.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숙소는 바로 '게스트하우스'이다.

'게스트하우스'는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함께 주인장에게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다. 광주는 타관광지보다 게스트하우스의 수가 현격히 적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숙박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남도게스트하우스 대표 박승식씨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해외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다 2년 전 게스트하우스 주인으로 '전환'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기초 작업으로 어느 곳에 터를 잡을까 고민하며 '여행자' 입장에서 국내를 돌아다녔다. 낯선 관광지에서 모르는 길을 물었을 때 친절히 가르쳐준 사람들이 많던 곳, 말로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어 가던 길을 제쳐두고 직접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 그것이 바로 그가 광주를 그 터전으로 결정한 이유였다.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게스트하우스의 등지도 쌍촌동에서 내방동 주택가로 옮겨졌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조용한 장점은 있지만 찾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침 유쾌하게 대화하며 아침 식사를 하던 젊은 상가폴 배낭여행객들에게 이곳의



주소
광주시 서구 내방동 839-18
나들가게 3층







매력이 무엇인지 몰았다. 먹을 것에는 장사 없다더니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가 제일 큰 매력, 해박한 지식으로 광주와 근교지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포메이션 센터 (Information Center) 같은 숙소와 사장님이 두번째 매력, 그리고 저렴하고 깔끔한 숙소가 세번째 이유란다.

“단순히, 숙박을 위한 손님이기 전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여기고 대합니다.”

박승식 대표의 말이다.

광주에 온 지 이제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승식 대표의 광주사랑은 여기저기서 뚝뚝 묻어난다. 그는 어느새 광주 관광의 길잡이가 되어 있다. 테마 별로 5·18 순례코스, 시장투어 코스, 무등산 하이킹 코스, 문화 예술 코스, 먹거리 코스, 담양·광주호 코스 등으로 나눈 박승식대표의 추천관광코스는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게다가 광주의 거의 모든 관광 브로슈어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응접실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관광 코스를 짜보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인기 있는 사장님표 개발코스는 무등산 코스로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런가하면, 2012년도 대선 이후에는 5·18 순례 코스를 찾는 한국 젊은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약한 광주에서 게스트하우스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이웃 사람들, 닫힌 문 앞에 서성거리는 외국인들이 안타까워 데리고 와 밥까지 먹여 주시던 이웃 문구점 노부부와 같은 인정 넘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광주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음 지었다.

부디, ‘남도게스트하우스’가 지금처럼 광주를 찾는 많은 여행객들의 남도 여행의 즐거운 첫걸음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죽염 묵은지가 일품인 약오리 백숙, 태원농원



주소
광주시 서구 매월동 496-20

전화
(062) 381-5293

가격
약오리백숙 4만9천원

‘여름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삼계탕’이다. 한국인의 삼계탕 사랑은 각별하다. 전복이며, 낙지 등 각종 해산물은 물론이고 농이버섯 등 채소를 더해 각각 ‘삼계탕’이라 이름 지으며 다양하게 즐기곤 한다.

그러나 최근 7년간의 종류별 육류 소비 통계표를 보면, 다름 아닌 오리고기 소비량이 약 3.5배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육류 중에서도 알칼리성이라 건강식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요리법들이 대중화되면서 오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오리 고기 요리라 하면 훈제, 로스, 오리탕 등을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요리들도 맛이 좋지만 오리 고기 자체의 맛을 담백하게 느끼고 싶다면 태원농원의 약오리백숙을 추천한다.

약초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여사장의 요리에 대한 철학은 간단하다. 몸에 좋은 재료와 약초를 인공적인 조미료를 일체 넣지 않고 조리하는 것. 해동피, 황기, 상백피, 밤, 대추, 작두콩 등을 넣고 푹 찐 오리는 뼈까지도 그 단단함을 잃어버릴 정도이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오리 고기와 직접 구워낸 죽염, 그리고 간절하면서도 개운한 묵은지가 어우러진 맛은 조미료에 익숙해진 입맛에는 심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생각나는, 진득한 맛이다.







감쪽같이 사라진 고기가 아쉽다면
뒤에 나오는 흑임자죽을 기대할만 한다.
약오리백숙 국물에 9여가지 잡곡이
들어간 흑임자죽은 겉쪽하고 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짹짹 그릇을 비우게
만든다.

배를 든든하게 했다면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전평제(매월저수지)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더운
여름 저녁에 약오리백숙을 먹고 나오면
불그스름한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한
전평제에서 한가로운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결같은 맛에 또 찾게 되는 집, 영양보쌈 칼국수

변함없는 맛으로 오랫동안 광주에서 보쌈을 파는 집이 있다. 서구 쌍촌동 모아제일이파트 정문 맞은편 골목에 있는 '영양보쌈 칼국수' 집이다.

임성순(56)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식당의 원형은 13년 전 화정동의 '대한민국바지락 칼국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이라는 상호가 그토록 어색했던 주인아주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바지락 칼국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쑥스러웠단다. 하지만 마침 2002 한일월드컵 때 이곳 광주에서 4강신화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름 덕을 톡톡히 보셨다고 한다. 그곳에서 5년을 하다가 동생에게 넘겨주고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장사가 꽤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입소문난 상호도 마다하고, 좋은 자리도 마다한 채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이곳으로 옮겨온 이유가 궁금해진다. 임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남동생이 자리를 못 잡고 방황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정착하고 살라고 그냥 동생한테 주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와서 거의 6개월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전했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찌 후회도 하고, 속도 끓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음식을 무조건 돈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주인내외의 철학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보쌈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이 보리밥이 나온다. 보리밥에 얹어 쓱쓱 비벼 먹는 토하젓은 이집만의



주소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47-6

전화
(062) 382-0750





별미이다. 토하젓은 영광읍에서 구해다 직접 만드는데 짜지 않고 특유의 해금내가 나지 않는다. 가게가 문을 열었던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래처를 바꾸지 않고 좋은 물건을 믿고 쓰게 된 덕분이라고 한다.

보통 '보쌈' 하면 넓적한 접시에 상추 위에 소복이 담긴 보쌈고기를 떠올린다. 이곳은 비주얼부터 다르다. 화로 위에 고기가 담긴 뚝배기가 얹혀 있다. 그런 독특한 상차림이 시각적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눈으로 즐기는 맛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입안에서 느끼는 맛도 좋다. 임씨는 꼭 삼겹살 부위를 이용해 보쌈고기를 삶아내는데, 경제적 손익만 따진다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보쌈김치는 시뻘건 고추양념이 양껏 버물러져 있어서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매워서 혀가 얼얼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젓가락질하기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한 번 김치를 먹다보면 이내 김치 몇 조각에도 거뜬히 고기를 보쌈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매운 고추로

양념하지 않았기 때문. 보쌈김치가 맵지 않아서 다소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고기와 보쌈김치, 토하젓, 그 어느 것 하나 특출나게 강렬하지 않아서, 이들을 한데 어울려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고 은근하게 맛이 묻어난다. 마지막 고기 한 점을 집을 때까지 고기에 온기가 남아있어서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다.

이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는 바지락칼국수이다. 칼국수의 묘미는 뛰니 뛰니 해도 졸깃한 면발에 있다. 이곳의 면은 검은 알갱이가 점점이 박혀 있고 회색빛이 돈다. 이 면발은 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사장님이 개발한 것으로 흑미와 흑임자의 비율을 맞춰 졸깃한 맛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흑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면이 뚝뚝 끊어져 면개발을 하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지금은 가게를 해 보겠다고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외지에 찾아 올 정도이니 사장님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육수는 가시오가피, 양파, 무, 대파, 다시마, 디포리 등을 넣고 2시간 정도 끓여낸다. 가시오가피는 바지락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육수의 맛을 깔끔하게 한다.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주는 바지락은 고창 심원 향에서 매일 가져다 쓰는데 조갯살의 달큰한 맛이 한결같다. 몸이 으실으실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이면 해결된다.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이 식당은 매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지금은 둘째 주 월요일만 쉰다. 쉬는 날은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곤 했는데, 보행이 힘든 노인을 모시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이 그냥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일요일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주인 내외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다. 얼마 전 이사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했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다고 한다. 다시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남원·광주 맛집 돌며 연구하여
나만의 비법 터득

양 부족하면 기꺼이 리필도! 넉넉한 인심! 운암골 식당



주소
광주시 북구 운암동 496-32번지

전화
062-523-5522

유의사항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가게 문을 닫는다.

군더더기 없이 딱 한가지 메뉴로 승부를 거는 맛집들이 있다. ‘운암골 추어탕’은 ‘추어탕의 원조’라는 남원에서도 맛을 보기위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미꾸라지는 쌀랑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맛이 든다. 탐험대는 때마침 처서에 그곳을 찾았다. 가는 길에 만난 동네 어르신들이 “그집 추어탕 참 맛나제~” 하시며 신이 나서 식당을 안내한다.

신용희(66), 오숙현(61) 부부가 운영하는 ‘운암골 추어탕’은 운암동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하루에 60그릇의 뚝배기를 내가지만, 초창기에는 겨우 서너 명의 손님만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예전에 기사식당을 운영하다가 너무 일에 치이는 것 같아 좀 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아볼 요량으로 이 추어탕 집을 차렸다. 그때가 8년 전, 가을쯤의 일. 그러나 막상 차리고 나니 장사가 너무 안됐다. ‘절이나 쇠고 그만 뒤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봄이 지나면 그만두자고 조금만 더해 보고 그만두자고 미루고 미루다보니, 손님들은 이 집의 맛을 찾아 더욱 늘게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리가 없어서, 재료가 다 떨어져서 발길을 돌리는 손님까지 생길 정도가 됐다.

기본반찬은 푸짐하다. 그냥 반찬에 공기밥 한 그릇 놓고 먹어도 될 정도이다. 밑반찬들은 주인장이 직접 시장에서 사와 만든다고 한다.





미꾸라지는 사시사철 나오는 양식을 쓴다. 매일 쓸 양 만큼만 양식장에서 배달해준다. 첫째도 둘째도 맛있는 추어탕은 미꾸라지가 좋아야 한다. 물건이 시원찮으면 바로 맛이 달라진다. 추어탕은 배달 온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천일염을 쳐서 해감하며 시작된다. 깨끗이 손질한 미꾸라지를 죽기 직전에 삶는다. 시간이 지나 죽어서 뻣뻣해진 미꾸라지를 쓰게 되면 단박에 맛이 틀려진다.

미꾸라지를 삶는 시간도 중요하다.

“미꾸라지를 삶아가꼬 하나씩 들고 일일이 살을 볼가 내는디, 너무 삶으면 뼈가 부러져 부러. 그래서 삶는 시간과 불조정이 정확해야 혀.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일을 그르쳐. 혼자서 연구를 해감서 해야댕게 속이 지글지글 했당께.”

칼칼하고 걸쭉한 국물을 한 수저 듬뿍 담아 넘기니 온 몸에 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다.
오숙현씨의 손맛도 손맛이거니와, 이 집의 추어탕 맛은 '정성' 이 한몫했다.

처음 추어탕 집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부부는 추어탕으로 유명한 남원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맛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다. 사정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 였다. 광주에서 유명하다는 광주고등학교 앞 할머니 추어탕에도 가봤지만 도저히 맛의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 봐야 내가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맛' 인 것이다. 부부는 결국 남원 추어탕과 광고 앞 할머니 추어탕 보다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스스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를 연구해 가게 문을 열었고, 이곳에서만 올해로 6년째 추어탕 집을 하고 있다.

주변의 북광주 세무서 직원들과 회사원들이 주로 이집 단골이며, 그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 지금은 하루에 4솔씩 끓인다.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러 포장도 많이 해 간다.

추어탕은 들깨, 된장을 넣고 끓이기에 오래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날 먹을 것만 아침에 끓여내고 그것이 다 떨어지면 그날 영업은 끝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어탕을 먹으러 오거나 뱀비를 들고 와서 사기는 사람이 많으면 부부의 가슴은 쿵닥쿵닥해 진다. 저녁 때 추어탕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줄 것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양이 부족할까 싶으면 추어탕을 더내어 줄 정도로 부부의 인심은 넉넉하다.

운암골은 실내가 세련되고 멋있지 않아도 편안하게 한끼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른 곳보다 싼 가격(6,000원)에 대해서 물었다. 5,000원에서 1,000원 올렸을 때도 미안해서 겨우 올렸다고. 물가가 오르니 당연하겠지만 손해는 안 보니 그럭저럭 꾸려간다고 한다. 운암골의 추어탕 한 그릇에 부부의 노곤하고도 정직한 삶이 오롯이 들어 있었다.



싱건지 맛 같은 한옥식당
정자氏!

양림동 한옥식당
(구)신용식육식당



주소 광주시 남구 양림동 137번지

전화 062)675-0053

유의사항

식당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이고,
매주 일요일은 쉼다. 좌석 규모 80~85석 정도이며
범프로젝터를 갖춘 방이 있다. 이 곳에서 회식을 하며
세미나나 회의도 할 수 있다.

양림동에서 근대역사문화의 흔적을 둘러본 후, 출출함이 느껴진다면 꼭 가볼만한 식당이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넉넉한 인심과 깊은 맛이 일품인 '한옥식당' 이다.

양림동 오거리, 좁은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면 '한옥식당' 간판이 보인다. 예전부터 이 식당의 맛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신용식당' 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식점은 한옥을 개조해 만들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콜방' 이라고 써붙인 작은 방이 바로 보이고 왼편으로는 사랑방, 건넌방, 행랑채가 보인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문간방이 있고, 가운데에는 마당이 있어 계절에 어울리는 꽃꽂이를 바라볼 수 있다. 그야말로 옛집의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곳이다.

한옥식당의 김정자 대표는 축협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처음엔 식육점을 차렸다. '고기' 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익이 나지 않고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웠다. 고민을 하던 끝에 테이블 3개를 놓고 계모임하는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힘을 보탤고, 채소는 직접 농사를 지어 비용을 줄였다. 그녀의 안목대로 질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반찬에 신경을 쓰니 손님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늘리고 놀리던 방에도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비좁았지만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고 맛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면 스텐레스 냉면기에 넉넉히 담긴 애호박국을 찾는 사람들로 주방이 항상 바빴다.

한양식당

KOREAN
RESTAURANT
신육식당

(구) 신육
식육식당
675-8886





이곳의 식사 메뉴로 가장 인기있는 것은 단연 ‘해호박찌개’이다. 한 그릇 가득한 애호박과 고기, 찰랑찰랑 넘치기 일보 직전인 국물이 김 대표의 푸진 인심을 보여준다. 한 그릇을 비우기도 전에 배가 절로 불러온다. 7천원짜리 한 끼 식사에 맞은 물론 기분까지 넉넉해지는 느낌이다.

식당의 분위기도 훈훈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식당 문을 연 이후부터 줄곧 함께 해오며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김정자 대표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님 허는 대로 허는 것 뿐이여. 이것도 한번 드셔봐. 감뻥 잊고 인자사 가꼬왔네.”
 평범하게 무와 무청을 썰어 넣고 담근 싱긴지를 김 대표가 내민다. 한입 먹으니 톡 쏘며 입안이 개운하다.
 한옥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그녀는 싱긴지 같은 존재다.
 “음식이 남으면 속상해. 그릇이 다 비면 좋고, 더 주라고 해도 좋고!”



“공사한다고 길도 다 뜯어뿌려서
힘헌디도 찾아 주시니 고마울 뿐이제.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왔는데
요새는 인터넷을 보고 많이 찾아 와,
경기도에서 관광버스로 손님들이 온
적도 있당께. 일본인들도 어찌케
알았는지 자주와.”

팔죽계^契 하다 팔죽집을 연 동해분식

광주에 ‘팔죽집’은 수도룩하지만, ‘하는 사람만 간다’는 팔죽집이 있다. 주월동 ‘동해분식’이 바로 그 집이다.

동해분식 주인 권영순씨가 이곳에서 팔죽집을 연 것은 9년 전의 일. 처음에는 위낙 팔죽을 좋아해서 근처에 사는 친구, 동네 주민들과 팔죽계를 묻고 거의 매일 팔죽먹으러 이곳 저곳 다니던 것을 시작으로, 아예 “팔죽을 직접 만들어 보자”며 집에서 살림살이를 그대로 놔두고 팔죽집을 본격 운영한 것이 2004년 3월이다.

“하루에 3만원만 남았으면”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오시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싫어 집을 새롭게 고치는 바람에 “이제 그 빚만 갚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한다.

이곳을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나중에 꼭 다른 일행을 데리고 와 딱히 간판을 크게 걸 이유도 없었다고. 가게 내부에는 신발장도 없다. 온 순서대로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그만. 거실, 방2개 통틀어 테이블은 15개이다. 위낙 방이 좁다보니 한 식탁에 2명 앉는 것도 버거울 정도이다.

테이블 위에는 설탕과 고추장이 놓여있다.

이집의 특색은 팔죽이 나오기 전에 보리밥이 나온다는 것. 그것도 덜렁 열무김치에 초고추장이 아니다. 무 채지, 상추 겉절이, 콩나물무침, 배추나물, 오이소박이, 김치 등 6가지 반찬과 고추장을 내어놓아 보리비빔밥을 해먹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주소

광주시 남구 주월동 121-3번지
(주월동 장산초등학교에서 광주-목포간 도로를 따라
삼육초사거리를 지나면 우측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

전화

062-673-2523

유의사항

테이블이 총 15개, 예약을 하고 가면 좋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







보리밥 양도,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갑나게 술찬하디’. 보리비빔밥 한 그릇이면 팔갈국수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가두둑해진다.

보리밥 보고 놀란 가슴 팔갈국수 보고 더 놀란다. 1인분 5천원짜리 팔갈국수가 3인분은 족히 되는 듯 보인다. 맛은 옛날 할머니가 끓여주신 진득한 맛, 딱 그 맛이다.

팔을 삶고 거르는 작업은 믹서를 쓰지 않고 반드시 채를 사용해서 걸러내기에 간혹 팔 껍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팔을 삶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맛을 결정하기에 직접 끓이고 채를 거른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팔죽장사 16년, 작은 그릇 1천500 원부터

5천원 지폐 한 장에 팔죽이 두 그릇 말바우시장 매일팔죽

시장에는 상인들의 식사거리, 또는 장보러 온 이들의 한끼 대용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메뉴들이 많다. 그 중 말바우 시장안에는 유독 팔죽집이 즐비하다. 옛날 팔죽, 미성팔죽, 왕수제비팔죽 등 골목마다 팔죽집으로 넘쳐난다.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탐험대원들이 말바우시장을 방문한 때는 마침 장날이었다.

탐험대원들은 시장 안 여러 팔죽집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내건 ‘매일팔죽’ 집을 찾았다. 매일팔죽은 말바우 시장내 공용주차장 바로 옆에 있다.

매일 팔죽의 식사 가격은 대 2,500원 중2,000원 소 1,500원으로 다소 저렴한 편. 싼 가격에도 이곳 주인은 국산팔만 사용한다고.

“대체 한그릇에 1천500원짜리 팔죽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1,500원짜리 팔갈국수와 2,500원짜리 팔갈국수를 주문했다.



주소
광주시 북구 우산동 186-8

전화
062-267-9381





1,500원짜리 한 그릇만 해도 한 끼는 충분히 때울 수 있을만한 양이다. 반면, 2,500원짜리는 솔직히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다. 탐험대 원들은 2천원짜리면 충분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팔칼국수 맛은 솔직히 비슷한 편. 팔 자체가 국산이니 조리를 어떻게 하든 결국하게 우러나는 맛은 광주 어딜가나 비슷할 터. 매일팔죽 대표에게 팔칼국수 가격을 1,500원으로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팔죽 한 그릇에 1,000원 하던 것을 500원 올리는 것도 미안했는데 다른곳 처럼 더 올리기가 미안하고, 또 무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란다.

그는 지금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서 팔죽장사 10년을 했고 말바우 시장으로 들어온지는 6년이 됐다. 팔죽집만 16년 해온 셈.

정직한 재료로 음식을 해 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팔죽을 내놓는 매일팔죽이 16년의 역사를 발판삼아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지 기대된다.

* '말바우'는 무슨 뜻일까

부르기에, 또 듣기에도 익숙한 '말바우'란 무슨 뜻일까?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이곳에서 말을 훈련할 때, 말이 도착하는 장소로 말이 어찌나 힘껏 바위 위로 발굽을 내디댈던지 바위가 말발굽 모양으로 움푹 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말바우'이다. 당시 말 발자국이 찍힌 바위가 있었지만, 도시개발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그 바위를 말바위라고 불렀으며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바위의 전라도 사투리인 말바우시장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리게 됐다. 동문로가 확장되기 오래전부터 말 바위 부근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전설에 의하면 지금의 통일로 약국 앞 부근에 마치 말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어린아이가 걸터앉아 말 타는 흥내를 내면서 놀았기에 그 바위를 말 바위(말바우)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그리고 주변에 차츰 시장이 형성되면서 말바우시장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리게 됐다고 한다.



푸른길의 문화 커뮤니티 카페 신시와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살면서 이따금 한계에 다다를 때 느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그 상황을 훌훌 털어버리고 쉽게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감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든 이가 있으니, 카페 신시와의 주인 박성현(51)씨다. 그는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총감독을 맡아 지내면서 생활 속에 공생할 수 있는 실험적인 것들을 늘 고민했다.

죽어 가는 시장을 살리며, 매출의 증대까지 이어지게 할 복합적인 결과가 시작과 다르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시장을 찾았지만 상업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외형적인 형식만 빌은 답답함에 그가 눈을 돌리게 된 곳이 철도 폐선부지에 만들어진 지산동 푸른길이었다.



주소
광주시 동구 지산동 675-52

지난 10여 년 동안 재개발이라는 화두가 쟁점화 돼 있던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수리를 시작했다. 힘들면 협조를 구했고 모르면 주민들의 지혜를 빌렸다. 1969년에 지어진 한옥은 시간적인 가치가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가능하면 주민들과 인식을 나누고 싶었다. 문화적인 거점이 필요했다. 그가 이곳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작가들을 유도하는 문제였다. 빈 공간에서 지역민들과 나눔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서 박씨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할 생각이다. 조용한 동네가 외지인들의 투어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예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카페 신시와의 메뉴 대부분은 전통음료이다. 메뉴판이 칠판인 것은 그냥 인테리어의 한 부분이겠거니 했지만, 카페의 안살림을 맡고있는 부인 천혜원씨는 “아직도 계속 메뉴를 개발 중이라 칠판을 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커피 빼 놓고 다 자신이 있다” “원래 직업이 없었고 부업데기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천씨는 프리랜서 전시 기획자로 활동했다. 카페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나 낡은 의자. 테이블에서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느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낡은 옷을 잘라 만들었다는 조각보, 조각이불 등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자신있다고 한다.

신시와는 카페보다는 공방 개념에 가깝다고 본다. 작가가 아닌 누구에게나 전시장으로 열려있다. 지난 7월에 열린 전시회에서 ‘일상의 쓰임에 미(美)를 더하다’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예(藝)를 엮보다’ 라는 부제가 이 공간의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먹거리가 비싼 편이라는 말에 천씨의 대답은 단호하다. 그녀는 아토피로 고생한 아이 때문에 일찍 안전한 먹거리에 눈을 뗐다. 준비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누가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라는



오히려 레시피를 많은 이들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탐험대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한 레몬에이드는 천씨가 직접 레몬으로 효소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모두 유기농 제품을 쓴다.

“주민들과 같이 작업하며 꿈꿀 수 있는 시민문화가 에너지화 된다면 소중한 기억과 시간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신시아에서 풀어 낼 숙제가 아닌가.” 박성현씨의 말이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아직은 푸른길 주변의 도시텃밭을 실험적으로 가꾸 시장을 열며, 한 달에 한번 씩 공연마켓, 아트마켓, 먹거리 조합 등을 실험적으로 권장하는 단계이다. 지역민들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폐품 활용, 공간 활용, 인간과 자연을 생각한 음식들, 카페 신시아는 주인장 부부의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만큼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공간임에 틀림없다.

카페? 스튜디오? 원칙 · 틀을 깨다 카페 나른한 오후



주소
광주시 동구 지산동 193 - 4번지

전화
062)223-1402

영업시간
오전1시 ~ 오후12시 연중무휴

블로그
<http://blog.naver.com/96124455>

카페 '나른한 오후'는 한 여성의 '인생 모자이크' 와도 같은 공간이다. 다양한 경험과 삶 속에서 묻어나온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다. 딱 잘라 카페도, 스튜디오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셈이다.

사람의 성격을 구분할 때 우리는 보통 '현실주의자' 혹은 '낙관적 이상주의자'로 구분 짓곤 한다. 카페 '나른한 오후'의 주인은 후자에 가까운 재미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인 '편린' (片鱗)처럼 아주 작은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 지금 그의 삶은 풍성한 가치와 앞을 매단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수 '린'의 7집 앨범 커버사진 촬영, 책 '생각하고 촬영하는 DSLR 활용하기' 출간, 개인전 3회, 예술의거리 프로젝트 참여 등 이력은 화려하지만, 사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소 엉뚱하다.

취미로 모이온 바비인형을 친구가 사진 찍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덜컥 2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산 것이 화근(?)이었다. 생각보다 사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본전 생각에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다. 독학에 한계를 느껴 2년 가까이 서울에 원정 다녔다. 인물 사진을 주로 찍던 그는 서울에서 사진의 배경이 될 만한 예쁘고 독특한 카페를 찾아다녔다. 비록, 지금은 광주도 멋진 곳들이 많이 생겨 서울까지 가진 않지만 당시에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이들이 찾아오면 모임 공간이 없었다. 아지트가 필요했다.





‘스튜디오’ 욕심도 났다. 동물을 좋아해 ‘마당이 넓은 집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해졌고, ‘사람 다니기 편하게 길가 집이 어떨까’ 하는 부모님과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카페지기의 뜻이 맞아떨어진 곳이 있었다. 그렇게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의 단독주택을 사게 됐다. 셀프스튜디오 겸 아지트로 사용하다 1층에 카페를 만든 지는 올 10월로 2년이다.

‘나른한 오후’는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는 그의 의도답게 값비싼 내장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요즘 오픈하는 브랜드 카페들과는 거리가 멀다. 주인장이 인테리어를 손수 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 그동안 모인 책이 꽤 많았다. 책꽂이를 만들어 꽂았고, 애지중지 했던 바비 인형도 진열했다. 나무도 푹푹 잘라내어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페인트를 칠했다. 낡은 주택의 쓸모없는 공간들이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살내 인테리어는 일년에 두 번 완전 탈바꿈을 한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셀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다. 셀프 스튜디오는 일반인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마당에 있는 바베큐 용기도 이곳을 찾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뷰 도중 라떼를 주문해서 보여준다. 라떼 아트로 감쪽하게 강아지가 그려진 일명 ‘후 라떼 란다. 그녀의 무한한 동물 사랑은 카페에 애완견 출입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강아지를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진 못하겠단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털털하게 웃어넘긴다.

바쁜 주인장 대신 ‘나른한 오후’ 메뉴에 들어 갈 재료는 그녀의 엄마가 만드신다. 이 카페의 최고메뉴는 바로 특대 팔빙수이다. 빙수에 들어가는 팔도 직접 삶고, 연유도 만들어 쓴다. 자면서도 메뉴 개발하는 꿈을 꿀 정도라는 그는, 요즘 솜사탕과 커피를 접목하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직원들 재교육도 철저히 하는 편이다. 인터뷰 내내 직원들에 대한 깨알 같은 자랑과 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유쾌, 상쾌 그녀를 만나 만화경처럼 크고 작은 세상이야기를 나눴다. 현재의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더 나은 낙관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마음의 여유를 찾는 전통찻집 예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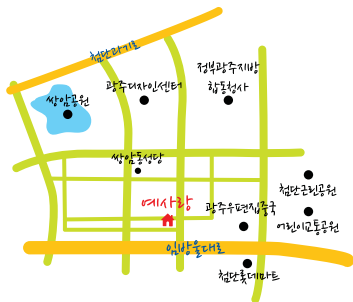
중년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끼리 오붓하게 차를 나누고 싶어도 방법에 서툴기도 하고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다. 밖으로 나가서 마시고 싶어도 몇 집 건너 눈에 띄는 커피점 뿐이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복작대는 젊은이들, 커피 일색의 메뉴 등이 남의 옷 걸친 것마냥 어색하다. 평소 이런 점을 눈여겨봤다가 행동으로 옮긴이가 있다. 첨단에 있는 전통찻집 예사랑 대표 형정희(55)씨다.

전통 찻집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묘하다. 꼭 전통 찻집엔 판소리나 가야금 선율이 흘러야 한다는 법도 없지만 클래식이라니. 8월중인데도 마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창문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꼬마전구, 가게 안에 걸린 아프리카 가면이 이 찻집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자리를 잡고 앉으니, 쌍화탕 냄새도 나고, 흔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약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보통 전통찻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쌍화차이다. '예사랑'은 쌍화차, 십전대보탕 등 건강차와 전통차, 국화차 더치커피와 눈꽃팔빙수 등을 판매한다.

예사랑은 처음엔 십전대보탕, 대보약오리 등 특화된 몸보신 식사류도 판매했다. 하지만 대다수 마음의 여유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지금은 식사류는 하지 않는다. 형정희 대표는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한 손님들의 표정이 더 반가워 좋다면 웃는다.



주소
광산구 쌍암동 682-4 성곡빌딩2층

전화
062-971-8677~8

영업시간
오전 11시에서 밤 11시까지, 매주 일요일은 쉼





가게에 걸려있는 아프리카 토속 가면은 예사랑을 찾은 손님들이 그에게 선물로 주고 간 것들이다. 특히 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 같이 마시는 소통의 장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세계의 차들도 선물 받는다고 한다.

그릇과 소품들은 직접 주인장이 손수 준비했다. 특히 차를 담는 그릇은 매우 중요하기에 여주에서 사왔다.

막 구워낸 가래떡과 '십전대보차' 가 나왔다. '십전대보차'에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등 사물과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등 사군자가 들어간다. 이 재료들에다가 황기와 육계를 넣어 달이면 '십전대보탕'이 된다.

십전대보탕은 4살부터 아흔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체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한방차이지만,



예사랑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연구해 더 오랫동안 달이는 법을 택했다.

형 대표에게 ‘차’는 단순한 차 그 이상이다. 가족과의 단절된 대화를 차를 통해 풀었다는 그는, 한국 차문화협회의 차문화예절 지도자 과정에 3년째 몸을 담고 있을만큼 만큼 차에 애정을 갖고 있다.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예사랑만의 건강차로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사랑’ 도 차에 대한 사랑을 예절을 다해 대한다는 뜻을 담아 주인이 지은 것이다.

인스턴트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의 입맛에도 전혀 까다롭지 않은 예사랑의 십전대보차와 대추차. 그 씹싸름하고 길쭉한 맛에 원기가 솟아나는 듯 하다.

우연히 만난 보석같은 명소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에 3초구이는 덤! 평촌도예방

인생을 살다보면 우연히, 무심코 소중한 것들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추억상자 속에 꼬깃꼬깃 접어놓았던 옛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던지, 몇십년은 들춰보지 않았을 법한 책 속에서 친구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가 그렇다.

여행 길에서도 종종 그러한 즐거움을 만난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접하게 되는 멋진 풍경이나 인연. 이는 일종의 여행이 주는 '보너스' 같은 것인데 때로는 이런 보너스와 같은 공간 혹은 만남이 주는 감동이 원래의 계획과 목적보다 클 때도 있다.

탐험대원들에겐 '평촌도예방' 이 그러했다.

아침에 모여 '원림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문화재단에서 첫 번째 원림을 향했다. 무돌길 1구간 탐사 중 무돌길 쉼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평촌마을을 지나치며 눈에 띈 '평촌도예공방(북구 충효동)'.

새싹이 제법 자라 초록으로 물든 한 마을, 그리고 무등산이 올라다 보이는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도예방이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이르기도 했고,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 선풍 들어가도 되는지, 행여 실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기우에 그쳤다. 평촌도예방 사람들은 환한 웃음으로 탐험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평촌 도예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활짝 열린 대문도 그렇거니와, 들어가면 도예 작품을 비롯해 도예를 만드는







과정과 가마, 물레 등을 볼 수 있고 도자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수 있다.

도예방은 정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전통 가마와 오른쪽에는 작업실로 나뉘어져 있다. 작업실로 들어가니 작업실 둘레를 따라 완성된 도예품이 진열되어 있고 가운데 테이블에는 초벌구이를 한 도예품이 유약옷을 입을 준비를하고 있었다.

한참동안 사진을 찍고, 궁금증이 커져 갈 때쯤, 이은석 도예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22년 짜 도자 를 만 드 는 그는 현 재 무등산분청사기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자기는 소지(흙)와 유약, 불이라는 3대 요소가 완벽하게 궁합이 맞아야 제대로 구워집니다. 그 중 단 하나라도 부실하면 도자기로서의 예술적가치는 사라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불’ 이지요 그래서 도예작업은 ‘불의 예술 입니다.”

이은석 도예가는 도자의 색이 비슷하면서도 오묘하게 다른 것은 불에 따라 그 색깔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분청을 좋아한다”며 “분청은 불이 닿는 면적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데 그 색은 회청부터 시작해 갈색까지 매우 다양한 색을 띌 수 있고, 규정이 있는 청자와 백자에 비해 분청은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분방한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평촌 도예방에서는 1일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미리 날짜만 예약을 해 놓으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모여 컵이나 쟁반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다. 만들고 간 도예품은 완성 되는대로 연락을 준다고 하니,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컵이나 접시를 가지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기쁨도 있지만, 더 재미난 소식도 있다.

보일러 가마는 필요할 때 마다 가스불을 켜기만 하면 되지만 전통가마는 불을 넣는 때가 있다. 평촌도예방에서는 가마에 불 넣는 날 ‘3초구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뜨겁게 달궈진 가마 안에 삼겹살을 넣으면 3초만에 구워진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탐험대원들이 “진짜 3초만에 구워지냐”며 눈을 반짝였더니, 이은석 도예가는 “3초는 조금 과장 됐고, 10초정도 걸린다”며 웃는다. 그래도 10초만에 구워진 삼겹살은 다른 곳에서 보기는 힘든 광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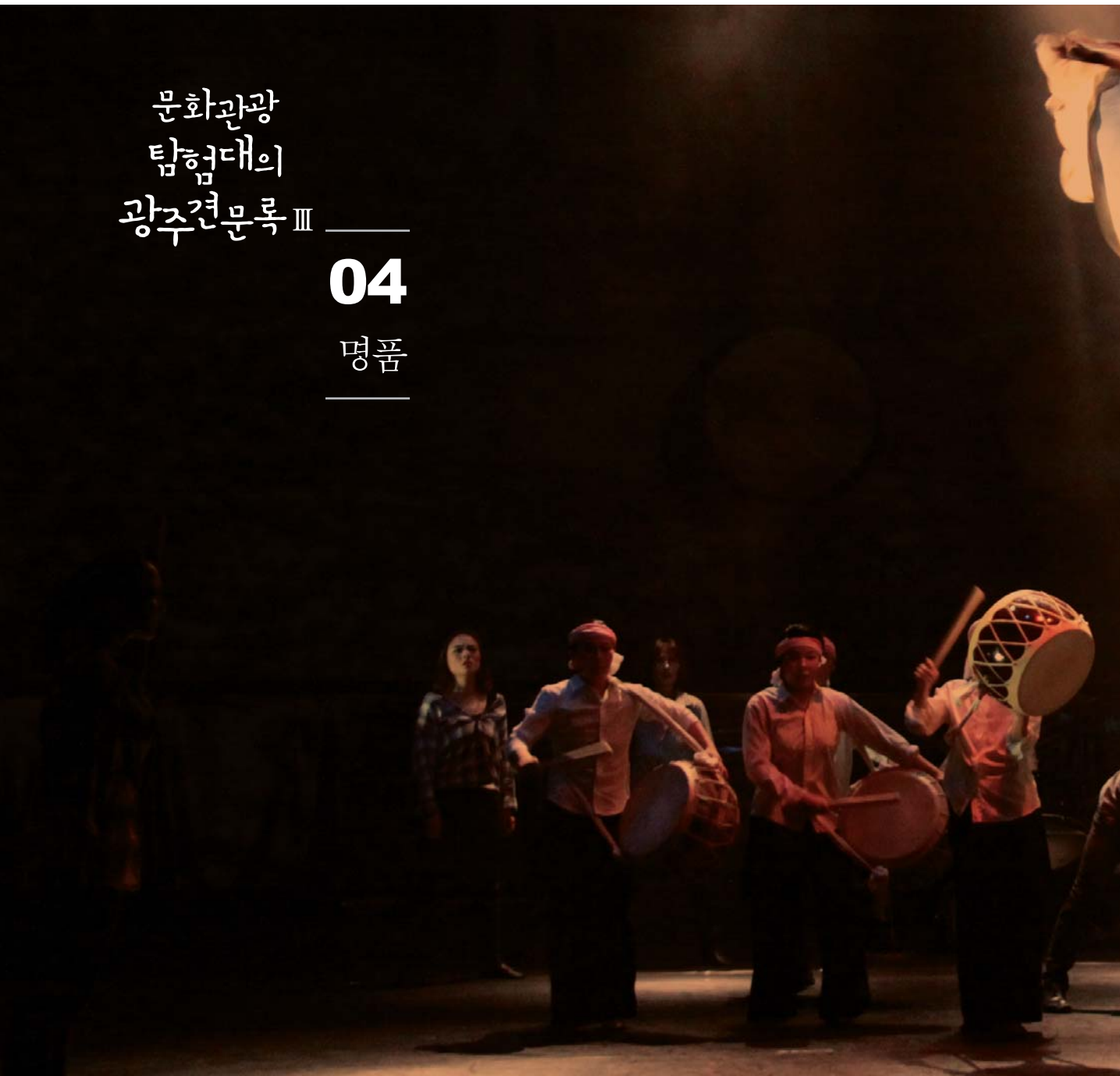
‘평촌도예방’은 광주관광 스토리텔링투어인 광주시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돼 있어 최근에는 지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잦아졌다고 한다.

가까운 주말에 도자기 체험을 예약해 자녀들과 함께 도자기 체험도 해보고, 무등산 가시문학관 탐방도 떠나보면 좋을 듯 싶다.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Ⅲ

04

명품





무등산에서 노닐다

440년 전, 선비들의 무등산 유람기 재해석, 유서석록

유월의 무등산에는 귀를 즐겁게 하는 반가운 소리가 있다. 이즈음 번식기를 맞은 지빠귀와 꿩꼬리가 구애의 세레나데를 불러대는 것인데 이 소리가 산을 찾은 사람들을 반기는 것처럼 들린다. 아마 439년 전인 1574년 초여름에도 무등산 유람에 나선 임훈 목사 일행을 이처럼 반겨줬을 것이다. ‘유서석록’ 재연 행사가 있는 이날도 탐험대원들은 산새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서석록(遊瑞石錄)’은 제봉 고경명(齊峯 高敬命)이 당시 74세의 광주 목사 임훈 일행과 함께 무등산에 올랐던 감상을 기술한 기행문이다. 불혹의 나이에 무등산을 유람하며 느낀 남다른 감회를 ‘유서석록’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유서석록’을 재연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무등산에서 노닐다’ 프로그램이 6월 13일, 14일 무등산 일대에서 펼쳐졌다.

첫째 날 오전 중심사 계곡에서 선비로 분한 배우들이 더위를 씻기 위해 계곡물에 발을 담그던 ‘탁족(濯足)’ 장면을 재연하며 이날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후에 무등산 능선을 따라 장불재에 오르니 어느덧 오후 3시가 가까워졌다. 탐험대원들은 당시 선비들이









바른 세상을 기원하며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조 낭송과, 국악 연주에 맞춘 시조창, 무등세상을 기원하는 기원무제 연극을 감상했다. 이날 행사에 예술가들로 구성된 시민탐사단이 무등산을 오르며 재연극을 보고 ‘유서석록’ 이 기록될 당시의 감흥을 현대적 재해석을 가미하여 작품으로 창작하고 관람객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저녁에는 원호사 회암루에서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 강현구 선생의 진행으로 夜한대담이 진행되었다. 선생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무등산 유산기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발제를 맡은 김대현 교수(전남대 국문과)가 조그마한 가방 속에서 연신 귀한 자료를 꺼내며 무등산 유산기를 설명한 장면은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둘째 날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려 임훈 목사 일행을 감탄케 했던 무등산 일출장면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의 탄식이 절로 나왔다. 오전에 조금 기상 상황이 나아져 정상 인근 신선바위에 오르니 운무로 가득한 무등산 정상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어서 일출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주는 듯 했다.

이후 입석대로 이동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굶어진 빗줄기를 이랑곳하지 않고 재연극을 선보여준 배우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날 탐험대원들은 내리는 비를 피해 식사할 장소를 찾던 중 장불재에 있는 KT중계소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마련된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유서석록’ 재연 행사인 ‘무등산에서 노닐다’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가진 무등산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매력에 젖어들 수 있었던 날이었다.

성산계류탁열도 재연행사 등에 지역민 참여
행사 재미 더해

조선시대 선비들, 무등서 더위를 쫓다! 무등산 여름축제

7월 13일(초복) 북구 충효동과 환벽당 일대에서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인 '무등산 여름축제' 가
펼쳐졌다.

본 행사인 성산계류탁열도 재연행사는 이번이
3회째를 맞는 행사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복날
성산계류에 모여 탁족과 복달임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이색적인 자라다.
그동안 광주견문록 1, 2권에서 재연행사에 대해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3회 행사의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성산 계류 탁열도는 조선 중기 학자 김성원의
기문집인 서하당 유고에 나오는 그림으로, 1590년
식영정과 환벽당, 서하당, 소쇄원을 중심으로
시단을 형성했던 김성원, 김부륜, 양자정, 최경희,
정암수 등 11명의 선비가 복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회를 열었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과 행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전통복장을 갖춰입은 놀이패 신명과 거문고 명인 정준수, 시조창 명인 한소리 등 예술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을 담은 성산계류탁월도를 생생하게 재연했다. 마을의 어르신들도 직접 재연배우로 참여해 훈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

본 행사 외에 부대행사로 충효동 왕버들나무 일대와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에서 벌어진 각종 체험과 소원 성취문 달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남다른 재미를 제공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며 닭죽, 파전, 막걸리등 복달임 음식을 나누며 복날의 의미성을 상기 시켰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민속 공연 등이 펼쳐졌고 충효동 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지역특산물로 경매도 진행했다. 경매물로는 소장하고 있던 도자기나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 등이 나와, 구경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에는 외국인들도 보였고 서울 등지에서 미리 알고 찾아 온 사람들도 꽤 있었다.

지역주민과 함께 꾸린 '무등산 여름축제'는 재연행사로만 그친 것이 아닌 그 주변일대가 축제의 장이 되어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빛고를 광주가 들썩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비트박스 · 비보잉 · 마샬아츠를
맛깔나게 한 무대에서 버무리다!

오감만족, (주)페르소나
님버벌 뮤지컬 '비밥'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뮤지컬이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적 예술 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에서 흥행과 작품성을 인증받은 뮤지컬 '비밥'이다. 님버벌 퍼포먼스 (non-verbal performance) '비밥'은 아카펠라, 비보잉, 비트박스 등 다양한 춤과 액션으로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탐험대원들은 5월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3,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진 비밥 공연을 관람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시, 피자, 치킨 누들을 피는 비밥 레스토랑이 무대다. 그린 셰프와 레드 셰프의 요리대결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이 펼쳐진다.









음식을 만들때 날법한 소리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비트박스과 아카펠라, 비보잉을 접목해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현란한 조명과 공연장을 광광 울려대는 음악은 관중들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음악은 녹음이 아닌 라이브로 질 높은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해 준다. 공연 중간 중간에 일부 관객들을 무대로 불러 음식을 맛보게 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시간도 주어지며 관객들의 호응과 폭발적인 웃음도 끌어냈다.



생활과 밀접한 음식이라는 친숙한 주제와 젊은이들의 언어로 나타내는 비트박스 등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관객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지했다는 것은 그것을 잘 말 해 주는 것 같았다.

비트박스, 아카펠라, 비보잉, 마살아츠 등 여러장르를 '비빔밥' 처럼 맛깔나게 버무린 공연이었다. 여기에 코믹한 드라마와 다양한 시각적 효과가 더해져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비빔밥은 '난타'와 '점프'의 연출로 유명한 최철기 감독이 총감독을 맡았다.



빛고을 광주가 들썩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산업화 시대에 뒤쳐진
하층민들의 삶,

극단 푸른연극마을
'사평역'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이 5월 29-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됐다.

연극은 소설 사평역(임철우)과 시 사평역에서
(곽재구)를 극화한 것이다. 1970~80년대 우리 사회의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에서 고단한 삶을 산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한 삶의 전형이 공간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의 작은 간이역. 창 밖으로
눈이 내리고, 구슬픈 기타 선율이 연극의 시작을
알린다.

대합실엔 자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다.
이 역을 지키는 역장과 시골 소시민 9명.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사람들은 막차를 기다리지만, 기차는 오지 않고 역에 서지 않는 특급열차만 자꾸 지나간다. 모두들 급히 어디론가 떠나야 하지만, 돈이 없어 급행열차를 타지 못한다.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등장인물들은 실망한 표정을 드러낸다. 춥고, 지치고, 배고프고... 이 역을 벗어난 현실은 더욱 더 팍팍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채 막차를 기다린다.

극이 전개되는 중간 중간, 역장이 나와 시 '사평역에서'를 읊는다. 이 시를 역장이 다 읽으면 연극도 끝나는 식이다.

그렇다면, 진짜 사평역이란 곳이 있는 걸까. 사평(沙平)이란 단어는 전국 각지의 모래사장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지명으로 흔하디흔한 이름이다. 결코 모래사장위에 역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평역이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평역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남광주역' 등 고유명사가 주는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한편,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사평역'으로 2010 광주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무대미술상·신인연기상을 차지했다. 광주대표로 참가한 '2010 제28회 전국연극제' 본선에 서 은상을 수상했다.





빛고를 광주가 들썩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80년 5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예술로...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광주 비나리 / 광주판打志^{타지}

풍물연희예술단 광대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Remember 5·18 광주판타지 공연을 6월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5·18 당시 행방불명 된 아들을 둔 늙은 아버지의 하루를 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아버지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5·18민주화운동 33돌. 세월의 무게만큼 늙어버린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한과 실움을 가슴에 담고 아들의 위패가 있는 중심사로 향한다. 늙은 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그날을 가슴에 묻고 아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초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다 지워진다고. 광주비나리 광주판타지 공연은 여기서 출발했다.

아들의 영혼을 기리는 셋김굿, 그리고 희망의 모듬북 협주곡이 이어졌다.

여느 타악 공연과는 다르게 단순한 두드림에서 벗어나 광주의 역사이자 이품인 5·18을 소재로 타악, 극, 춤, 영상 등 모든 장르가 결합된 총체극 형식으로 진행됐다.

작품은 5·18을 아픈 과거의 역사로만 남기지 않고, 많은 이들의 죽음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던진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연희예술단의 열정과 혼신을 다하는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초등학교생은 "군인들이 나와 공연이 6.25에 관한 것인 줄 알았다.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섭기도 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전통 타악 장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풍물연희예술단 광대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꾸준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빛고을 광주가 들썩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북이 울리고 물·불이 솟구치면
내 심장도 요동친다

얼쑤의 '인수화풍'

3년 연속 '페스티벌 오! 광주'의 브랜드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타악그룹 얼쑤는 3년 내내 같은 주제를 선보이고 있다. '인수화풍' (人水火風)이 바로 그 주제이다.

이번에도 얼쑤는 어김없이 6월 15~16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페스티벌 오! 광주' 공연을 가졌다.

얼쑤의 공연은 물과 불이라는 상반되는 두 소재를 이용하는 만큼 다 이내믹하고 아슬아슬하며 경쾌하고 화끈하다. 빠르게 진행되는 퍼포먼스는 잠시라도 한눈 팔 수 없게 만든다.

반복적인 타악기의 리듬은 공연에 제대로 빠져든 사람에게 심장이 함께 뛰는 울림을 선사한다.





얼쑤의 공연을 관람할 때, 필자는 무대 위
얼쑤 단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한다.

조그마한 체구와 평범하기 그지없는
단원들이 무대위에서 어떤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타악기를 두드리는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그들이 가진 신명을 온몸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지 봐달라고
말이다.

그러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신명이 얼쑤의 몸짓과 눈빛에 자연스레
이끌려 나와 '얼쑤하고 추임새를 외치며
무대위의 공연자와 하나 되어 흥에 겨운
순간을 경험할수 있을거라고,

공연주제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이지 않을까, 식상하지 않을까’ 의심을
가질만 하지만, 얼쑤는 한번도 똑같은
무대를 선보인 적이 없다.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사람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로 보는 큰 틀의 주제는
유지하면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과 연출법
등 새로운 방식을 늘 고민하고 접목시키는
모험정신을 선보인다.

한편, 얼쑤는 지역예술단체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연과 작품
발표회를 통해 그들의 작품을 알리고
평가받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빛고를 광주가 들썩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 공연축제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한국식으로 재해석

극단 여행자
'한여름밤의 꿈'

학창시절 선생님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넘긴 책장들은 더욱 기억이 생생해 어른이 되어서도 미소를 머금게 한다. 미우치 스즈에 작가의 '유리가면' 또한 1980~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기억 속에 남아있을 법한 명작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 중 하나인 '한여름밤의 꿈'을 원작이 아닌 이 만화책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닐 것이며 그 중 한 사람으로 짐작해 보건데 이들은 분명, 이번 '페스티벌 오! 광주'의 공연작 중 하나인 '한여름밤의 꿈'에 몽환적인 환상의 숲과 잠자리 날개옷을 입은 아리따운 요정들이 등장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6월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은 이러한 기대를 과감하게 깨부수었다.









도깨비 두두리의 첫 등장에 기대감은 의아함으로 바뀌고, 잠자리 날개옷 대신 냥마옷을 입은 도깨비들과 약초꾼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움과 실망스런 감정까지 밀려든다. 하지만 이내 곧 연기자, 춤꾼, 소리꾼, 연주자 등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배우들에 대한 놀라움과 우리가락의 신명남에 '이렇게 각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오히려 신선하고 좋은걸?', 하는 만족스러움이 번진다.

작품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기본 줄기를 토대로 하되, 세세한 내용들은 철저히 한국의 정서에 따른다.

연인인 항(亢)과 벽(壁)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벽은 아버지의 강요로 정혼자 루(魯)에게 억지시집을 가야한다. 항과 벽은 야반도주하기로 결심하지만 루를 짝사랑하는 익(翼)을 우연히 만난 벽이 야반도주 계획을 털어놓으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익은 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항과 벽의 도망사실을 그에게 알리게 된다. 격분한 루는 벽을 찾아 나선다. 한편 네 명의 엇갈린 연심을 지켜보던 도깨비 우두머리 돛(火)은 장난질 좋아하는 도깨비 두두리를 시켜 은방울 독초향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익의 사랑을 이루어주려 한다.

중간 중간 무대를 활보하는 도깨비들의 은근한 농담과 재기 발랄한 재주들, 관중을 연극에 참여시키는 배우들의 노련함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해피엔딩이라 더욱 기분 좋은 연극, 한여름밤의 꿈.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1층 홀에서 이어지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들과 공연 후 배우들과의 사진 촬영까지 관객들에게 만족스런 웃음을 선사한 공연이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무등산 천제단 개천제

10월 3일,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아 개천제가 열리는 무등산 천제단(無等山天祭壇)에 다녀왔다. 무등산 천제단이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매년 광주나 전남지역의 여러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지내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는 무등산 천제단. 무등산 천제단은 토끼등에서 중머리재 가는 길목에 있으며 증심사지구에서 당산나무까지 가서 천제단 삼거리로 올라 천제단 이정표를 따라 100m만 더 들어가면 송림우거진 숲 속 햇살 좋은 곳에 천제단이 있다.

증심사지구 버스정류장에서 천제단까지는 2.7km로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다. 무등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산나무에서 중머리재로 바로 오르지 말고 무등산에서 가장 기(氣)가 좋다는 천제단에 들러 무등산의 정기를 마음껏 받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당산나무에서 천제단까지는 900m로 20분이면 오를 수 있다. 천제단 삼거리에 도착하면 이정표가 있으며 이곳에서 100m만 더 가면 천제단에 이른다.









무등산 천제단에서의 개천제는 의재 허백련 선생이 처음 봉행했다.

광복 후 허백련 선생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봉황대 부근에 천제단을 마련하고 천제를 봉행하다가 1947년 천제단에 개천궁(開天宮)을 세우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단군신전 건립 결사반대'로 실패했다.

그 후에도 의재 선생은 천제단을 민족의 제단으로 신성시하고 이곳에 단군신전을 건립해 민족궁지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앞장섰다.

의재 선생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69년 서울 조흥은행 화랑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한국화 개인전을 열고 여기서 모아진 500만원(당시)을 기금으로 무등산 개천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후 1974년 12월 21일에 개천궁 기공식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매년 10월 3일이면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들의 모임인 연진회와 광주의 뜻있는 인사, 민간단체들이 천제단에서 개천절 제전을 집전했고, 1965년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무등산 개천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연진회의 명맥을 이어 1988년부터 광주민화회에서 집전을 맡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봉행된 무등산 개천제는 명맥이 일제에 의해 끊겼다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노력에 의해 복구되어 1965년 이후 지금까지 무등산 천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던 것에 반해 광주시의 개천절 경축행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 폐지된 뒤 지난 1998년 국조송모회와 민족정기선양회, 광주향교, 배달문화선양회 등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국조대제와 함께 15년 만에 상무지구 단성전에서 재복원됐다.

상무지구 여의산 단성전은 지난 1971년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상무대 송호림 장군이 군인들을 위해 2평 규모로 지었으며,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해 가면서 철거위기에 있던 것을 지역 원로들이 저지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이곳 단성전에서의 개천절 행사에는 매년 2천만원 가량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광주시와 북구·광산구, 5·18기념재단 등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회원들의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개천제의 음식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례음식과 많이 다르다. 무등산 개천제의 제복도 특이함을 알 수 있다. 이 제복은 삼면 고영두 선생의 지원으로 광주대학교 교수의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광주민학회 이민영회장의 축문이 이어졌으며, 무등산 개천제의 역사와 개천절의 유래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지금의 개천절을 보면 우리는 반성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를 처음 세운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경축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개천절은 종교행사가 아니다. 종교행사일 수가 없다. 일부 사람들은 공휴일, 쉬는 날쯤으로 여기는 세태는 다소 안타까운 점이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천손족(天孫族)'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한다. 개천절을 통해 조상들이 가졌던 이상과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개천제가 봉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같이 기원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무등산 개천제의 전통과 정통은 의재 허백련 선생에 이어 연진회, 그리고 광주민학회가 광주시와 동구청의 아무런 지원없이 이어가고 있다.

원래 무등산 천제단에서 봉행된 개천제가 1998년 이후 무등산 천제단과 상무지구 단성전으로 갈리어 봉행되면서 점차 접근이 힘든 무등산 천제단보다 시내에 있어 접근하기 쉬운 단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심 또한 시들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등산 천제단의 개천제는 이제 완전히 민간주도로 자체 지원없이 봉행되고 있다.

탐험대 역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같이 무등산 개천제에 참여하기 위해 증심사 지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무등산 천제단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올라왔다.

무등산 천제단(無等山天祭壇)은 무등산 새인봉이 사모를 쓰고 이곳을 향해 엎드려 있는 군신봉조형(君臣奉朝形)의 명당으로 삼한시대부터 묘향산, 구월산의 천제단과 함께 한국3대 천제단이라 했다.

광주에서 큰대회가 열릴 때는 강화도 마니산과 무등산에서 채화한 성화가 합해져 무등경기장 성화대에서 타오른다고 했다. 그만큼 무등산은 신성한 곳이다.

무등산 사랑만 외치지 말고, 직접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무등산 천제단 개천제에 참여해 진정한 무등산 사랑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일년의 단 하루! 머슴들과 일꾼들의 축제 서창 만드리 풍년제

"챙챙챙~ 갹갹갹"

북, 장구, 팽과리리를 치며 논둑을 가로 지르는
풍물패의 흥겨운 리듬이 서창 들녘에 가득하다.
우리의 전통 풍년 농사 기원 놀이인 만드리가
펼쳐지는 풍경이다. 영산강 지류인 서창 들녘
일대는 넓은 들과 함께 논농사가 발달했다.
때문에 서창 만드리라는 독특한 농요를
만들어냈다. 만드리는 '맨 나중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마지막 김매기'라는 뜻으로
'만물' 또는 '만도리'에서 유래된 말로 7월
백중(음력 7월15일)에 불렀던 농요다. 백중은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을 뜻하며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농가에서는 머슴과
일꾼들에게 후한 아침상과 함께 용돈과 휴가를
주며 농사의 고단함을 백중놀이로 달래도록
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새겨진
농기와 만드리기를 앞세운 선소리꾼 등







120여명의 재현팀들이 논으로 이동해 김매기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모두 흰옷을 차려 입은 소리꾼의 뒤를 따르며 선소리에 따라 뒷소리를 받아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춘다. 이때 낮은 만드리 소리, 만드리 소리, 이롱저롱(장원질소리)과 산아지 소리 등을 부르며 풍년을 기원한다.

오호~헤~ 에류~ 사하아~ 뒤~이여~어
감감한 밤은 멀리멀리 사라지고 삼천리 넓은 땅에 새 빛이 밝았구나
오늘월이 당도하니 우리 농부시절 되고 이강산이 땅이 우리 농부들 차지로세
게으른 두 눈은 아직 멀다 하고 부지런한 두 손은 다 되었다 하네
우리아 농부들 흙속에서 살고 늬이야 한량들 기생 품에서 사네
꽃 없는 동산에 나비 간들 뭐하고 입없는 저 방에 불을 칸들 뭐하리
저 건너 외 베미 김매로 가요 저 논을 다 매년 뉘 논을 땀까
논 가운데 땀복새 땀복땀복 울다가 서쪽하늘 날아가니 내 마음도 따러 가네
놀러 가세 놀러 가세 장터 안 새각시 집으로 놀러나 가세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아까운 이내 청춘 보내자나 말여라
다 되었네 다 되었네 이 논베미가 다 되었네 상사소리 매기면서 놀아나 보세
(‘낮은 만드리 소리’ 가사)

김매기를 끝낸 상머슴들은 깃발과 풍물놀이패를 앞세우고 황소의 등을 타고 논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과 상머슴, 풍물놀이패가 한데 어울려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힘든 농사일에도 주민이 화합해 농사를 짓는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

그 동안 서구는 발산, 중촌, 동하마을 등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기 위해 각종 문화 사료들을 검증해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하고,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재현했다. 서창 만드리 축제는 지금은 도심속의 문화 행사로 잡리 잡게 됐으며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놀이마당으로 판이 커졌다.

재현행사 외에도 서창 전통 한옥문화체험관 옆 체험장에서는 전통탈 및 장명루 만들기, 투호놀이 및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형소 타기는 아찔하면서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발산마을 사거리에는 만드리 전수마을이라 쓰여진 입석이 있다. 뒷쪽에는 서창 만드리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이 써 있으며 서창만드리 추진위원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은막 위에 인권·평화를
펼치다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의 13번째 잔치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메가박스 일대에서 펼쳐졌다.

2001년 처음 빛을 올린 이 영화제는 ‘광주’만의 색을 녹여내 인권, 휴머니즘, 평화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며 특색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인류의 평화공존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에 ‘노벨평화영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 상은 베트남의 당낫민(Dang Nhat Minh) 감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당낫민은 베트남전을 주제로 전쟁의 잔혹성과 참상을 고발하고 평화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는 5년 만에 ‘레드 카펫’ 행사가 부활해 관심을 끌었다.





개막작인 ‘스위트 하트 초콜릿’의 주연배우 린즈링, 영화제 홍보대사인 최윤영과 이종원을 비롯, 배우원기준, 이희준 등이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올해 신설된 드라마 어워즈 ‘베스트 스타상’은 배우 신현준, 뉴스타상은 이희준, 최윤영이 각각 수상했다.

개막작 ‘스위트 하트 초콜릿’, 폐막작 ‘스테블 라이프’를 비롯해 26개국 94편의 영화가 메가박스 광주와 광주영상북합문화관에서 상영됐다.

지난해 조(북한)·중 합작 영화를 선보였던 광주국제영화제는 올해 조선(북한)-벨기에-영국 합작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를 은막에 올렸다.

관객 수는 작년보다 1천여 명 늘어난 4천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영화상영 외에도 ‘한·중 영화포럼-한국-중국 영상 산업의 현황과 협력 방안’, ‘글로벌 시네토크트랜스내셔널시네마’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시민과의 만남자리도 마련됐다.

그런가하면, 비운의 여배우 최진실 사망 5주기를 맞아 기획된 ‘그리운 배우 최진실(1968~2008)을 말하다’에서는 최진실이 주연했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994), ‘고스트 맘마’ (1996), ‘뽀지’ (1997) 등이 상영됐다.

이 외에도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제작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영상제작물도 선보여졌다.





나도 작가다!

디자인 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 고래집

거시기, 머시기 를 주제로 열린 '2013광주디자인 비엔날레 (9월 5일~11월 3일)'는 디자인의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작품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외 328명의 작가가 60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들이 인상깊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의 시민참여프로그램인 '나도 디자이너'에는 시민디자인하우스 '고래집'이 선정돼 시민작가 10개 팀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래가 도심으로 놀러 오다'를 컨셉으로 고래가 상징하는 환경 메시지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디자인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6가지 디자인 미션으로 만들었다.





작품을 만나러 농장다리로 향했다.

‘고래집’은 모두 5개 공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디자인 숍과 리싸이클 화장실, 디자인 체험공간, 디자인 마을장터, 주변공터와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에 공동미션으로는 고래와 북극곰을 위한 공예작품 만들기가 더해졌다.

폐가였던 집과 공터를 폐기된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주제로 특히, 공터에 만들어 놓은 돌고래는 금세 태평양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갈 것 같았다.

원래 고래를 만들려고 했으나 아이들에게 훨씬 친근감이 있는 돌고래로 방향을 바꾼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고래집’은 폐가를 부수지 않고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도 알깨워주었다.

양철지붕 위는 여러 가지 철 구조물이 올려져 있어 번잡스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으며, 훗날 지붕과 구조물 사이로 담쟁이 식물을 심어 푸름을 더한다면 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 같았다.

입구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미션과정을 담은 사진들이다.

아마 제일 힘들었을 작업은 폐가 내부를 개조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아마추어 시민작가들이 직접 해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곳에 있는 소품들도 모두 미션 작품들이다.

100% 핸드메이드이지만 가격이 저렴해 자름신이 강림할 정도였다.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손수 만들어 정성이 듬뿍 담겼다는 점, 시장성을 갖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작품들이었다.

광주시민들의 디자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광주가 문화, 예술의 수도임을 ‘고래집’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

5회를 맞이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보면서 이제 광주시민 모두가 예술가이고 작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단돈 2,000원으로 즐기는 광주시티투어

광주 주변에는 볼거리들이 넘쳐난다. 식영정,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서하당, 부용당, 환벽당, 취가정 등 정자문화권이 가까이에 있다. 일상에 지친 이들의 힐링을 위한 나들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역사문화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교육의 장으로도 탁월하다.

‘광주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하면 이 주요 명소들을 손쉽게 둘러볼 수 있다. 그것도 단돈 2천원에 말이다.

올해에는 6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1회씩 진행됐다. 물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운행 코스는 크게 두 가지. 역사문화탐방과 박물관·전시관 코스이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광주역, 국립 5·18민주묘지, 소쇄원, 광주호호수생태공원, 충장사,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을 거쳐 광주역, 버스터미널로 돌아오는 역사문화탐방코스를 택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첫 행선지는 5·18 국립묘지. 시티투어를 단체로 사전에 예약하면, 5·18국립묘지의 해설사가 민주의 문부터 참배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준다.

대동세상군상, 추모탑을 바라보고 있으니, 숙연해진다. 묘지에는 675명의 유공자가 안장돼 있다.

버스는 무등산 자락에 걸쳐있는 소쇄원으로 향한다. 소쇄원으로 가는 길, 짙게 짙은 대나무에 선비들의 기개가 서려있다. 소쇄원은 비가 오는 날이나, 소나기가 뿌리는 날 가야 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즈넉한 길을 걸으며, 잠시 명상에 잠겨본다.

광주시티투어 세번째 코스는 나주목사를 지낸 김윤재(1501~1572)가 지은 환벽당이다. 환벽당 앞을 유유히 흐르는 창계천은 광주호 준공으로 물이 많이 불었다. 환벽당 안에 앉아본다. 우측으로 멀리 무등산 자락이 한 눈에 보이고,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본채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주말을 맞아 호수생태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 객으로 넘쳐난다. 천연기념물 제539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나무도 보인다. 높이는 10m, 둘레는 6m정도이며 수령은 430살이 넘었다고 한다.

이어 버스는 충장사로 향했다.

김덕령장군은 무등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어렸을 때부터 담력과 용력이 뛰어난 김덕령은 무등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백마능선에서 말을 달려 활쏘기 연습을 하는 등 수 많은 족적을 무등산에 남겼다.

광주시티투어 마지막 코스는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인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다.

사직공원 뒷편의 양림동은 100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곳으로 선교사들의 사택과 정감이 넘치는 골목길,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즐비한 곳으로 서양의 카톨릭 문화유적과 우리의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근대사의 보석 같은 공간이다. 호남신학대학교 내의 오래된 건물들과 더불어 광주민속자료 1호인 이장우가옥, 2호인 최승호가옥, 정윤희가옥, 무인카페 다형다방, 어비슨카페, 시화마을, 땡굴동굴, 양림교회 등 다양한 문화와 역사공간이 있다.

김현승의 시비에서 본 무등산의 일출은 광주8경 중의 하나이다.

근처에는 사직공원이 있어 사직단도 둘러볼 수 있고 김덕령장군의 유일한 시인 춘산곡 시비도 볼 수 있다.

오늘 광주시티투어버스 여행에 참석한 분들과 우월순선교사사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김현숙 광주문화관광해설사와 해외교포, 그리고 외지에서 광주를 방문해 시티투어에 참석한 분들 모두 이번 시티투어가 만족스럽다며 환하게 웃는다.



아침 9시30분에 출발해 오후 5시에 끝난 다소 긴 일정이었지만 광주의 역사·문화의 알짜배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했으며 그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물론 광주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본 역사문화코스 단 하나로 광주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광주에 대한 소중한 기억은 평생 간직하고 살이갈 것이다.

무등산을 두배로 즐긴다! 무등산 순환버스

무등산을 부담없이 빙 둘러볼 수 있는 '무등산 순환버스'가 2011년에 첫 운행을 시작한 뒤 올해로 벌써 3년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에는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돼 화순, 담양까지 걸친 무등산 전체 둘레를 버스 한 대로 거뜬히 눈에,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됐다.

'무등산 순환버스'는 무등산의 한 면만 바라보고 산 광주시민들에게는 무등산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무등산에 올라 화순쪽으로 내려서는 사람들이나 무등길을 한 바퀴 빙 도는 사람들에게는 광주로 돌아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버스는 겨울철엔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되지 않지만, 봄부터 첫눈이 내릴 때까지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린다. 올해 6월까지 광주시청에서 운영하다 7월부터는 국립공원 무등산관리사무소으로 이관됐다.

유념해야 할 것은 무등산 순환버스는 '시티투어버스'가 아니라는 것.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한 번 타면 2천원을 내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전 일정을 돌아볼 수 있지만, 무등산 순환버스는 말 그대로 무등산 외곽을 도는 순환버스이기에 내렸다가 다음 차를 탈 때는 또다시 요금을 내야 한다.

무등산 순환버스는 광주역에서 출발해 다시 광주역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거리는 약 77km이며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탐험대원들은 아침 9시에 출발하는 첫 차를 광주역에서 탔다. 벌써 좌석의 절반 가까이 찼다.

광주역에서 출발해 두 정거장을 지나니 무돌길이 시작되는 각화중학교 앞에 다다른다. 이 곳은 도심권의 마지막 정류장. 광주 시내에서 무등산 순환버스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정류장인 셈이다.

2시간 30여분의 운행 시간 동안, 중간 충효동에 있는 무등산 호수생태원에서 10여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무등산 순환버스는 광주역을 출발해 다시 광주역까지 되돌아 오는 길에 21개소에서 정차하지만, 중간에 마땅히 용무를 볼 장소가 없기에 이렇게 호수생태원에서 잠시 정차하는 것이다.

탐험대원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 중간에 화순안양산 휴양림에서 내렸다.

다음 버스를 타보기 위함이 첫째였고, 두번째 이유는 무등산 백마능선을 타기 위해 안양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출발지인 안양산 휴양림까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장불재까지는 4.2km, 안양산까지는 1.2km로 안양산만 올라서면 장불재까지는 아름다운 백마능선을 타고 그 옛날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장군이 말을 타고 달렸던 백마능선을 실컷 달려볼 수 있다.

안양산자연휴양림은 화순에서 만연폭포와 큰재를 거쳐



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이곳에서 안양산으로 올라 백마능선을 타고 무등산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출렁다리가 있는 고갯마루가 둔병재로 호남정맥이 지나가는 길이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안양산으로 오르려면 좌측 매표소를 통과해 좌측길로 올라서면 된다.

휴양림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편백나무숲 산책로는 코스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장 긴 코스가 40분이 소요된다.

둔병재에서 호남 정맥길을 따라 안양산-낙타봉-장불재-서석대로 올라 증심사 지구나 원효사 지구로 가는 종주코스를 타고자 한다면 광주역에서 무등산순환버스를 타고 이곳 안양산 자연 휴양림에서 내리면 된다.

반대로 증심사 지구나 원효사 지구에서 올라 안양산을 거쳐 휴양림으로 내려왔다면 무등산 순환버스가 오후 2시 28분과 2시 58분 등 2대가 지나가기에 버스 도착 10분 전까지 안양산 휴양림 매표소 순환버스 타는 곳에 있어야 한다.

또한, 안양산을 원점 회귀하는 산행을 하려면 수만 3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능선 삼거리 - 안양산 - 휴양림으로 내려서서 오후 2시 28분과 2시 58분에 오는 무등산 순환버스를 타고 차량을 회수하러 가면 된다.

무등산 순환버스 타는 곳에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므로 꼭 눈여겨 봐야한다.

광주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 탐험대원들이 안양산 휴양림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28분. 탐험대원들은 이곳에서 30여분간 휴양림 근처를 취재하기로 하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런데 마침, 오전 10시 58분에 도착하기로 약속된 2차 버스가 10분 일찍 이곳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는 각 정류장에서 하차할 사람과 탈 사람을 태우고 바로 출발한다. 정시에 출발할 것이라고 여유부리지 말고 최소한 10분 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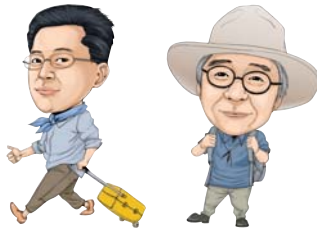
광주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오전 11시 55분에 다시 광주역에 도착했다.

무등산을 한 바퀴 빙 돌아오는데 막힘없는 길이다 보니 예정시간보다 5분 빨리 왔다.

무등산 순환버스를 취재하면서 탐험대원들은 장·단점을 느꼈다.

장점이라면 무등산 둘레길인 무돌길을 따라 무등산을 한 바퀴 빙 돌고자 하는 길 매니아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고, 광주로 나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담양, 회순 지역의 산간 외지마을 주민들의 발이 된다는 것이다.

단, 오후에 각 정류장에서 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과 예정된 시간 이전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가버린다는 점은 아쉬웠다. 오후 차량 배치시간을 1시간 뒤로 늦추고 각 정류장별로 정시에 출발한다면 무등산 둘레길 무돌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무등산 순환버스'가 진정한 발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무등산 순환버스 운행 안내

1. 운영기간 : 2013. 3. 9.~11. 17
2. 운행주기 : 매주 토, 일요일 운행
3. 운행코스 : 승강장 23개(각 승강장 별 시간은 지도참고)
 광주역 - 광주역 후문 - 교육대학교 - 각화중 - 등촌마을 - 청풍쉼터 - 총장사 - 호수생태원 - 소재원 -
 담양 남면 면사무소 - 화순 이서면 이서초교 - 안심마을 - 안양산 휴양림 - 큰재 - 수만리 입구 -
 선교 삼거리 - 소태역 - 학동 평화 맨션 - 증심사 주차장 - 조선대학교 정문 - 산수오거리 - 교육대학교
 - 광주역
4. 탑승장소 / 출발시간 : 광주역 09:00, 09:30, 10:00, 13:00, 13:30, 14:30
 단, 7~8월은 10시와 14시 30분은 배차되지 않는다.
5. 이용요금 : 매 탑승시 2,000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1,000원)
6. 이 용 팁 : 무등산 순환버스는 출발지에서 만차가 되면 중간 기착지에서 사람을 태울 수 없기에 통과해 버린다. 그러
 므로 가능한, 광주역에서 탈것을 권장하며, 기착지별로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 순환버스가 오는지를 살
 펴야 한다. 정류장에 사람이 없거나 손을 들지 않으면 가버리기 때문이다.
7. 군내버스와의 연계
 - 무등산 호수생태원 : 30분에 한 대 군내버스 운행
 - 화순군 이서면 : 1시간에 한 대 군내버스 운행
 - 화순군 큰재 : 오후 1시, 오후 5시 2대 군내버스 운행
 - 안양산 휴양림 : 군내버스 없음

무돌길 구간 안내

• 광주광역시 북구구간

- 제1길 싸릿길/3km, 약50분 시화문화의 집 - 각화저수지 - 들산재 - 신촌마을 - 등촌마을 정자
- 제2길 조릿대길(지릿재)/2km, 약40분 등촌마을 정자 - 지릿재 - 배재마을 정자
- 제3길 덕령숲길/2.5km, 약40분 배재마을 정자 - 금정이주촌 - 덕령숲길 - 금곡마을 정자
- 제4길 원효계곡길/4km, 약50분
금곡마을 정자 - 원효계곡입구 - 금산교 - 담안마을 정자 - 우성마을 노거수 - 반석마을 화관 - 독수정(산음교)

• 담양구간

- 제5길 독수정길/3km, 약50분
독수정(산음교) - 함충이재 - 정곡마을 정자 - 경상마을 정자(경상리 노거수)
- 제6길 백남정재길/3.5km, 약60분
경상마을 정자 - 경상저수지 - 옥녀탕 - 백남정재 - 무동마을 정자(무동저수지)

• 화순구간

- 제7길 이서길/4km, 약60분
무동마을 정자(무동저수지) - 송계마을 화관 - 용강마을 화관 -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
- 제8길 영평길/4km, 약60분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 - 도원마을 - OK목장 - 안심마을 정자
- 제9길 안심길/4km, 약50분
안심마을 정자 - 안심저수지 - 안양산휴양림
- 제10길 수만리길/3km, 약50분
안양산휴양림 - 둔병재삼거리 - 수만리분교 - 큰재쉼터
- 제11길 화순산림길/3km, 약50분
큰재쉼터 - 도로갈림길 - 중지마을 승강장 - 만연재(너와나 목장)

• 광주광역시 동구구간

- 제12길 만연길/3.5km, 약50분
만연재(너와나 목장) - 곰적골계곡 - 용연마을 정자(제2수원지)
- 제13길 용추길/3km, 약40분
용연마을 정자(제2수원지) - 선교마을 정자 - 육판리입구 -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입구
- 제14길 광주천길/4.8km, 약60분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입구 - 원지교 - 남광교
- 제15길 폐선푸른길/4.5km, 약60분
남광교 - 농장다리 - 중흥삼거리 - 광주역



「심장으로 듣고 마음으로 즐긴다! 재즈밴드, 올댓재즈(All that Jazz)」

‘브라보! 재즈 라이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1920년대 말 한국에 처음 재즈가 들어온 이후 함께 연주를 했던 한국재즈 1세대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가감 없이 그려낸 작품이다. 이미 고인이 됐거나 할아버지 세대인 그들의 육성과 레코딩 현장의 모습, 주옥같은 재즈의 라이브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다. 서울에 편중된 음악가들의 활동과 공연은 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가 없었다.

재즈 1세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재즈 역사와 함께 한 1.5세대인 재즈 밴드가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광주에서도 1세대 연주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그만뒀다.

그들의 뒤를 이어 한국재즈협회 광주 지회장직과 ‘최기철의 올드팝’ 대표로 있는 최기철을 중심으로 ‘올 댓 재즈’(all that Jazz) 밴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돌기

제 2회 재즈 콘서트



김준



사랑과평화



♥ 일 시: 97년 5월 25일 오후 8시(일요일)
 ♥ 장 소: 문예회관소극장
 ♥ 주 최: 광주 재즈 동아회
 ♥ 후 원: 광주전남연예협회, MBC, 광남일보
 ♥ 협 찬: 레스토랑 마인프라자, JJ 마호니
 ♥ 출 연: Jazz Quintet, Band Cadens, 김준, 사람과평화

12인조 Big band



최기철	▶ Bass	박래호	▶ Alto Sax
최창렬	▶ Guitar	조혁	▶ Trumpet
안병철	▶ Trumpet	남시호	▶ Alto Sax
주장권	▶ Tenser Saxophone	한경훈	▶ Piano
진태경	▶ Drum	조태규	▶ Organ
송행남	▶ Drum	김일원	▶ Trum Bone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면서 재즈를 비롯한 대중음악들이 미8군무대가 중요한 활동 기반이자 공급처로 자리 잡게 된다. 최기철 회장 또한 미8군에서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보컬 전문이었던 그는 악기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펑크 낸 멤버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얼떨결에 베이스기타를 잡게 된다. 8군은 시간을 정해 놓고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제때 들어가지 못해 남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방바닥을 두드리며 리듬을 맞췄던 것이 연주까지 하게 된 계기란다.

완전히 음악활동을 접었다가 친구를 만나러 온 광주에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됐다. 이후 광주에 아예 자리를 잡았고 1996년도에 재즈동호회를 만들었다.

1996년과 1997년도엔 5-6인조 밴드와 12인조 풀 밴드로 멋진 공연을 할 정도로 동호회가 활기찼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활동이 호지부지 됐다가 2010년에 다시 뭉치게 된다.

재결성 후에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며 2012년 12월 창립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달 꾸준히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정기공연을 통해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보통사람들에게도 문화적 혜택 및 재즈를 접할 기회를 주는 장을 제공하지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비용은 멤버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멤버들 모두 60세 초 중반이지만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베이스를 맡는 최기철 회장을 비롯해, 안병철(트럼펫), 이찬우(피아노), 최창렬(기타), 오태승(드럼)씨가 ‘올댓 재즈’에 몸담고 있다.

정통 재즈를 추구하는 ‘올 댓 재즈’는 재즈 외에도 올드 팝을 재즈 버전으로 무대에 올린다. 나이가 서 가요를 재즈에 접목시켜 대중과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단다.

지난 8월 정기 공연에는 남성 재즈 보컬 1세대인 김준이 출연해 성황을 이뤘다. 평생을 재즈라는 한길을 걸어온 그들의 원숙한 무대와 흥겨운 음악은 보는 이들에게 몇 배의 감동을 전했으리라.

최기철 회장은 “형편이 여의치 않다보니 김준 형님께 별도의 출연료 없이, 차비밖에 드리지 못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은데 동생들 하는 일에 보탬이 되려 흔쾌히 먼 길을 와 주신 형님께 죄송했다”며 연신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회망에 찬 어투로 말했다.

“점점 재즈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재즈는 그냥 즐기면 돼요.”

매월 셋째 주, 때에 따라 장소 변경이 있기도 하지만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구 KBS)에 가면 그들의 관록 있는 재즈 공연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재즈, 변주로 다양하고, 낯선 매력 선사! 재즈밴드, 세븐 마일즈

우리나라에 재즈가 들어 온 지는 100년 가까이 되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실력을 갖춘 뮤지션들의 연주가 활발하다. 광주에서도 젊은 뮤지션들이 모여 재즈라는 장르를 가지고 꾸준히 연주를 하며 재즈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밴드가 있다. 바로, 재즈밴드 '세븐 마일즈'이다.

두 차례, 세븐 마일즈의 연습실과 공연장을 찾아 그들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봤다.

7월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맹 연습중인 재즈밴드 '세븐 마일즈'를 찾았다.

'세븐 마일즈'는 7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기타, 베이스, 드럼, 색스폰, 건반으로 이루어진 5인의 세션과 2명의 보컬로 이루어져 있다.





직장 생활이 끝난 뒤 모이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야 연습을 할 수 있어 인터뷰 또한 한밤 중 그 틈을 이용했다. 멤버들 모두가 대학과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며 주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세븐 마일즈는 상설 재즈 클럽에서 만나 자연스레 결성된 팀으로, 2008년부터 연주 활동을 했다. 100회 공연을 했지만 재즈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클럽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형화된 연주보다는 기능하면 카페 같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특유의 자유로움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 공연을 하는데 비용은 9:1 정도로 거의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연 무대에 오르는 곡들은 대중적인 곡과 창작곡의 비율이 반반이다. 재즈의 본고장인 미국스타일은 연주자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특히 동양적인 것들로 선곡은 매번 다르게 한다. 2주만에 14곡의 창작곡을 만들어 낼 정도의 저력은 클래식을 전공했던 2인의 멤버의 힘이 크다고 한다.

한 가지만 오래 몰두하다 보면 식상해진다. 재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재즈는 자유롭게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즈는 스윙, 힙합, 락과도 잘 어울려 인프로바이션(즉흥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즈의 변주는 음악적 체계 내에서 주제를 놓고 그 안에서 다르게 표현되는데, 삶 그 자체와 같아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같은 음악이라도 변주를 통해 다양하고 낯선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븐 마일즈'의 생각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많이 하면서 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즉 마이너 음악과의 커뮤니티에 관해서도 말했다. 음악이 먼저가 아닌 삶이 우선시되는 열악한 시장성은 지금의 세븐 마일즈로 이끄는 데 시너지 효과가 더 컸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그들의 공연을 찾았다. 세븐 마일즈의 황인선 씨는 말했다. “무대에서는 마법을 겁니다. 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은 없다. 내가 최고다.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사람이 되지요”

신나는 리듬이 울려 퍼질 때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러댄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한 그들의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밤이었다.





부록 - 명창 김창환 선생 묘 별초





부록 - KBS 문화산책 포플러 촬영





7월 31일	Siempre 게스트하우스
8월 1일	신시와 카페
8월 3일	KBS 문화산책 포플러
8월 5일	대금명인 최성남인터뷰
8월 8일	故삼편 고영두선생 사모님 인터뷰
8월 10일	양림동 근대문화 역사지 탐방
8월 12일	나른한 오후카페, 꽃살 창호 임종철
8월 17일	명인무등산권 무돌길 2구간
8월 20일	한국화가 정산백현호 화백
8월 23일	운암골 식당, 전통찻집 예사랑
8월 24일	무등산 무돌길탐방(3-4구간)
8월 27일	승무 이수자박은하 명인
8월 28일	사진가 오상조교수 인터뷰
8월 29일	제3차 중간모임
8월 30일	무등산 시무지기폭포 탐방 외 무등산권
9월 2일	광주 국제영화제
9월 3일	재즈밴드 올댓재즈 인터뷰
9월 4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고래집"
9월 10일	제1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회의
9월 26일	제2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회의
10월 3일	무등산 개천제
10월 15일	제3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회의
10월 21일	제4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회의
10월 29일	제5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회의
11월 11일	제6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및 결과전시회 관련회의
11월 14일	제7차 문화관광탐합대의 광주 전문록 편집위원및 결과전시회 관련회의
11월 25일-29일	제3기 문화관광탐합대 결과전시회

